

인제문화

2022 | 제37집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인제문화원장 이만철

문화원 창밖으로 인북천과 내린천이 만나 소양강으로 이어지는 두물머리 습江이 얼어붙은 것을 바라보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을 느끼게 되는 嚴冬之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작은 소모임이 가능해진 초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는 12월도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저희 인제문화원의 활동과, 문화학교 수강생님들의 노력과 정진의 결과물을 한권의 책으로 펴내는 인제문화 제37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인제문화를 발간하며 2022년에 시행한 수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 무엇이였을까를 되짚어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하추리마을 주민들께서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 정선군까지 이동하여 함께 참여했던 강원도민속놀이축제 참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추리마을의 도리깨질소리는 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동제로서 마을의 화합과 단결심을 기르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금년도에 하추리마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상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행사를 성대히 완료하였던 합강문화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제군의 유서 깊은 문화제인 합강문화제에서 인제문화원은 전통문화로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강문화제 기간 중 열린 전통혼례는 그 白眉라 하여도 결코 과찬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전통혼례 방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통혼례에 참여한 신랑과 신부가 진정한 한쌍의 부부로서 緣을 맺게 된 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에 보여주셨던 인제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과 풍부한 문화·예술적 감성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도 藝鄉 인제의 문화 예술혼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인제문화는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기에 접어드는 37년이라는 세월동안, 인제군의 문학계를 비롯한 문화와 예술, 지역학 등 각 분야의 활동을 모으고 정리하여 기록하는 귀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문화 자산인 인제문화 제37집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계묘년에도 지역 문학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의 進一步하는 아니 進百步하시기를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12월



이사회회의



문화학교 간담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습 장면



강원민속예술축제 하추리도리개질소리



심우식선생 특별전시회



진용재교수 피아노독주회



설악문화연합 4차 회의



어린이 예절문화 교육사업



전통혼례



전통혼례



춘계 문화유적지 순례사업(제천, 단양)



추계 문화유적지 순례사업(양구)



박인환 골든벨



박인환 골든벨



강원문화대축전



강원문화대축전 강원도지사상(이강희 이사)



강원문화대축전 강원도의회장상(이은자 강사)



강원문화대축전 작품전시



강원문화대축전 색소폰공연



농업인의 날 문화행사공연



목공예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사업 냇강마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사업 하추리마을



지역학 연구발표대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한국문화원연합회공모사업 (은빛 손길, 인제문화다방 만들기)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 방문



평생학습박람회 다도체험



문화학교 노래교실



문화학교 다도



문화학교 라인댄스



문화학교 목공예



문화학교 민요



문화학교 사물놀이



문화학교 우쿠렐레



문화학교 한국무용



문화학교 한글서예



문화학교 합창



문화학교 한문서예



문화사랑방 댄스스포츠(인제읍)



문화사랑방 색소폰



문화사랑방 서양화



문화사랑방 수묵화(중급)



문화사랑방 아코디언



문화사랑방 요가



문화사랑방 파워댄스(용대리)



찾아가는문화학교(댄스스포츠 상남)



찾아가는문화학교 뗏목아리랑



찾아가는문화학교 민요2



찾아가는문화학교 수목화(초급)



찾아가는 문화학교 통기타(상남)



찾아가는문화학교 통기타(인제읍)



문화학교 수료식



문화학교 수료식 공연



문화학교 수료식 체험

차례 Contents

- 발간사
- 2022 문화사업

제1장 특집

- 박인환 시인의 시적 두 얼굴
-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만나다 _ 손흥기 30

제2장 향토사

- 백담사 목조아미여래좌상 부 복장유물 연구
- 최병헌 선생의 研究를 중심으로 _ 한승윤 52

제3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 고은조 _ sing for gold를 향해 · 74 / 가을잔영 · 75
- 박돈녀 _ 달맞이꽃 · 76 / 결혼기념일 · 77 / 덩 · 78 /
만추 · 79 / 훈장 · 80

- 박은덕 _ 한낮의 파티 · 81
- 원영애 _ 매미 허물 · 82 / 그 때를 아시나요 · 83
- 정순덕 _ 망구 · 84 / 올챙이 국수 · 85
- 한용운 _ 內麟川 - 함장굴 - · 86 / 운두령 - 풀꽃의 성산 - · 87
- 권순덕 _ 비밀 통로 · 88
- 김규중 _ 등산로 의자 · 90
- 김미애 _ 자작나무 숲의 비밀 · 91
- 김영관 _ 겨울과 봄 · 94 / 겨울 산 · 95 / 구절초 · 96
- 문부자 _ 가로등 불빛 아래 헌 의자 · 97
- 박돈구 _ 무명의 용사들에게 · 98
- 박청미 _ 봄꽃처럼 · 100
- 장순엽 _ 알람시계 · 102
- 전영숙 _ 밤 · 104
- 정순덕 _ 야무진 꿈 · 105
- 정옥자 _ 부양 - 산중일기 - · 106
- 최은희 _ 꽃놀이 · 108
- 최인홍 _ 시간의 안쪽 · 109
- 한우림 _ 새싹만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 110
- 허계홍 _ 기다림 · 112

산문 /

- 박돈녀 _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 114 / 흑백사진 · 116
- 박은덕 _ 환장할 나이환갑 · 118
- 정순덕 _ 내가 사는 법 · 120 / 등 밀어 드릴게요 · 121 /
주지스님과 종두의 절 이야기 · 124
- 허순애 _ 뇌세포는 춤추고 · 125
- 김영관 _ 삶의 흔적과 휴머니즘 추구의 미학 · 128

제4장 기고문

- 강원도 인제 및 기린 지역 지명의 유래
 - 어느 기린 토박이 촌로로부터 들은 _ 김용진 144
- 스승따라 별명따라 _ 최광윤 153

제5장 백일장 입상작품

- 제21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160
- 2022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214

제6장 임서전

- 제26회 인제서회임서전 248

- 임원현황 272
- 직원현황 272
- 원고모집 273



박인환 시인의 시적 두 얼굴

손흥기

제 I 장

기획특집

박인환 시인의 시적 두 얼굴

-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만나다

손 흥 기* 문학평론가, 인제문화원 이사

목차

- 1 문을 열며
- 2 박인환 연구사 검토 - 박인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3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성향
- 4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적 성향
- 5 문을 나서며

손흥기

계간 『시와 세계』 신인상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작품 활동 시작했으며
시론(詩論)집 『시에게 길을 묻다』
평론집 『박인환을 다시 읽다』가 있다.

한국문협작가상(평론), 강원도문화상(문학), 고대문우회상
인제군민대상(문화예술부문) 등을 수상했다.

월간 『유심』 편집위원, 계간 『인제문예』 편집주간,
고대문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인제문화원 이사
동국대학교 만해문학박물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인환- 학술 세미나 발표 모습

1 문을 열며

박인환 시인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치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해방 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혼란, 6·25 동족상잔 등 현대사의 질곡을 온 몸으로 살았다. 그는 자신의 첫 시집 『선시집』 후기에서 “나는 10여 년 동안 시를 써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시대였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살아 온 30년의 짧은 생애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가장 암울했던 시대이기도 했다. 박인환은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도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고(時代苦)와 맞서 당당하고 치열하게 살다간 시인이었다.

박인환은 1946년 12월, 『국제신보』에 「거리」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신시론〉,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후반기〉 동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1950년대 전후(戰後) 문단의 총아로 군림하게 된다. 그는 10여 년 간의 짧은 문단생활을 통하여 술한 일화와 화제를 뿌리고 비극적 삶을 마감했다.

2 박인환 연구사 검토 - 박인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박인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박인환의 문단사적 활동과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로 이는 박인환 연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두 갈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박인환 시에 나타난 모더니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반기〉 동인 활동을 중심으로 1950년대 모더니즘과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을 비교 연구하여 이들의 시사적 위상을 밝히는 작업이다.

둘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시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박인환의 시세계를 모더니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시세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모더니즘 경향의 시세계와 리얼리즘 경향의 시세계에 관한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박인환의 문단사적 활동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논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춘수의 경우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의의를 논하는 글에서 “30년대 모더니즘과 비교하여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적 발상에 있어 그들 자신의 선언과 달리 전통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동하는 〈후반기〉 동인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안목을 소유하기는커녕 개인의 감정 토로에 전념하는センチ멘탈리스트들이었으며, 봉건적인 사고

의 잔재를 털어 버리지 못한 채 어설픈 서구식 의상만을 걸친 소시민들이었고, 예술이란 것에 대해서도 가십(gossip)이나 딜레탕트(dilettante)로서의 면모가 강했을 뿐 진정한 예술지상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투철함과 거리가 멀다며 자기 극복을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인환 시연구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 경우를 보면 김재홍은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공과를 논하면서 “이들의 작품이 시적 형상화 기법에서는 3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신적 위상과 그 지향만은 훨씬 현실감각을 획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인환의 시는 도시 문명의 허울을 묘사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떠나는 모든 것들,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슬픔을 근원적인 인간의 비극으로 치환하여 지적 절제의 깊이와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김영철을 들 수 있다. 그는 “박인환은 모더니즘에는 실패한 시인이었다. 그러나 8.15 직후에 쓴 비판적 리얼리즘 시나 6·25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의 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50년대적 한계상황을 인식하고 절망과 좌절, 불안과 고독 등 실존적 포즈를 취함으로써 50년대 전후 문학의 당대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서 이러한 측면을 다소 소홀히 한 느낌이 있다.”고 하여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 경향에 대한 세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박인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후기 모더니즘 운동의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겉멋 취향의 피상적 사물인식’과 분위기적인 서구모더니즘을 수용하여 ‘절망과 좌절의 신음만을 장식적 조사와 관념어를 통해 자기 체험적 감상주의로 노래했을 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평가 절하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박인환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문학적 신념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시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모더니즘 시학의 공과(功過)를 점검하고 특히, 그의 전 작품을 통해서 두루 나타나고 있는 현실주의적 경향, 즉 거의 외면했거나 혹은 간과되고 있는 리얼리즘 경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박인환 문학세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을 위한 문제제기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3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성향

박인환은 6·25를 전후로 한국시의 모더니즘적 운동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시인이었다. 당시 이 땅의 정신적 풍토에는 가치의 전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세기말의 불안의식이 지적 풍토를 압도하고 있었으며, 메커니즘의 팽배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의 심화, 동족간의 상잔, 그리고 기존 문학전통에 대한 일탈에의 의지 등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다.

박인환은 이런 정신적 풍토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그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물량주의와 자본에 대한 혐오, 그리고 팽배된 죽음의식 등을 집중적으로 노래했다. 이러한 박인환의 모더니즘적 성향은 “전환하는 역사의 움직임을 모더니즘을 통해 사고해 보자”는 의도로 결성된 〈신시론〉의 동인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수록하였던 발문을 살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는 불모(不毛)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이 이반된 언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자본(資本)의 군대(軍隊)가 진주(進駐)한 시가지(市街地)는 지금은 중요

(憎惡)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난날을 노래했던 식민지의 애가(哀歌)며 토속(土俗)의 노래는 이러한 지구에 갈았다.

그러나 영원의 일요일이 내 가슴속에 찾아 든다. 그러한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과 시의 산책의 발을 옮겼던 교외의 원시림으로 간다.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즐기던 원시림으로 간다.

이 글은 박인환의 시적 지표(指標)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써, 그는 해방 전후의 정치·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를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이 불균정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로, 또한 그 사회를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인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적 대응방법이 바로 모더니즘이었던 것이다. 즉 그는 동시대의 문학이 “시민 정신에 이반된 언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애가(哀歌)이며 토속(土俗)의 노래”와 같은 기존의 문학을 버리고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애적 정조 일색의 식민지 시대 시문학이나 토속적 정서를 노래한 전통 시가문학의 답습’은 동시대의 진실을 올바르게 반영한 시문학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즉 시대적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적 대응 방법과 노력의 일환으로 모더니즘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박인환은 1955년 발간한 자신의 『선시집』 후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십 여 년 동안 시를 써 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중략)

여하튼 나는 우리가 걸어 온 길과 갈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분열한 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순결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본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실을 작품들을 발표했었다.

위의 인용글에서 우리는 그의 시대 인식과 시작화(詩作化)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박인환은 자신의 세대를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를 쓰는 행위가 시대적 혼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의미를 지닌 싸움임을 잘 알고 있으며, 시인은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을 지켜야 하고, 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를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박인환의 문단 활동은 해방과 6·25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대를 넘어서는 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절대가치가 붕괴된 현대문명의 비극성과 황량감을,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시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비록 삶의 현실과 시인의 정신 사이에서 상당한 부조화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시들은 한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시인의 절실한 언어로 남아 있는 것이다.

비록 1950년대 모더니즘이 하나의 운동으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현대시의 성장을 촉진시킨 활력소가 된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오세영이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라는 논문에서 이들의 공적을 “1930년대 살롱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더니즘 운동을 범 문단적인 것으로 널리 확대 보급 시켰다는 것과, 해방이후 문학적 공백기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전후를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문학의 맥을 이어주었다는 점, 그리고 해방이후 최초로 나름의 이념을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박인환 문학의 가치는 모더니즘 시학의 성공여부 보다는 동시대의 진실을 얼마나 잘 증언하고 있는 지에 논의의 초점이 놓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적 성향

우리의 현대시를 통시적으로 조망해 볼 때 대체로 ‘전래적 서정시’, ‘모더니즘 시’, ‘리얼리즘 시’ 등 세 가지의 커다란 줄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로부터 출발하여 한(恨)을 위주로 한 토착적 정서의 탐구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전래적 서정시’와 정지용·이상에 의해 틀이 잡힌 현대성의 추구에 역점을 둔 ‘모더니즘 시’, 임화·이용악을 정점으로 하여 사회의 진보와 현실에 대한 꺾진한 탐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리얼리즘 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 세 가지 문학사적 조류가 서로 역동적인 상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흐름은 서로 대립되고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인의 시세계에 합류 또는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한 시인에게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작품의 소재, 혹은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별 작품마다 독자에 따라서, 즉 독자의 지적 감수성이나 체감능력, 혹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천차만별의 느낌으로 읽혀 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터이다. 즉 리얼리즘, 시 혹은 모더니즘 시라고 측정하는 편리하고도 전지전능한 ‘황금의 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에 서 사용하는 리얼리즘시의 개념을 일단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윤여탁은 리얼리즘시를 “경향시, 또는 프로시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것” 『1920~1930년대 리얼리즘시의 현실의식과 형상화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설정하였으나 필자는 리얼리즘 시를 “당대 사회 현실의 유의미한 국면이 시적 주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꺾진하게 형상화”(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비, 1996)될 때, 즉 ‘사회 현실에 대한 탐구와 현실인식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 경향이 얼마나 시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 되는가를 중심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얼리즘적 경향들의 작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해방 공간에서의 현실(역사)인식

해방기에 발표된 박인환의 초기작들은 대체로 해방정국의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좌·우익의 혼란한 문단 정세에서 좌익의 〈조선 문학가동맹〉이나 우익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어느 곳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교적 초연한 자세를 취했다.

해방정국은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갈등기였으며, 신제국주의의 팽창기였다. 박인환은 이러한 해방기의 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치 현실에 대응하는 문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 시기 박인환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반제국주의 식민투쟁과 아시아적 연대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남풍」, 「열차」, 「식민항의 밤」 등이 있다.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물란의 반주악이 들려온다
오 약소민족
우리과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

삼백 년 동안 너의 자원은
구미자본주의 국가에 빼앗기고
반면 비참한 희생을 받지 않으면
구라파의 반이나 되는 넓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가물란은 미칠 듯이 울었다

(중략)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인민의 해방
세워야 할 너희들의 나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성립하였다 그런데
연립 임시정부란 또다시 박해와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모략을 부쉬라
이제는 식민지의 고아가 되면 못쓴다
전 인민은 일치단결하여 스콜처럼 부서져라
국가방위와 인민전선을 위해 피를 뿌려라
삼백년 동안 받아 온 눈물겨운 박해와 반응으로
너의 조상이 남겨놓은 저 야자나무의 노래를 부르며
홀란드군의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라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
힘 있는 대로 영웅 되어 싸워라
자유와 자기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야욕과 폭압과 비민주적인 식민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부분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는 전 11연 78행의 장시로 박인환의 현실 인식과 서사정신을 엿보게 하는 작품이다. 300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온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을 형상화한 시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현실 상황을 조선의 해방정국에 대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와 조선은 같은 약소민족으로서 식민통치를 받아왔고 그러한 제국주의의 야만적 체재를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인환은 서사적인 이 작품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의 자원 강탈, 여성 착취, 노예화 등 강대국의 폭압적인 식민정책을 날날이 고발하면서 자유와 민

족자존을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독립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며, 그들의 독립은 “조선에 사는 우리에게도 빛”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북이처럼 괴로운 세월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일찍이 의복을 빼앗긴 토민(土民)
태양 없는 말레이
너의 사랑이 백인의 고무원에서
자스민처럼 곱게 시들어졌다

민족의 운명이 쿠멜신의 영광과 함께 사는
양코르와트의 나라
월남 인민군

멀리 이 땅에서도 들려오는
너희들의 항쟁의 총소리

가슴 부서질 듯 남풍이 분다
계절이 바뀌면 태풍은 온다

아시아 모든 위도(緯度)
잠든 사람이여
귀를 귀울여라

눈을 뜨면
남방(南方)의 향기가
가난한 가슴팍으로 스며든다

— 「남풍」 전문

해방 후 쓴 박인환의 초기 시들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열린 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을 조명한 시가 주류를 이룬다. 대표적인 시 「남풍」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아시아적 연대를 고무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의 ‘남풍’은 남쪽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비유다. 시에 거명된 말레이, 미얀마, 월남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현장이 위도상 남쪽에 있으며, 이들의 투쟁 바람이 “아시아의 모든 위도(緯度)”에 불어오기를 바라는 시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시이다.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겪어 온 월남민들의 현실을 통해 비록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외양만 다를 뿐 본질상 동일한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불과한 조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깨진 유리창 밖 황폐한 도시의 잠음을 차고
울동하는 풍경으로
활주하는 열차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관습과
봉건의 터널 특권의 장막을 뚫고
피 비린 언덕너머 곧
광선의 진로를 따른다
다음 햇빛은 수목의 집단 바람의 호흡을 안고
누이 타 오르는 처음의 녹지대
거기엔 우리들의 황홀한 영원의 거리가 있고
밤이면 열차가 지나온
커다란 노동의 불이 빛난다
해성보다도
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게

— 「열차」 중에서

“슬픈 관습”과 “봉건의 터널이 상징하는 역사의 어두운 유산을 털어 버리고”, “노동의 불”이 빛나는 거리로 달리는 열차에 그의 시대를 비유하고 있는 이 시는 특히 고난이 극복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미덕은 시의 기교적인 면보다는 박인환 시 정신이 불안과 절망의 세계에 침몰하지 않고 ‘고난과 노동의 불이 빛나는’, ‘황홀한 영원의 거리’와 같은 밝은 희망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늘 ‘소박한 센티멘털리즘에 바탕을 둔 허무주의시’로 평가되어 온 그의 문학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향연의 밤

영사부인에게 아시아의 전설을 말했다.

자동차도 인력거도 정차(停車)되었으므로
신성한 땅위를 나는 걸었다.

은행 지배인이 동반한 꽃 파는 소녀
그는 일찍이 자기의 몸값보다
꽃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안다.

육전대(陸戰隊)의 연주회를 듣고 오던 주민은
적개심으로 식민지의 애가(哀歌)를 불렀다.

삼각주의 달빛

백주의 유혈을 밟으며 찬 해풍이 나의 얼굴을

— 「식민항의 밤」 전문

당대의 식민지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으로, 육전대(陸戰隊)가 연주하는 향연에 참석 후 돌아오는 도중의 감회를 서술한 「식민향의 밤」은 외국인들이 벌이는 향연의 호화로움과 식민지 주민의 상대적 초라함을 대비함으로써 현실적 삶의 비애를 고조시킨 작품이다.

자본주의의 침병인 ‘은행’의 지배인이 동반한 꽃 파는 소녀의 화대(몸값)보다 비싼 꽃값에 대한 떨칠 수 없는 생각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은행의 지배인이 제국주의가 앞세운 매관자본, 혹은 자본주의라는 내포를 갖는다면, 후자 즉 ‘꽃 파는 소녀’의 내포는 조국, 나아가서는 나약한 아시아의 민족들에게까지 확산된다. 그러므로 동양의 높고 심원한 정신적 연륜이 경제 제국주의에 찬탈당한 상황으로 인하여 시적 화자는 “적개심으로 식민지의 애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전쟁 체험과 현실의식

6·25 동란은 36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새롭게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대한 질곡의 역사적 체험이었다. 박인환은 그의 나이 25살 때 비극적인 6.25 전쟁을 맞았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만에 요절한 박인환에게 있어 전쟁 체험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신적 상처였다고 할 수 있다.

6·25 당시 박인환은 『경향신문』 기자로 있었다. 김정린, 김수영 등과 5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하고 시창작에 몰두하던 시기에 6.25를 맞았다. 그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적 치하 3개월을 숨어서 지냈다. 이런 와중에 딸 세화를 얻게 된다.

기총과 포성의 요란함을 받아가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하고
힘없이 자란다.

엄마는 너를 껴안고 삼 개월 간에
일곱 번이나 이사를 했다.

서울에 피의 비와
눈바람이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너는 입은 옷도 없이 벌거숭이로
화차(貨車)위 별을 헤아리면서 남으로 왔다.

나의 어린 딸이여 고통스러워도 애소도 없이
그대로 젖만 먹고 웃으며 자라는 너는
무엇을 그리 우느냐.

너의 호수처럼 푸른 눈
지금 멀리 적을 격멸하러 바늘처럼 가느다란
기계는 간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다.

엄마는 전쟁이 끝나면 너를 호강시킨다 하나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이며
나의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인가.

전쟁이 끝나면 너는 더욱 자라고
우리들이 서울에 남은 집에 돌아갈 적에
너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계집애.

나의 어린 딸이여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살아 있을 것인가.

— 「어린 딸에게」 전문

박인환이 딸 세화를 얻은 것은 9.28 수복 3일 전인 1950년 9월 25일이었다. 당시 박인환 가족은 적 치하에서 지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린 생명의 탄생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불가능했다. 딸이 태어나서 먼저 들은 것은 기총소리와 포성, 즉 죽음의 소리였다. 그리하여 시인은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라고 외친 것이다. 딸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에 시대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전쟁의 폭력성 앞에 ‘입은 웃도 없이 벌거숭이로’ 노출되어 있는 무기력한 딸의 운명은 바로 전쟁을 겪고 있는 동시대인들 모두의 운명이며, 민족 모두에 대한 연민의 정서인 것이다. 3개월 간 일곱 번의 이사를 하고 눈바람에 켜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화차 위의 별을 헤며 남으로 실려 온 아이는 비단 박인환의 어린 딸 세화 뿐 만이 아니다. 이는 어린 딸로 표현된 한국인의 전쟁을 통해 겪는 비운과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동시대인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아픔과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고지 탈환전
제트기 박격포 수류탄
어머니! 마지막 그가 부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옛날은 화려한 그림책
한 장 한 장마다 그리운 이야기
만세소리도 없이 떠나
흰 봉대에 감겨
그는 남 모르는 토지에서 죽는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는 피와 청춘을
자유를 위해 바쳤다.
음산한 잠초가 무성한 들판엔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전문

갈대만이 무성한 토지가
지금은 내 고향

산과 강물은 어느 날의 회화(繪畵)
피 묻은 전신주 위에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학교도 군청도 내 집도
무수한 포탄의 작열과 함께
세상엔 없다.

인간이 사라진 고독한 신의 토지
거기 나는 동상처럼 서 있었다.
내 귓전엔 싸늘한 바람이 설레이고
그림자는 망령과도 같이 무섭다.

어려서 그때 확실히 평화로웠다.
운동장을 뛰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와 동무들은
지금은 없고
연기 한 줄기 나지 않는다.

— 「고향에 가서」 전문

1951년 『경향신문』 종군기자로 전쟁이 휩쓸고 간 참혹한 폐허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살육의 현장을 답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박인환이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전쟁시들에는 사실적인 묘사들로 시적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는 치열한 고지 탈환 전투에서 죽은 한 무명용사의 시신을 통해 전쟁의 잔인성을 고발하고 있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용사의 시체를 보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처절하게 죽어 갔을 그의 최후의 순간과 그가 그리워했을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또한 ‘피와 청춘을 / 자유를 위해 바쳤’지만 찾아와 통곡해 주는 사람도 없는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으로 야기되는 비인간성과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고향에 가서」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다. 종군 작가단의 일환으로 고향을 찾은 박인환은 ‘어려서 그때 확실히 평화로웠던’, 그러나 지금은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고향에서 있다. 결국 이 시는, 예전의 고향과 전쟁이 휩쓸고 간 지금의 고향을 대비시킴으로써 전쟁터의 참담함을 극대화 시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추상을 배제하고, 전쟁 중에 겪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비극적 인식을 증언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적 상황에 대한 절실한 현실의식의 바탕 위에 구체성을 확보할 때에, 그의 작품에서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그를 저급한 센티멘털리즘 시인으로 폄하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어휘의 빈곤, 생경한 한자어의 남발, 이미지의 파편화, 경박한 끝맺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부분 극복되고 있으며 시적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도시적인 것, 문명적인 현상에 대한 강한 회의와 비판의식을 그린 「자본가에게」, 자본주의의 기계문명 발달로 인해서 날로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내면성을 그린 「아메리카 시초」의 일련의 시편들은 구체성의 확보

와 건강한 시민의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눈 여겨 볼만하겠다.

일제의 암흑기에 태어나서 해방공간의 혼란, 그리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살아 온 박인환, 그는 당대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절규와 신음의 언어를 통해 절절하고 생생하게 증언해 낸 시인이다. 그 자신은 모더니스트임을 선언하고 모더니즘의 한복판에서 영욕의 삶을 살다 갔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가 남긴 80여 편의 작품들에는 현실주의적 상상력과 그에 따른 현실 비판적 태도, 한편으로는 미래 전망의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리얼리즘 시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문학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 문을 나서며

박인환이 구현하고자 한 문학적 신념과 태도는 1930년대의 모더니즘 시운동의 정신과 방법을 계승하는 것이다. 즉 그는 1950년대를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서구 모더니즘의 시적 방법론을 차용하고자 한 것이다. 재래의 시형식과 사고에 대한 전면적 거부, 현대의 문명이 지닌 불모성과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묘사, 암흑과 불안, 현대문명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난해성과 비판적 정신 등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박인환이 추구하고자 했던 시세계의 특성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인환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서구 모더니즘 시의 아류로서 실패한 감상주의 문학이라는 비판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박인환 문학을 모더니즘 시운동의 성공여부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당대사회의 열악한 문화적, 문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가 동시대의 진실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자 했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놓여 질 때 우리는 박인환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박인환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실존적 불안의식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의 비애를 시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시인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한편으로 박인환 문학에 있어 방기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많은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주의적 요소들이다. 그는 광복과 함께 좌·우익 민족

의 갈등을 절망의 언어로, 때로는 분노로 끌어안고 그 희망의 빛을 문학에서 찾고자 고뇌하고 갈등한 시인이었으며, 또한 당대 누구보다도 시의 사회성이나 역사문제를 자각한 시인이었다. 이제 그의 많은 작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리얼리즘적 요소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그의 문학이 지닌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 질 때 박인환은 우리문학사에서 새롭게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 윤석산, 『박인환-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영학출판사, 198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영철, 『박인환』, 건국대 출판부, 2000.
김재홍, 『한국전쟁과 현대시의 응전력』, 평민사, 1978.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7.
이동하, 『박인환』, 문학세계사, 1993.
최두석, 『리얼리즘 시정신』, 창작과 비평사, 1993.



백담사 목조아미여래좌상
부 복장유물 연구

한승윤

제 2 장

향토사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부 복장유물 연구 - 최병헌 선생의 研究를 중심으로

한승윤 인제문화원

〈목차〉

I. 서론

II.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자식 점지 발원문(發願文)

I. 서론

설악산 심원사 사적기와 한용운의 〈백담사 사적기〉에 의하면 백담사는 서기 647년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조성, 봉안하였다. 한계사로 창건 후 1775년(영조51년)까지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취사로 바뀌다가 1457년(세조3년)과 1783년(정조7년)에 최봉과 윤담이 백담사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¹

백담사는 전통사찰 제24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장문화재는 보물 제1182호 목조아미타불 좌상 부 복장유물이다. 전설에 의하면 백담사(百潭寺)라는 사찰의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潭)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에서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백담사는 내설악의 아주 깊은 오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다.

1 내설악백담사(內雪嶽百潭寺) 안내문 참조. 인제군청

수많은 운수납자(雲水衲子)가 불원천리하고 이곳을 찾아 백담사 계곡을 시원하게 흘러가는 맑은 물에 객진번뇌를 털어내고 설악 영봉의 푸른 구름을 벗 삼아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기상을 다듬던 선불장이었다. 한용운이 편찬한 〈백담사 사적기〉에 의하면 부속 암자로서 유지(遺址)만 남아있는 곳으로 동암, 원명암, 백련암 등 8개 암자가 있었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사는 1905년 이곳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어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과 〈十玄談註解(십현담주해)〉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 유신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제의 민족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하였던 독립운동의 유적지로서도 유명하다.

1988년 5월 28일 자로 전통사찰 제24호로 지정된 백담사는 보물 제1182호(1993.11.1)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928년 백담사의 복구가 끝난 당시 조사한 데에 의하면 사보(寺寶)로 현장의 유물로 전해지는 미타불상 3위와 소종 1좌가 있고, 인조의 하사품인 칠층옥탑이 있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은 영조 24년(1748)에 조성된 아미타불좌상으로 18세기 전반기의 불상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 부장유물로는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 1매, 다라니서입회향발원문 1매, 황참의 다리연화방거 한글발원문 1매, 자식 점지 한글발원문 1매와 만자소화문황단 삼회장 저고리 1점, 유리와 수정 등의 파편 수백 점을 보자기에 싣는 복장물 1괄이 보관되고 있어 당대의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백담사에는 법당, 법화실, 화엄실, 나한전, 관음전, 산신각 등 6개 동의 기존 건물 외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상과 불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만해기념관, 만해교육관, 만해연구관, 만해수련원, 일주문, 금강

문, 만복전, 만해도서관, 요사채, 양로실, 만해당, 헌다실, 적선당 등 16개의 건물로 구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고찰의 하나이다. 백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기초선원으로 지정되어 갖 득도한 승려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제문화원 부원장과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표계 최병헌 선생의 연구서 가칭 ‘왕가의 사람들’ 중에서, 인제군과 관련 있는 왕가의 사람들 이야기 부분을 발췌하여 금번 향토사 연구대회 발표에 사용하도록 지도를 받으며 원고 작성과 연구조사가 시작되었다.

표계 최병헌 선생의 심혈을 기울인 저서 ‘왕가의 사람들’ 중에 수록 되어 질 원고 본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자가 현존 자료를 모으고 채증 조사 하였으며,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에 보존이 되어있는 ‘목조아미타불 좌상 부 복장 유물’에 대한 부분과 발원문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복장유물²에서 나온 ‘자식점지 발원문’ 및 기타 발원문과 삼회장저고리를 시주한 인물들을 영조(英祖)³와 관련 있는 인물로 특정하자면, 영조의 자녀인 화순옹주(和順翁主)의 발원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어

2 불상을 만들 때 불상 안에 넣는 불경 등 문화재. 중국은 8세기부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봉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조선후기 제21대(재위:1724~1776) 왕. 재위 1724~1776. 이름은 이금(李吟),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숙종의 세 아들(景宗·英祖·延齡君)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고, 계비는 김한구(金漢耆)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祔君)에 봉해졌으나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했던 관계로, 노론 유력자인 김창집(金昌集)의 종질녀로서 숙종 후궁이던 영빈(寧嬪) 김씨의 양자 노릇을 하였다. 이로 인해 숙종 말년 왕위계승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 이복형인 왕세자(후일의 경종)를 앞세우는 소론에 대립했던 노론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보좌하는 동궁요속(東宮僚屬)이던 김동필(金東弼)·조현명(趙顯命)·송인명(宋寅明)·박문수(朴文秀) 등과 대비 및 경종의 보호로, 불안한 속에서도 세제의 자리를 지켜 1724년 경종의 죽음에 따라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부 내용이 기록과 일치하고 사실로 밝혀지며 관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그간 복장유물은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⁴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⁵,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⁶,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⁷ 등, 수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역사문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II.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자식 점지 발원문(發願文)

1. 열녀(烈女) 화순옹주(和順翁主)

화순옹주는 조선 21대 영조와 정빈(靖嬪) 이씨 사이에서 1720년 둘째 딸로 태어났다. 위로 언니 화억옹주(和憶翁主)가 출생하였으나, 조졸(早卒)하였기 때문에 장녀로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여섯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4 2013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흥사(廣興寺)의 시왕상 복장(服裝)에서 발견된 고려말, 조선 세조 시기 한국의 불경 약 200여건.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 평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 조선 세조 때 만든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에 복장된 보물급 유물 23점.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이고 보물 제793호로 지정되었다. 1984년 7월 19일 문화재관리국 주재 아래 문수동자좌상을 조사하여 복장유물 총 23점을 확인하였다. 복장유물의 구성은 크게 발원문과 중수문, 불경 등의 전적류와 범자다라니가 찍힌 황초폭자, 원통형의 후렴통, 수정 사리병과 사리, 비단상의 2벌 등으로 고려 시대의 복장형식을 계승했다. 또한 왕실이 발원하고 주도한 복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장들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품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특징이다. 불경류는 제작연대가 1399년부터 1567년까지이다. 중수문의 기록에 따르면 1599년에 중수문을 넣기 위해 복장을 한 번 개봉하였고, 불상을 첫 제작한 이후에도 복장물을 추가로 납입했음을 알 수 있다.

6 서울 守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불상과 그 안에 복장되어 있던 고려말 조선초의 복장유물 36종 84점. 현재 서울 은평구의 수국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580호로 지정되어 있다.

7 대휴사의 목조보살 좌상은 불상 양식과 단청 작업을 했던 기록인 단화기(丹牘記)와 유물 가운데 복장물을 넣는 통인 후렴통(候鈴筒) 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색난(色難)의 제자인 하천(夏天)이 1730년에 만든 불상으로 추정한다. 대휴사의 목조보살 좌상은 불상을 만든 스님과 만들어진 연대를 알 수 있어서 복장에 있던 유물(전적 28책, 고문서 4매, 유물 1점)과 함께 불교 조각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와 정순왕후(定順王后) 김씨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자, 세 번째로 정빈이씨(靖嬪李氏)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英祖+貞聖王后→無子

定順王后→無子

靖嬪李氏→孝章世子(眞宗), 和憶翁主, 和順翁主,

(夫:金漢愼)

暎嬪李氏→思悼世子(莊祖), 和平, 和協, 和緩翁主

貴人趙氏→和柔翁主,

淑儀文氏→和寧翁主, 和吉翁主,

和順翁主의 家系圖

정빈이씨는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追贈)된 이준철(李竣哲)과 부사과(副司果) 김매일(金梅一)의 딸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처음에는 동궁전(東宮殿) 나인(內人)이었다. 영조가 아직 연잉군(延昞君)이었을 때에 그의 소실(小室)이 되었다. 그의 가계(家系)는 잘 알 수 없으나, 할아버지는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된 이신선(李信瑄)이고, 증조부는 이조참판에 추증된 이언양(李彦良)이다. 그의 가계 배경과 어떤 이유로 궁녀가 되어 입궐했는지는 불확실하다.

1725년 화순옹주로 봉해졌는데, 5년 뒤인 1730년 3월 궁인(宮人)들로부터 세자와 옹주를 매흉(埋兇)⁸하는 일이 있었다. <영조실록> 1730년 3월 9일 자를 보면

8 매흉(埋兇):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詛呪)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장소에 파묻는 행위. -한국고전용어사전

임금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다가 이르기를,

“말을 하고 싶으나 마음속이 먼저 나빠지니 마땅히 진정시키고 말하겠다. 이는 외간(外間)의 일과 다른 것이니, 사관(史官)은 상세히 듣고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라.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순정(順正)이란 이름의 한 궁인(宮人)이 있었는데, 성미가 불량하여 늘 세자(世子) 및 세자의 사친(私親)에게 불순(不順)한 짓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쳐 버렸다. 신축년에 건저(建儲)한 뒤 궁인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로 들어오도록 했는데, 혹은 마음을 고쳤으리라고 생각했다. 갑진년에 사복(嗣服)한 뒤에는 세자 및 두 응주(翁主)를 보양(保養)하게 하다가 세자 책봉(冊封) 뒤에 그를 응주(翁主房)에 소속시켰으므로 동궁(東宮)의 나인(內人)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앙양불락하였으니, 이른바 기심(歧心)이 있는 자였던 것이다. 대개 신축년 겨울의 일이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결녀(厥女)에게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지는 않았지만, 나는 의심스러운 것을 가지고 남을 죄주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두고 묻지 않았다. 그 뒤 행약(行藥)한 한 가지 일이 나온 뒤로 결녀가 매번 이 일에 관해 들을 적마다 안색이 바뀌는 일이 없지 않았으니, 마치 춘치자명(春稚自鳴)⁹과 같은 격이었다.

재작년 원량(元良)의 병이 증세가 자못 이상하게 되었을 적에 도승지(都承旨) 또한 ‘의원도 증세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진실로 의심했지만 일찍이 입에 꺼내지 않았고, 지난번 화순옹주(和順翁主)가 홍진(紅疹)을 겪은 뒤에 하혈(下血)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괴이하게 여기며 의아해 하다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독약(毒藥)을 넣어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미 세자(世子)의 사친(私親)에게 독기(毒氣)를 부렸기 때문에 세자가 점점 장성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또다시 흉악한 짓을 하였고, 강보(襁褓)에 있는 아이인 4왕녀(王女)에게도 또한 모두 독약을 썼다. 나의 혈속(血屬)을 반드시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려 했으니, 어찌 흉악하고 참혹하지 아니한가? 정명(正命)으로 죽어도 오히려 애통하기 짝이 없거늘, 하물며 비명(非命)에 죽는다면 부모가 된 사람의 마음이 또한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신축년의 일은 내가 제기해 말하고 싶지 않으나, 무신년부터 흉악한 짓을 하기 시작하여 이미 원량(元良)을 해쳤으니, 그가 아무리 지극히 흉악한 사람이라 해도 또한 그 만두어야 할 것인데, 반드시 4왕녀를 모두 독살(毒殺)하고야 말려 했으니, 그의 마음의 소재가 어찌 너무나도 음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만일 원량에게 독약을 쓴 일이 없었다면 금내(禁內)에서 다만 마땅히 장살(杖殺)하고 말았을 뿐이었지만, 동궁에게 흉악한 짓을 한 장상이 이번에 이미 탄로났고 금내에서 구문(究問)하자 그가 또한 지만(遲晚)으로 납초(納招)하였으니, 만일 이런 일이 명백하여 의심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국청(鞠廳)을 설치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겠는가? 접때 거동했을 때 금내에서 파수(把守)

9 춘치자명(春稚自鳴): 봄날 꿩은 스스로 울어 자기 위치를 알린다는 말.

하는 일이 있어 비로소 수상한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 내가 빈궁(嬪宮)으로 가는 길에 잡게 되었는데, 대저 창경궁 근처는 한 조각도 말끔하고 깨끗한 땅이 없었다. 그로 하여금 매흥(埋凶)한 곳을 가리키도록 하여 파 보았더니, 뱃가루와 뱃조각 그리고 쇠기를 같은 것이 곳곳마다 있었고, 빈궁 및 옹주방(翁主房)의 담장 밖에도 모두 묻은 데가 있었으니, 이 얼마나 흉악한 뱃속이란 말인가?

결녀는 성질이 본래 흉악하여 다른 궁인(宮人)을 사주하여 동류들을 욕하게 하였고, 큰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어 세자 및 세자의 사친(私親)을 욕하기까지 하였다. 한문제(漢文帝)가 ‘나는 고황제(高皇帝)의 측실(側室) 아들이다.’라고 했거니와, 결녀가 침욕(侵辱)한 뜻은 대개 향시 능모(凌侮)하는 마음을 가졌던 데서 나온 것이다. 그가 세자를 보양(保養)한 것은 2세에서 7세까지였다. 그러므로 결코 이런 흉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어찌 그가 이처럼 낭자하게 흉악한 짓을 할 줄 생각이나 했으랴? 죄인 순정(順正) 및 함께 음모한 복랑(福娘)·구월(九月)·김덕이(金德伊) 네 사람을 내수사(內需司)에 가두고, 세정(世貞)·거어지(去於之)·박경유(朴景裕) 세 사람을 단봉문(丹鳳門) 밖에 대령하도록 하고 도사(都事)를 보내어 잡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니, 대신들이 모두들 다투어 끝까지 다스려 실정을 알아내고 법대로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다. 결국 국문(鞫問) 결과 흉악한 짓을 한 것이 드러나자 결안(結案)을 받은 다음 모두 처참(處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순옹주가 13세가 되는 1732년에 겸판서(兼判書) 김흥경(金興慶)의 아들 김한신(金漢薰)과 혼례를 치름으로 한신(漢薰)은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다. 두 사람 간의 금슬은 그 어느 부부보다도 좋았으나 자식을 얻지 못한 채 1758년 월성위가 신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옹주 또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하다 결국 14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화순옹주가 식음을 전폐한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 옹주가 거소(居所)하는 사가(私家)에 나가, 아비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음식을 들도록 권하였다. 그러자 옹주는 부친의 권고에 불충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이내 토해내고 말았다.

이에 영조는 아비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 불충(不忠)이라 하여, 모든 대신들이 열녀(烈女)라 하며 정려를 내리도록 진언(陳言)하였으나 영조는 극구 열녀로 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장사를 지낸 후 화순옹주의 신주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영조는 월성위궁에서 신주를 맞이했고, 정조는 고모 화순옹주에게 열녀 정문(旌門)을 내리게 하고 다음과 같은 치제문(致祭文)도 내렸다.

아, 우리 귀주(貴主)여 / 猗我王姬
 어찌 엄숙하고 온화하지 않았던가 / 曷不肅雝
 열덕(烈德)을 갖추신 백고는 / 有烈伯姑
 그 위위가 맑고 신중하여 / 其儀淑慎
 유순한 자태로 궁에 있었으니 / 婉婉在宮
 겸손하고 온화함이 밖으로 나타나고 / 謙和形外
 곧고 미더운 덕이 충심에서 말미암았네 / 貞信由衷
 이름난 문벌을 택하여 혼인하니 / 擇對名閥
 진실로 어진 남편이었네 / 允矣賢尉
 남편에 대한 공경과 예절이 어긋남이 없고 / 敬禮無違
 자신의 귀한 신분을 밟고 행동하지 않았네 / 不挾其貴
 내외가 모두 화목하였고 / 外內諧穆
 일찍부터 청탁(淸濁)의 구분이 분명했네 / 夙有涇渭
 평일의 유순한 모습은 / 婉其平日
 온화한 옥 부드러운 난 같았으니 / 溫玉柔蘭
 군세게 한번 죽음을 택했음은 / 毅哉一死
 소나무의 경절(勁節)이요 대나무의 한랭(寒冷)이었네 / 松勁竹寒
 정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니요 / 匪殉于情
 오직 정절을 완전하게 함이었으니 / 惟節是完
 부부가 한 무덤에 들어감은 / 雙和就穴
 서민의 부부라도 오히려 어려운 일 / 匹庶猶難
 공강(共姜)¹⁰이 뜻을 맹세하고 / 共姜誓志

10 공강(共姜): 춘추시대 위나라 세자 공백(共伯)의 처로, 공백이 일찍 죽자 개가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끝까지 수절하였다.

백희(伯姬)¹¹가 그 몸을 태웠는데 / 伯姬焚躬
 나의 백고가 이를 겸했으니 / 我姑兼之
 일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네 / 事殊心同
 드러내 밝히기를 기다림이 있어 / 表章有待
 작설(緯楔)¹²이 이에 높이 서니 / 緯楔斯崇
 아름다운 이름 길이 걸려서 / 芳名永揭
 심수(沁水)¹³가 다함이 없다네 / 沁水無窮
 생각건데 내 어렸을 적에 / 憶在穉齡
 얼굴을 보았는데 / 及見顏範
 환패(環珮)¹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 琅然環珮
 아직도 어렵스럽게 생각나네 / 尙自依黯
 높이고 장려함이 어디에 있으랴 / 崇獎奚有
 나의 마음에 부족한 느낌이 있다네 / 於予心慊
 이에 보잘것없는 정성을 바치노니 / 式薦菲誠
 청주가 절로 맑아이다 / 淸酒有湛

화순옹주는 조선 왕실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가 되었다.

2. 자식 접지 발원문(發願文)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한 천년이 넘는 고찰(古刹) 백담사에는 1993년 11월 5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182호로 지정된 ‘목조아아미타불 좌상 부 복장유물’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 부 복장유물’은 극락보

11 공강(共姜): 춘추시대 위나라 세자 공백(共伯)의 처로, 공백이 일찍 죽자 개가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끝까지 수절하였다.

12 백희(伯姬): 춘추시대 노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나라 공공(공공)의 부인 되었다. 공공이 죽은 뒤에 송나라 궁궐에 불이 났는데, 모두가 피하기를 권하자, “부인의 의리는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의를 지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끝내 불타 죽었다.

13 작설(緯楔): 문 위에 세워 정표(旌表) 하는 뜻을 나타내는 나무. 정려(旌閭)의 뜻.

14 심수(沁水):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딸 이름이 심수공주(沁水公主)인 것에서 기인한 말.



충남 예산 용궁리에 있는 화순옹주 홍문 (충남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



전(極樂寶殿)안에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¹⁵은 본래부터 백담사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었다.

전해지는 기록상으로 “朝鮮國江原道嶺西平康縣雲磨山寶月寺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乾隆十三年歲次戊辰七月日…良工 引性 緇俊 肯柔 再徵 靈源 最D 敏悟 義尙 弘信 崔淑 最白 脫穎 信玄 思玉 開慧…冶匠 李貴建 負木 崔興伊”이라는 글이 남아있어 다른 사찰에서 옮겨진 불상이었음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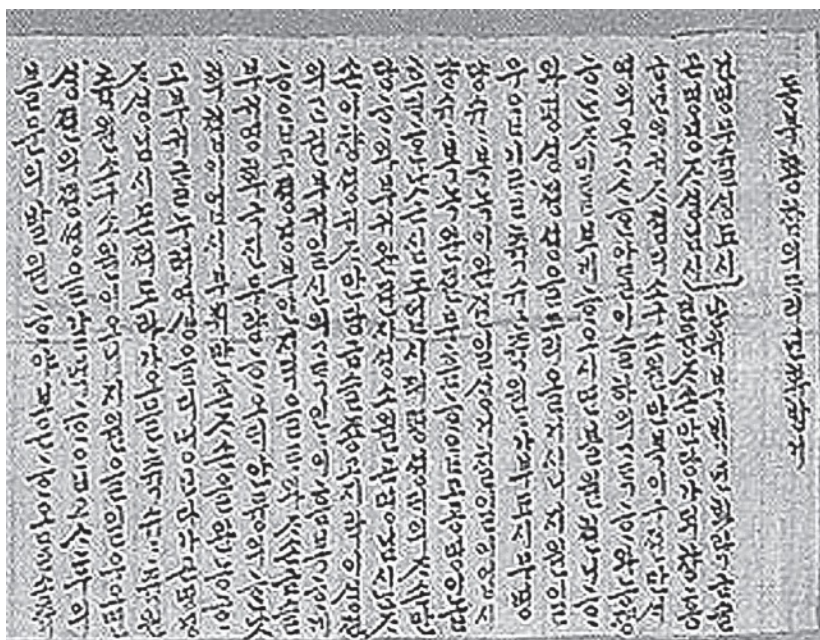
해당 불좌상은 목재(木材)로 두 손은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¹⁶에 엄지와 중지예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¹⁷이고, 두 발은 결가부좌형(結跏趺坐形)이며, 신고(身高) 87cm, 두고(頭高) 30cm, 어깨너비 42cm, 무릎 너비 65cm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큼직하게 솟아있고, 육계(肉髻)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나발(螺髮)이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작연대는 1748(영조 2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복장유물로는 저지(楮紙)로 제작된 발원문(發願文)이 4매가 있고, 비단으로 제작된 만자소화문황단삼회장저고리(卍字小花紋黃緞三回裝赤古里) 1점, 유리와 수정 등의 파편 수백 점을 보자기에 싸 놓은 것으로 복장물로 대체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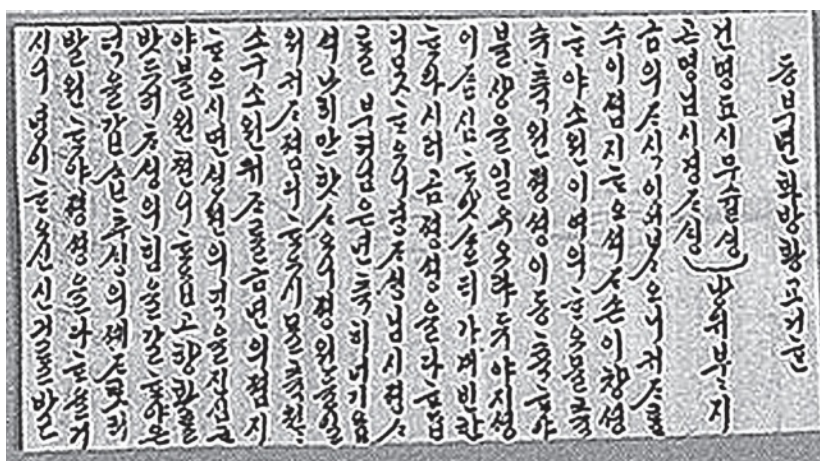
15 높이 87cm의 아담한 불상으로, 평강 운마산 보월사에 봉안하기 위해 1748년 인성, 치준, 공유, 재징 등 총 15명의 조각승이 조성했다.-문명대,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 강작 미술사 제5, 한국미술사연구소, 1993, 83-88쪽

16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 부처의 손의 모양인 수인(手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지권인, 법계정인(선정인), 미타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설법인), 시무외인, 여원인, 통인(시무외여원인), 합장인 등이다. 이 가운데 시무외여원인이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같이 취하는 것(이를 합쳐 통인이라 함)으로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무외인은 施(베풀 시) 無(없을 무) 畏(두려울 할 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원인은 與(줄 여) 願(원할 원),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시무외여원인을 취하고 있는 불상들은 삼국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다.

17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모습의 수인을 말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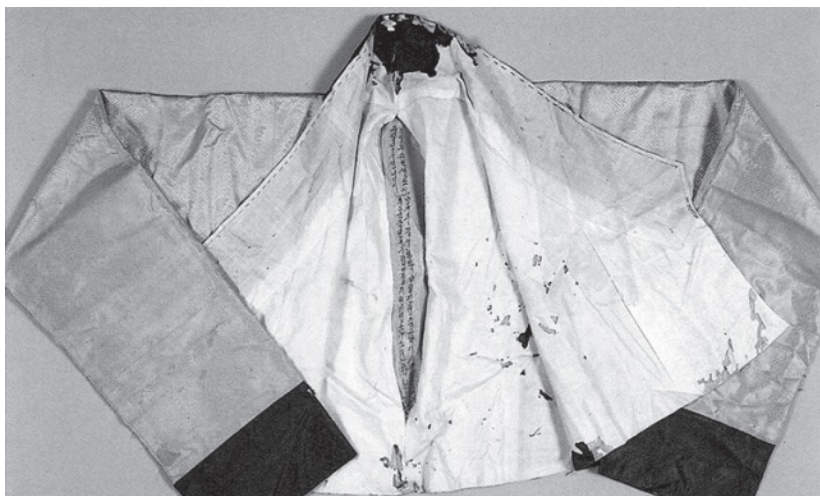
동부 황침의 다리 연화방거 발원문 1



동부 연화방 황교 거한 발원문 2



삼회장 저고리 전면 1



삼회장 저고리 전면 2

발원문의 종류는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 다라니서입회향(陀羅尼書入回向)발원문, 황참의 다리 연화방거 한글 발원문, 자식점지 한글 발원문이며,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은 크기가 177.5cm×39cm이다. 운마산(雲磨山) 보월사(寶月寺)¹⁸에서 건륭(乾隆) 13(1748)년에 조성한 것을 이안(移安)¹⁹했다고 한다.

18 지금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에 소재한 사찰명이다.

19 다른 곳으로 옮겨감.

만자소화무늬의 노란색 삼회장저고리²⁰도 영조(英祖) 14년(1738)에 만든 저고리다. 상태가 매우 아름답고 색상도 선명하고 바느질 상태도 고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남는 것은 첫째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이 영조(英祖) 2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자장의 유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 복장 유물들은 강원도 평강현(平康縣)²¹ 운마산(雲磨山) 보월사(寶月寺)에서 건륭(乾隆) 13년(1748)년에 조성한 것을 이안(移安)했다고 하는 점이다.

이안(利安)한 것이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한 것인지, 아니면 부 복장 유물만 보월사에서 옮겨와서 기존 백담사에 있던 목조아미타불 좌상을 개봉(開腹)한 후 넣고 다시 개금불사(改金佛事)를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어찌 되었든 환성(喚醒) 지안(志安)²² 대선사의 제자인 호암당(虎岩堂) 체정(體淨)²³, 화월당(華月堂) 성눌(聖訥)²⁴, 만화당(萬化堂) 원오(圓悟) 등이 조성하였다고 한²⁵ 것으로 보아 부 복장유물은 보월사에서 옮겨온 것만을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발원문 4매 중에는 ‘황참의 다리 연화방거 발원문’과 ‘자식점지 한글발원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와 삼회장저고리는 모두 동일 인물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전으로 전해오기를 화순옹주의 발원문이라고 한다.

20 삼회장(三回裝)저고리: 조선시대에 시작된 저고리 형식으로서 노랑이나 연두 바탕에 자줏빛 천으로 깃·끝·동·고름을 달고, 저고리 겨드랑이에 자줏빛 결마기를 댈다. 또는 남쪽동에 자줏깃·자주고름·자주결마기를 다는 경우도 있다. 결마기가 없는 것을 반회장저고리라 한다.

21 현재는 북강원도로 북쪽에 있으며, 평강군(平康郡)으로 불린다.

22 지안(志安): 강원도 춘천 출신의 대선사이다. 성은 정씨(鄭氏)이고 자는 삼략(三諤)이며, 환성(喚醒)은 호다.

23 체정(體淨): 조선 후기의 스님. 성은 김씨(金氏)이고, 전북 고창 출신이며, 환성 지안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24 성눌(聖訥): 조선 후기의 스님. 성은 전주 이씨(李氏)고, 평강 출신이다. 환성 지안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25 『인제군지』 하권, 2017년 5월 발행, 349쪽~350쪽

발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은 무술(戊戌:1718)년 묘시(卯時)생이고, 부인은 경자(庚子:1720)년 임시(壬時)생이며, 사는 곳은 동부(東部) 황참의(黃參議)다리 연화방(蓮花坊)이라는 곳이다. 황참의 다리는 황교(黃橋) 또는 황참교(黃參橋), 황참의교(黃參議橋) 등으로 불리는데, 참의(參議)를 지낸 황(黃)모 씨가 사재(私財)를 들여서 놓은 다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연화방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연지동(蓮池洞)의 옛 지명이다. 이를 참조하여 조사한 결과 접근하는 인물 두 부부를 찾을 수 있었다.

夫婦名	居所 地域	生沒 年代	王室 關聯
洪樂性 靑松沈氏	漢城	戊戌(1718)~戊午(1798) 丁酉(1717)~戊申(1788)	혜경궁(惠慶宮) 홍씨의 족질(族姪) 경종(景宗)의 장인 유구(有龜)의 족질
金漢蘊 和順翁主	東部蓮花坊	庚子(1720)~戊寅(1758) 庚子(1720)~戊寅(1758)	영조(英祖)의 사위 월성위(月城尉) 영조(英祖)의 딸(2녀)

위 표를 보면, 홍낙성(洪樂性) 부부의 경우는 부인 청송심씨가 정유(丁酉:1717) 생으로 발원문에 기록된 경자(庚子)생과 맞지 않고, 또 이 부부에 계는 이미 자녀가 있었다.

반면, 김한신(金漢蘊) 부부는 무술(戊戌:1718) 생이어야 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愼)이 경자(庚子:1720) 생으로 표기되어 있어, 어느 부부가 발원문의 주인공이라 꼭 집어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이 또한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 고찰해 볼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 보면,

- ① 화순옹주의 발원문이라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고,
- ② 당시 거처하던 곳이 동부(東部) 연지동(蓮池洞)이라는 점과,
- ③ 생전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한정(金漢禎)의 아들 이주(頤柱)를 양자로 들인 점.

- ④ 유척기(俞拓基)가 지은 묘표(墓表)에 출생연도는 밝히지 않고, ‘공께서 무인(戊寅:1758)년 1월 4일에 병으로 죽었는데²⁶ 향년 39세’라고만 기록한 점.
- ⑤ 화순옹주의 발원문으로 전해오는 발원문에 무술(戊戌:1718). 경자(庚子:1720) 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화순옹주의 발원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더 강하다.

화순옹주 부부는 1747년 7월에 도성을 떠났으므로, 발원문의 주인이 맞다면 ‘자식점지 발원문’ 작성은 그 이전일 것으로 사료 된다.

발원문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璽)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김한신(金漢璽)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오위도총부총관, 제용감제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720년 숙종 46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유보(幼輔)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김홍경(金興慶)이며, 어머니는 황하영(黃夏英)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 사항은 1732년에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和順翁主)에게 장가들어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고, 벼슬은 오위도총부도총관·제용감제조를 지냈다²⁷.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으며 재주가 총명하였다. 특히, 글씨를 잘 썼으며, 그중에서도 팔분체(八分體)에 뛰어나, 애책문(哀冊文)·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썼고, 전각(篆刻)에도 뛰어나 인보(印寶)를 전각하였다.²⁸

26 김한신의 죽은 원인은 사도세자(思悼世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도세자가 화김에 내던진 벼루에 맞아 죽었다고도 전해진다.

27 영조실록(英祖實錄)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영조실록 91권에 영조 34년 1월 4일 신묘 3번째 기사로 월성위 김한신의 졸기(卒記)가 남아있다.

먼저 원문(原文)을 살펴보자면,

○月城尉 金漢薰卒。朝廷奉慰庭候。教曰：“月城尉 金漢薰，以最初都尉，恬雅謹飭，心常嘉之，豈意一蜚，醫藥罔效？遽聞此報，愴悼曷喻？凡諸等事，一依海昌尉例舉行，長生殿退件柩材擇送，限三年仍給月廩，議諡，過成服後，卽爲舉行。”

【史臣曰：漢薰以故相興慶之子，賓甥天家，生長富貴，而不喜芬華，被服如寒士，出入不乘輅車，常騎款段，屏徒而行，街路之人，或不知爲都尉。性孝友恭謹，絕無驕貴意，嚴戢僕隸，無得橫恣閭里。上自搢紳下至輿僮，莫不稱其美，至是病卒。上嗟悼不已，卮贈皆用優典。知與不知，皆曰賢都尉亡矣。諡曰貞孝】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번역하면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이 졸(卒)하였다. 조정에서 받들어 위로하고, 정후(庭候)하였다. 하교하기를,

“월성위 김한신(金漢薰)은 최초의 도위(都尉)²⁹로 염아(恬雅)하고 근칙(謹飭)하여 마음으로 항상 이를 아름답게 여겼는데, 어찌 한 병으로 의약의 효험이 없을 것을 뜻하였겠는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 슬픔을 어찌 비유하겠는가? 무릇 여러 가지 일은 일체 해창위(海昌尉)의 예(例)에 의하여 거행하고, 장생전(長生殿) 퇴건(退件)의 구재(柩材)를 골라서 보내며, 3년을 기한하여 월름(月廩)을 그대로 주고, 시호(諡號) 의정(議定)은 성복(成服)을 지난 뒤에 곧 거행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한신은 고(故) 상신 김흥경(金興慶)의 아들로써 천가(天家)에 빈생(賓甥)이 되었는데, 부귀로 성장하였으나 분화(芬華)

29 도위(都尉): 부마, 즉 왕의 사위.

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의복이 한사(寒士)와 같았으며, 출입에 초거(輶車)를 타지 아니하고 항상 말을 타며 많은 무리를 물리치고 홀로 다니니, 가로(街路)의 사람들이 간혹 도위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품이 효우(孝友)하고 공근(恭謹)하여 교만하고 귀한 뜻이 절대로 없으며, 노예를 엄하게 단속하여 여리(閭里)에 횡포하고 방자함이 없도록 하였다. 위로는 진신(搢紳)으로부터 아래로는 여대(輿僮)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아름다움을 일컬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였다. 임금이 슬퍼함을 그치지 아니하고, 비봉(庇贈)을 모두 우대하는 법으로 썼다. 아는 이나 모르는 이가 모두 말하기를, ‘어진 도위가 죽었다.’고 하였다.” 시호를 정효(貞孝)라 하였다.

영조실록에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이 처남인 사도세자와 다 투던 중, 사도세자가 던진 벼루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나 전하는 바³⁰에 의하면 이는 사실인 듯하다. 정사(正史) 기록으로 남겨

3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전해지고 있는 화순옹주와 월성위 김한신 묘, 그리고 왕자지(王子池)에 얽힌 이야기.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영조 때 영의정인 김홍경(金興慶)[1677~1750]의 아들 김한신이 화순옹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봉해졌다. 화순옹주는 원래 꼽추였다고 한다. 영조는 장애를 가진 옹주를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정성을 쏟았으며, 옹주에게 누구보다도 잘난 사내를 짝지어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김한신이었다. 김한신은 영의정의 아들이자 총명하고 현철한 인물이었다. 화순옹주는 수(繡)에 능하여 아버지인 영조의 곤룡포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화순옹주가 곤룡포를 만들고 나서 품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인 월성위로 하여금 입어 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처남인 사도세자가 지나다 곤룡포를 입은 월성위를 보고는 대노하였다. 임금이 입은 곤룡포를 월성위가 입었으니 대역무도한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화가 난 사도세자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 끌어앉은 월성위를 그대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월성위는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억울함과 세자에 대한 원망으로 14일을 굶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조는 사랑하는 옹주와 부마를 함께 잃은 슬픔에 정성을 다해 장사지내도록 명령하였다. 삼정승으로 하여금 장례를 책임지고 치르게 하였고, 자리는 월성위가 애정을 쏟아부었던 용산(龍山) 영무봉 아래로 정하였다. 이른바 3대 판서가 난다는 자리였다. 하지만 땅을 파고 보니 물이 팔팔 솟아올라 묘지로 마땅치 않았다. 화순옹주의 묘가 들어갈 자리를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잡은 것을 알고 영조는 대노하였다. 반면 집안사람들은 3대 판서의 자리이니 꼭 그 자리에 묘를 써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당황한 삼정승은 고심한 끝에 사람들에게 묘지 정면으로 약 200제약(60m) 떨어진 아래쪽을 파라고 지시하였다. 묘지 아래쪽을 파니 묘지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모인 쪽에는 연못을 조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영조의 화는 가라앉았고 월성위와 화순옹주의 묘는 무사히 조성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연못은 왕자지라 하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생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기에는 왕실의 부끄러운 부분이라 그리하였던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

금번 연구에서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의 생몰년도에 치중하는 까닭은, 앞의 표에서와 같이 기록상의 출생년도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과 화순옹주는 동갑이 아니라 두 살 차이가 나야 정확하기에, 경주김씨 족보를 구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구(舊) 족보를 구하기가 불가하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찾아보고자 한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 1786~1856)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의 증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조부가 되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과 화순옹주 사이에 일찍이 자손이 없어 발원문까지 부장(副葬)하며 간절히 후손을 바랐으나 끝내 양자를 들였고 이후 훌륭한 서예가 후손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서(前書) 발원문 속의 인물들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경주김씨 족보 및 대동보를 모두 확보하여,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의 생몰년도로 기록된 1720년을 1718년으로 바로잡거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목조아미타불좌상 부 복장유물’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자료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홈페이지

인제군청 홈페이지

인제문화원 홈페이지

2. 저서 및 논문

문명대, 「백담사목아미타불좌상」, 『강좌 미술사』 제5, 한국미술사연구소, 1993, 83~88쪽.

박원규 외, 「목조불상 수종의 변천: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연륜연대와 미술사 학술대회, 충북대학교 목재연륜 소재은행·명지대 미술사학과, 2009, 15~16쪽.

이희정, 「과학적 조사방법으로 살펴본 조선후기 목조불상의 제작기법과 특징」, 2011.

박 주, 「한국사상(韓國思想) 사학(史學): 영조의 딸 열녀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64권.

최병헌, 『설악산 百潭寺』,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3.

김인경, 「18~19세기 月城尉 金漢薰 가문의 기반 확보와 정치적 동향」, 선문대학교 역사영 상콘텐츠학부, 조선시대사학회, 2021.



제 3 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고은조 _ sing for gold를 향해 / 가을잔영
- 박돈녀 _ 달맞이꽃 / 결혼기념일 / 덩 / 만추 / 훈장
- 박은덕 _ 한낮의 파티
- 원영애 _ 매미 허물 / 그 때를 아시나요
- 정순덕 _ 망구 / 올챙이국수
- 한용운 _ 內麟川 - 함장굴 - / 운두령 - 풀꽃의 성산 -
- 권순덕 _ 비밀 통로
- 김규중 _ 등산로 의자
- 김미애 _ 자작나무 숲의 비밀
- 김영관 _ 겨울과 봄 / 겨울 산 / 구절초
- 문부자 _ 가로등 불빛 아래 흰 의자
- 박돈구 _ 무명의 용사들에게
- 박청미 _ 봄꽃처럼
- 장순엽 _ 알람시계
- 전영숙 _ 밤
- 정순덕 _ 아무진 꿈
- 정옥자 _ 부양
- 최은희 _ 꽃놀이
- 최인홍 _ 시간의 안쪽
- 한우림 _ 새싹만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 허계홍 _ 기다림

산문

- 박돈녀 _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 흑백사진
- 박은덕 _ 환장할 나이환갑
- 정순덕 _ 내가 사는 법 / 등밀어드릴게요 /
주지스님과 종두의 절 이야기
- 허순애 _ 뇌세포는 춤추고
- 김영관 _ 삶의 흔적과 휴머니즘 추구의 미학

sing for gold를 향해

고은조

꼬블꼬블 외길 올라서니
가늠할 수 없을 만치 드넓은
산등성이 골짜기 감자밭
하얀 꽃은 시들어가고
따가운 햇살만 가득

많은 날 수고로움은
불빛 화려한 무대 마주하니
목소리 입안에만 맴돌고
후들대는 기억 저편의 몸짓은
진정키 어려운 두근거림이 되고

아무렴 어때

열정으로 타오른 하모니로
심사위원 눈물 방울방울
단물발린 칭찬에
우리들
환호성에 박수소리 우렁차고
서로 어깨 다독이며
즐겁고 행복함 가득차고

훗날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행 되겠다.

가을잔영



고은조

화창한 봄날에
가슴에 안고 온
남천 두 그루
화분에 심어
대문 앞 단장하고

푸름을 머금은 남천 앞
어느결에
가을이
뚝
떨어졌다

갈바람에 물들어져
고목마냥 고개 떨군
생의 회한이 깊구나

창가에 두고 사랑 주며
새봄이 오면
너의 푸름
햇살과 함께 맞으리

* 군립도서관 사서직 (전)
보호회관 (6.25참전유공자회) (현)
어머니 독서회 회원 (현)
인재문인협회 회원 (현)
인제 합창단 단원 (현)

달맞이꽃

金園 박돈녀

이슬 젖은 흘적삼
사립문기대여
기다림에 애태운 어머니 일상들
바래진 귀밑머리 삶의 조각들

이젠 가버린 애뜻한 그리움
온종일 빼꾸기 우는 날엔
어머니 더 보고 싶소

달빛 내려앉은 들판에
무리지어 핀 저 꽃은
어머니의 묵언 인가요.

결혼기념일

金園 박돈너

기념일이라 외식을 한다
청자 빛 고운 잔에 백세주 한잔씩
술잔 부딪는 오랜만의 해후

묵은 지처럼 묵혀둔 기억들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타작마당에서도 허기 들던 시절

참으로 미남이었던 당신
머리엔 서리 내려앉고
꿀 폐인 입가의 주름이
마주한 내 가슴에 바윗덩이 하나 없었다

새끼들 제 갈길 떠나고
둥지엔 허허롭게 바람만 분다
당신은 내게 큰 산 이었고
나는 조출한 개울물 이었을 뿐

이름표 달린 대문 앞에서
허허한 맘 달래려 꼭 잡은 손
춘삼월 열사흘 달이 시리게 떠있다.

덤

金園 박돈녀

오래 때 묻히며
함께 지내온 것들 오늘 보냈다
티브이 · 세탁기 · 정수기 · 찰순이
저들과의 만남은 행복했었다.

아이들 길러주던 세탁기
햇병에 속 타던 어머니 속 가라앉혀 주던 정수기
티브이 때문에 공부 안 된다며
지르는 내소리가 담장을 넘는다고

더 큰 소리 내던 남편
가난한 셋방살이 싸고 푼 이삿짐
아끼고 아끼던 녀석들 오늘 보낸다
매연만 길게 남기고 짐차는 떠났다

티브이는 덤이라며 쥐어주고 간
구겨진 천 원짜리 몇 장
오래 드러다 본다.

만추

金園 박돈너

오일장 끝난 장마당
체일을 걷는 장사꾼들
술한 흥정의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하루가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막걸리 한 사발 생각이 절로 나는 시간

돼지국밥 아줌마 때 절은 행주치마
“여기들 모이랑께요”
아줌마의 걸쭉한 인심에 반배가 찼다

짐차는 낙엽 같은 피곤을 싣고
한잎 두잎 집으로 돌아간다.

훈장

金園 박돈녀

어머니한테선 늘 쑥뜸 냄새가 난다

툑툑 불거진 손을 들고 병원을 가셨다
깜깜한 의사의 선고를 받고 돌아오신 뒤
묵묵히 땀을 뜨신다

세상 머문 동안 중독처럼 살아낸 삶
훈장으로 받은 건 헐거워진 삭신
남루한 세월의 언덕을 넘는다

쭈뼌은 뺨들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도 어머니는 땀을 뜨신다.

한낮의 파티

박은덕

혼술을 한다. 오후 두시에
안치환의 ‘위하어’를 들으며
아들이 담귀온 백령도산 하수오주를 마신다.

어젯밤 강아지 삼 형제들의 서열 다툼으로
베란다로 쫓아내 강아지들도 나도 한숨을 못 잤다.
“니들이 잘못했다.” 위로 삼고
자유 찾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지껄여 본다.
“말귀 알아들으면 사람이지 개냐?”

하수오주 다섯잔이 마음을 녹여주고
잠시 쉬라는 눈치를 준다.
식탁아래 쭈그려 눈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낮의 환장한 파티를 끝내자.

낮술은 늘 적당히...

매미 허물

杜宇 원영애

어느 먼 생 건너온 몸짓인가
그 무엇 담았던 속인가
다 끄집어 내동댕이친
또 어느 한 생 향한 해탈인가

한 낮 울어대는 소리는
다음 생 부르는
꿈이었나

다 비운
너를 바라보고
나를 보며
버리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한 나는
한 낮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도 못한
언제까지 모진 비바람에 휘둘리다
갈것인가.

그 때를 아시나요

杜宇 원영애

우크라이나를 불태우는 검붉은 연기
6.25 때 홍천 다리에 떨어지던 B.29의 굉음

하늘에서 은빛 선율이 반짝이면
수수깡 씌에 숨어야 했던 그때를
가슴 조이며 무서움에 떨며

어린 동생과
어디론가 뛰어가 숨어야 했던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나 입을
우리는 사랑에 두 손을 잡아야 해요.²

* 강원 홍천 출생
《한울문학》 신인상 등단
시집 《그리움이 되어 도져 오소서》 외 9권
공저 《인제, 다독이는 하늘빛 온기》 외 다수

망구

華曇 정순덕

옛 보건소장님 왈
운동 할 때 입었던 유니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망구’에 입을 일이 없어, 학교에도 주고,
군부대 주었다.는 말 끝에
만구? 망고? 망구?는 무슨 뜻 일까?
어르신들이 쓰시 던 말인데
전체의 뜻은 미루어 짐작 해도
당채, 아무도 낱말의 뜻을 모른다
사전을 찾아보니
망구: 아흔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여든한 살을 이르는 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망구를 넘본다고 합니다.)
원어 ;; 망구순;; 여든한 살.
아하!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다
새통스럽게 입말들 들추어 내다가
이참에
망구에 쓸 일도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 치워 버리자고
다짐해 본다

올챙이 국수

華曇 정순덕

아니 올챙이 국수? 이름도 그렇구 뭘 맛으로 먹어유?
썩히지도 않고 홀렁 넘어가는게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두만.
오일장애나 맛 볼 수 있는,
그나마 너무 늦으면 구경도 못하는 올챙이국수.
흐물흐물 헛바닥 위에 놓고 요리조리 잇몸으로
으깨듯이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난데,
장날 할머니표 양념을 한듯 안 한듯 열무김치랑,
습습하게 양념한 조선간장에 비벼 한 컵 아주 천천히
오물거리면 그 먼 옛날 옥수수 한알 한알
식구들 둘러앉아 수다하며 따던 모습,
멧돌에 둘러앉아 교대로 타개고
바가지에 구멍 뚫어 내리던 모습 그려지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게 시원하고 고소한데.
다음 장날이 기다려지는 이 맛을 아무나 느끼나. 아무렴

內麟川 -함장굴-

한용운

어스름이면 샅쟁이, 여우, 늑대 우짖는
그 켤음 하도 무섭고 시끄럽다고
깊은 함정을 파놓은 꼴짜기

지금은 그 누구의 잡꼬대 같은
먼 세월의 낡은 속설의 꼬리 붙잡은
악몽의 꿈 이야기는 아닐까

젓빛 하늘 희미한 초승달 기울려도
깊은 산속 짐승만 소란스럽게 울었던
그 한밤 내내

어둠 헤집고 곧게
그 곳 그 자리로 흘러내리던
상념의 강물은 그 무슨 말을 했을까

잃어버린 기억은 영원처럼 물결로 흘러가고
영겁의 세월 그 너머로
별빛만 홀로 고요히 잠들어 간다

* 내린천 : 우리나라 백두대간 중심인 흥천 내면에서 발원하여 유일하게 북쪽으로 전국 청정 제일 지역인 인제 내륙 70Km를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강, 전국 백경 중의 하나이며, 래프팅 코스의 최고 지역이기도 하다.

운두령 - 풀꽃의 성산 -

한용운

오늘도
푸른 깃발처럼 펴럭이는
풀꽃들의 아름다운 꿈의 동산

날마다 침묵으로 지켜온 꿈들이
봄물 같은 계절의 향기되어
푸른 하늘의 뇌화(雷火)처럼 퍼지는 날

안개자락으로 깊이 드리운
계곡의 산굽이 마다 하늘 오름길로
종종 걸어 나오는 아지랑이들

붉은 해를 가만히 끌어안은
뜨거운 입김이 가득 퍼질 때면
산맥 줄기의 긴 그림자 드리우지만

어제도 또 어제처럼
깊은 잠속에 또 잠드는
작은 풀꽃 숨고르는 소리를 듣노라

* 운두령 : 강원도의 영(嶺)으로 차령산맥의 첫 고개, 1,089m, 1번 국도 총연장 35,771Km 가운데 국내 제일 높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위치로는 평창군 용평면임.

비밀 통로

권순덕

고향집 뒤란에 개나리 울타리
누가 뚫어 놓았을까
조그만 구멍
어른들 몰래 밤마실 다니던

왜 그냥 두었을까
살면서 마음 부러 놓을
도피처 하나쯤 필요하단 걸
알고 계셨던게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해방구

* 계간 『창작 21』 시부문 신인상 등단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외
〈전국박인환시낭송대회〉 최우수상 수상
시집 『그리움은 언제나 문득 온다』
현재 내설악시낭송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사무국장

한 이불을 덮고 잠든 아내가
꿈길을 걸어
간밤에도 밤을 새우고 돌아왔음을
이 사람은 알까 모를까

가꿈은
나만 아는
비밀 통로 만들어 놓고
마음이 가출했던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등산로 의자

김규중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
등산로에 놓인 의자
어찌다 찾는 이도
반가워할 틈도 주지 않고 떠나지만
낮에는 햇빛 가려주는 그늘이 있고
밤에는 달빛 별빛 친구가 있어
이 산속에서도 견딜 만하다
시원한 소나기로 목욕도 하고
포근한 눈 덮고 깊은 잠도 즐긴다
때론 다람쥐가 놀아주고
낙엽도 앉아서 애기하곤 한다
한 줌 바람이 이산 저산 다니며
외로운 의자가 안쓰럽다 말하지만
처음부터 혼자였던 나는
당신의 공원에 의자이기에 편하다¹

* 월간 《한맥문학》 시 등단

한국문인협회, 한맥문학동인회, 강원공무원문학회, 내린문학회 회원

시집 《그 속에서》

공저 《인제, 다독이는 하늘빛 온기》 외 다수

자작나무숲의 비밀

김미애

껍질은 팽팽함을 견뎌주지 않는다
감시원은 땀을 씻고 올라온 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잠들지 못한 숲은 밑동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터진 껍질이 새 붕대를 둘렀다

멀미하던 앞사귀도 낮잠에 파묻힌 오후

나는 보고야 말았다
바람이 입술 더듬는 것을
잠에 취한 고단함을 위로하는 것을

언덕아래 구르던 그림자 지우고
뜯어진 입술에 입술 대는 것을

싸늘히 돌아서는 절벽의 6월

질푸른 한 낮이 겹을 삼키면서
자작나무 숨소리 선명하게 듣는다
물가에서 초록을 끼었던 그의 맨 몸을 보았다

* 《시와 산문》 신인상 등단
문화예술진흥유공 문화예술인상 수상 (2012년)
생활개선인제군연합회 회장 역임
공저 《인제, 다독이는 하늘빛 온기》 외 다수
현재 내린문학회 회원

그의 고단함이 잠시 머무르며 목축임을 보았다
발을 담그고 부푼 것이 작아짐을 보았다
검푸르던 다리가 떨리지 않음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고요해지는 것을 보았다

가끔~

땅의 울림이 뿌리를 흔들긴 했어도
그 정도 호통에 무너질 그가 아니라는 것을
땅 속 깊이 박힌 근육질의 발가락들이
별거 아니라고 버티는 것을 보았다

너의 살갗은 백치라 할지라도 숲을 밝혔으며
너의 팔등신은 듚적하지 않더라도 별에게
닿고 싶어 무량히 높아짐을 보았다

지나간 것을 다시 찾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더러움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다

물가에서 초록을 끼었던 그의 맨몸을 떠올린다

껍질은 팽팽함을 견뎌주지 않는다
터져라~ 터져라~

살갗에서 피가 흘러 꽃을 피우더라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릿하게 아프더라도

터져야 높아진다 터져야 꽃이 핀다

껍질의 순교로 다시 돌는 사랑니여
 큰다는 것은 숲의 변신
 나무 옆에 기대어 발 뺀 숨소리
 산이 자작을 풀어 숲 만드는 소리
 한시름 터지는 비듬의 신음
 숲을 지키는 거대한 비듬이여
 벗어 논 허물을 덮는 무덤이 되어라
 시름하는 산객의 정수리 쓰다듬어 벗게 하라
 다쳐 쫓겨 온 다리를 폭신한 비듬의 언덕에서
 붓기가 빠지게 하라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서
 그의 벗은 맨몸과 쓰다듬는 손길과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돌아가는 발걸음에
 자일리톨 향을 품게 하라
 피톤치드 진하게 스미게 하라

잊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러움의 의미는 잊고 갈 것이다

인제의 숲이여, 지친 것들의 쉼터여,
 내린천의 모성이여, 펄떡이는 치유의 숲이여

껍질은 팽팽함을 견뎌주지 않았다

그리고 터져 버린 등치에 봉대를 감아 주었다.

겨울과 봄

백송 김영관

겨울은 가기 싫어
삼월에도
눈보라 불러오고

봄은 오고 싶어
십이월에도
개나리꽃 데려온다.

* 문학평론가, 교육평론가, 시인.

2002년 《아동문학평론》 문학평론가 등단, 2004년 《교육평론》 교육평론가 등단,

1999년 《문학공간》 동시, 2006년 《공무원 문학》 신인문학상 시부문 등단.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철학박사. 한국아동문학협회, 강원문인협회, 인제문인협회 회원,
현재 인제초등학교 교감 재직 중.

겨울 산

백송 김영관

허연 맨살이 들어난
겨울 기룡산

하느님은
이제야 보셨나 봐

추우니 이불 덮으라고
포근한 함박눈
펼펼 내려 주시나봐.

구절초

백송 김영관

기룡산 구절초
친구랑
옹기종기 피어나고

산 모퉁이
홀로 선 구절초
친구 없이도
온힘 다해 피어나고

진한 꽃향기로
서로 서로
안부 전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헌 의자

문부자

내 몸은 용도 불능의 의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빠그덕 거린다
 볼트가 풀린 다리 30축짜리 눈동자
 허공에 몸을 맡긴 채 꿈을 비워가고 있다

지구의 한 모퉁이 무게를 덜기 위해
 마음을 멀리 떠나 보내고
 헐어진 몸 잡고 선 낡은 의자

그대 내게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지 못한 내 아픔 잊기 위해
 나는 이제 너를 유기한다

눈물 그렁한 두 눈
 너와 내가 갈 길이 다르듯
 쉴 곳이 거기 있다는 듯
 가로등 눈물 아래 밤비를 맞으며
 젖은 노래 흥얼거리고 있다

내가 나인 듯 편하게
 잘 가시게

* 계간 『시현실』 수필가 등단

대통령 표창, 환경부장관상, 강원도지사상 수상, 인제군민대상 (문화예술부문),

동서커피문학상 수상

시집 『비득고개 눈꽃』, 『고요가 발톱 세운 아침』

현재 내린천예술인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감사

무명의 용사들에게

원희 박돈구

기계소리가 요란하다
컨베이어벨트 위로 쏟아져 몰려온다.
참기 힘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먼지가 휘날리는, 연신 물을 뿌리는 야적장
갑자기 나타나 달아나는 고양이 한 마리
그의 얼굴엔 아무 동요가 없다.
곳곳에 만들어 진 겹겹이 쌓인 산
오로지 사람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
반장의 잔소리로 시작되는 분주함에
육체적 피로는 사치일 뿐
날카로움에 찢리고 베이는 것이 일상이다
아니 불안함은 일자리다
황금연휴에도 모두는 일을 했다
그럼에도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다.

* 인제출생.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원

다녀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피하는 직장
더욱이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에
중국으로 가야할 수출길이 막혔고
한정된 인력으로 숨아내니 쌓여만 가는 산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도 고단함은 더욱 혹독해지고
이 끝없는 전선에 물러날 수 없는
힘없는 노병과 돈 찾아온 용병만이 방어 할 뿐
인력 사무실도 손사래를 친다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담보하는 전쟁터
무명의 이름으로 아무도 기억할리 없는
이 현장의 공범이자 범죄자로 부끄럽고
그들의 희생을 글로써 적습니다.
아니 가슴에 묻고 새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봄꽃처럼

박청미

신 앞에 선
순간만이라도
겸손하다면
평화를 볼 것이다

지고 피는 하루
잡다한 가벼움을
참회한다.

내가 아는 나
한달음 존재
그와의 독대가
슬프다

* 숙명여대 미술대학 졸업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입상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원

내 안에는
화르르
무너질 줄도 모르는

알 수없는 무엇이
옹그리고 있다

저 봄 꽃망울처럼
이쁘면 좋겠다.

알람시계

知音 장순엽

아침 여섯 시
어김없이 나를 깨우는 소리
일어나기 싫어
못 들은 척
등 돌리고 잠자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알람시계 고양이들
네 마리가 나란히 앉아
떼창을 해요

* 《문학공간》 2021년 신인문학상 동시부문 등단
인제문인협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
인제백송아동문학학교 (한국아동문학전공) 수강 중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쓰다듬고 돌아누우면
숨방망이 작은 발로
꼭꼭 밟아 깨워요

밥그릇에
참치캔 부어 줘야
비로소 조용해지는
알람 시계
알람 고양이들

밤

전영숙

가을이 익어가는 길가에, 숲에
다람쥐들이 분주하다

욕심 많아 입안 가득 물고 간 먹이
떨어뜨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나무를 탄다

보물창고가 어디인지
나뭇가지 사이로 요리조리 잘도 간다

나도 욕심을 내어 밤나무 밑을 서성이며
가시밭 속 알맹이들을 꺼내어 주어 담는다

험한 나뭇가지 사이에 끼여있는 밤과 도토리
보일 듯 말 듯 낙엽 속에 묻혀있는 밤들

속속들이 꼬집어 내어 한가득 담고 보니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풍요로움 만큼이나 서늘하다

* 2014년 《문학세대》(시), 2014년 《모던포엠》(수필) 등단.
저서 《쪽빛하늘 품에 안기면》
강원문학작가상, 강원문학교육작가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 강원문학교육연구회,
강원수필 문학회, 춘천낭송가협회, 한국전각협회 회원

야무진 꿈

華曇 정순덕

노오란 단풍
빨강 단풍
그 옆에 푸른 솔이 있어서
더 예쁘더라

파란 하늘과 흰구름
반짝이는 햇살
소소바람이 있어서
더 아름답더라

산새들 목 축이는
옥빛 계곡수
가을 산 몸 담그고 있어서
더 평화롭더라

푸른 솔 은행나무
물소리 바람소리 그 옆에
작은 단풍나무이고 싶어라

* 월간 『순수문학』 시 부문 신인상 등단
시집 『갈대, 그 흔들림의 미학』, 『냉이꽃 웅단에 앉아』
세계모던포엠작가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상임교문

부양 -산중일기17-

정옥자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듯
까치가족의 등지를 업고 나무는 서 있네

어미새가 새끼를 키우는 동안 나무는
새들을 보살피듯
풍성한 잎들로 등지로 향하는 바람을 막아주었을 것인데

새들이 날아와 주지 않는 나무는 얼마나 고독할 것인지
아이를 업어보지 않은 등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지

영경귀가 몸으로 나팔꽃 덩굴을 받아내며 같이 피고
꽃들이 꿀벌들을 모시며 미래를 기약하듯이

* 1997년 《작가세계》 등단
시집 《연못의 뒷문》,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원

배추잎이 꿈꾸는 흰나비 애벌레에게 몸을 내어주고
웬수들이야 웬수 하면서도 식구들에게 여자들이 밥을 해 먹이듯이

떠났던 새들 돌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티격태격 소소함이 다시 시간을 밀고 가듯이

모든 삶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부양하고 있다는
그 부양이 거대한 수레를 굴리며 가는 것일 거라는

꽃놀이

최은희

속 깊이 스며드는 내음에
폐가 열리고
감은 눈이 떠지니
오색빛깔이 아름답다
손끝에서 어루만져
조형작품으로 장식한다

꽃차 한 모금
혀끝에서 춤을 춘다
차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고
차 한 잔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삶이
아름답기를 소망한다

* 인제출생. 세경대학교 졸업.

〈전국여성환경백일장〉〈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대상 외 다수 입상
현재 〈님의 침묵 서예대전〉초대작가
〈강원도여류서예가협회〉인제지부장

시간의 안쪽

최인홍

팔 뻗어 함께 안았던
전나무
혼자 와서 가만히 안아본다

너의 손끝에 닿았던
내 손끝의 간절함은
밤마다 마주한 별빛과 함께
더해지는 나이트의
켜마다 배어들어
잘 삭혀진 향으로 자랐구나

거칠었던 시간의 밖을 쓰다듬으며
눈보라 속에서도
그윽하게 버티고 선
너의 안쪽을 읽는다

* 1992년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공저 《다독이는 하늘빛 온기》 외 다수
현재 <내린문학회> 회원
<한국시집박물관 문예창작교실> 지도강사

새싹만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한우림(명숙)

얼음이 채 녹아내리기 전 간혹
미끄러지는 산등성을 의지하고 단단히
다리의 버팀목으로 서 있어야 한다
마땅한 나무를 골라
이를테면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는 곳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한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넘어지기를
방해받으면 낭패다.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매달려 큰 덩치가 손을 쓸 수가 없다
굵기도 마땅한 것에 들어간다
양손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마주하고
딱 맞게 들어오거나 조금 넘치면 된다
그 마땅한 곳을 골라 산등성이 아래쪽부터
삼 분의 일을 톱질하고 나머지를 위쪽에서 마저 자르면
큰 나무는 찌억 찌억 몇 번인가
짧은 신음소리를 내뱉고 넘어진다
이파리를 다 떨구어 낸 나무는
파르르 가지로 아픔을 토해낸다

* 월간 《모던포엠》 시부문 등단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 사무국장 역임
인제지역자활센터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장 역임
안나노인요양원 원장역임

그 울음을 알아채지 못한 덩치는
가지들이 다 잘려 나가고 알맞게 토막 내기를 하여
하나씩 산 밑으로 굴러질 때까지도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산등성이에 부딪히고
잔들에 부딪히며 그제서야 쿵 쿵 울음을 토해낸다
거센 폭풍우에 잠깐 흔들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잠깐의 혼돈은
윙 윙 소리 내며 몸살을 해집고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물오른 기억들은
툭 툭 매질을 당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숨이 멎을 것 같은 꿈을
나뭇결을 모아 포자로 무장한 것에
숨을 불어 넣는다. 봄이 오는 계절이면

기다림

허계홍

나이의 밥그릇을 들여다보면
허무한 세월만 출렁이고 있다
저녁에는
충혈 된 관절이 출렁이고
눈 뜨고 일어나면
안개 낀 귀울림의 고통이 출렁인다

하루가
또 다른 삶의 사이로 쌓여 무거워지고
눈의 대화로 침묵할수록 다가오는 정
정성 들인 모래탑이 무너질까
가슴을 끌어안고 세상 끝이 출렁인다

* 『한국문인』 시 부문 등단

사단법인 초허 김동명문학상 대상, 강원삼포문학상 수상

월간 『모던포엠』 문학상 은상 수상

대통령 표창 (민주평화 공로상), 강원도지사 표창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부회장

시집 『그리운 얼굴은 눈물로 남는다』, 『바람의 무늬』

피곤한 모습을 바람에 말리고
억겁의 세월은 밀물과 썰물이 된다
영원할 수 없는 생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희망과 슬픔 웃음과 욕심
모두가 부질없는 것
인생은 기다림인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金園 박돈녀

대로를 메우는 아우성 여기서도 저기서도
북 세통이다. 저마다의 출세를 위해 남의 가슴에
총을 마구 쏘아대며 치열한 기싸움 혼전 양상
경선의 후유증에 시달려온 각 당의 후보들은 정책다운 정책은 어디 가
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묵은 공약만 난무해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상당한 부동층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 하
지 못하는 시점에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고.

투표 확인증을 발급하면서 까지 투표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어찌 보
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지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임을 왜 모르겠는가 거기
에는 불만 과 무관심 이유일 수도 있다.

누가 되든 나와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로 국정을 맡길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주권 이것
또한 피 흘려 얻어진 민주화 의 공로로 얻어진 값진 주권일진데 무심히 포
기하고 놀러가기에 급급하여 아니면 불만에 쌓여 욕설과 함께 주권을 밟
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선조들은 투표
를 하고 싶어도 주권이 없어 투표를 못하는 아픈 시대를 보냈는데 우리가
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다 국민의 잔치를 통
해 나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희비의 설렘이 있지 않은가.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줄어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연령층이 낮아 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선거권을 너무 어린18세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여 내 세우는 공약을 믿을수 있는 공약인지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고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속을 시원히 풀어줄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실천하며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선거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이 될 것이다.

흑백사진

金園 박돈녀

이른 새벽안개가 솜처럼 피어오르고 아래동네 굴뚝에선 연기가 어우러져 꼭 신선이 선녀들과 노니는 곳 같다 아미산 중턱 망초꽃이 지천인 그곳엔 어머니가 해마다 누에치든 잠실이 있다. 잠실뒤란 으로 발길을 따라가면 김치항아리 담가두던 실 계곡 웅덩이는 가제가 심심하면 툭툭 항아리를 건드리고 소금쟁이 영성한 갈퀴 발로 서성이며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곳 한여름에도 발이시려 담굴 수 없는 맑기 그지없는 잠실 냉장고.

사래 긴 뽕밭에는 까맣까맣 오디가 익기 시작하면 까막까치 날고 빠꾸기 한나절 울어댈라치면 심란한 우리엄니는 동숙에 노래를 부른다.

누에 한 밥 받아 뽕 먹는 소리는 양철지붕 비 오는 소리 같다.

노래 가사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밤잠 설치며 누에 뽕 줄 때도 엄니는 흥얼흥얼 대며 구슬피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사가 우리엄니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지척에 두고도 마음 떠난 아버지에 대한원망이 있어서인지 늘 슬픈 노래 〈동숙의노래〉를 밤새 부고 또 부르신다.

철없이 나는 누에고치 팔면 남들 다 신는 운동화 사달라고 치맛자락 붙잡고 조르다 엄니의 슬픈 표정에 축축한 응달진 뒀란에 나와 앉아 울었다. 6월 찔레꽃처럼 누에가 열리면 새벽부터 어머니는 부산하다. 가르마 곱게 빗고는 내가 뒹아놓은 흰 고무신 신고 누에 자루 이고 읍내로 누에 팔러 가신다. 저만치 공판장이 보이면 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설렌다. 등수 잘 받아야 할 텐데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자란 누에여서 그런지 모두 일등을 받았다. 누에 판돈은 내 운동화 살돈만 꺼내놓고 어머니 치마 속 고쟁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품속 깊이에 넣고 오던 운동을 꺼내 신어보다 저만치 먼저 간 어머니를 뛰어 쫓아 가곤했다.

나의 가슴 한구석 꺼지지 않은 질 화루 잿불처럼 남아있는 잠실, 젊은 날을 뽕나무와 콩밭에 슬픈 노래를 거름 주어 농사짓던 어머니, 그 자리엔 망초 꽃만 옥어선 묵밭이 되었다. 내 유년의 추억 한 토막을 장식했던 잠실자리를 찾아 가 보았더니 그 많던 뽕나무는 간곳없고 계곡 물도 말라버리고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밤나무 알밤은 모두 벌레가 먹어 나뭇굴고 있다 울컥 눈물이 난다.

잠실에서 내려다보이는 다섯 가구 모여 살던 갯골동네사람들, 가난했지만 감자떡도 별미라고 높은 잠실까지 가져와 건네던 정겹던 이웃들 지금은 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두가 그롭다.

늘 외롭던 어머니는 지금 자리에 누워 병색 짙은 눈을 감고 먼먼 길을 갔다 되돌아오곤 한다. 언제 떠나시려는지 가신 뒤 딸년 슬피 울까 가끔씩 묻어둔 숯덩이 하나씩 꺼내신다.

잠실 길을 내려오다 보니 내 유년의 발자국에 노랗게 꽃다지가 피었다.

환장할 나이환갑

박은덕

60년을 살았고 다시 맞은 해의 생일 환갑을 보냈다.

벌써...

1962년 6월 어느날 51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쉽게 말해서 선둥이다. 어릴 적 환갑잔치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보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모습 들이었는데 지금의 내 나이 동갑들을 보면 삶의 안정을 찾은 시기인지는 모르나 다들 젊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외모도 그렇고 취미나 생활방식도 인생 즐기며 사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세상이 좋아졌음은 분명하다.

서서히 퇴직하는 친구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느라 머리 쓰고 새삼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해외여행이며 가족 여행 등 난리를 치는데 난 아직 꿈도 못꾸는 현실이 아쉽지만 그래도 내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을 먹고 사는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잠시 미뤄도 되지 않나싶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래도 감사한 건 엄마 환갑이라고 아들,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 있기에 행복했다.

맛있는 음식도 용돈도 고마웠다.

그리고 어머니 독서회 회원들의 개개인 선물도 감동스럽게 고마웠다.

60년 힘들고 지치고 즐겁고 신나고 여러가지 것들을 견디고 잘 살아왔듯이 남은 세월은 그냥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직 할 일은 많고 놀러도 많이 다녀야하기 때문에 더 즐겁고 젊게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 해본다.

주부.

그냥 할 일 없는 백수라고 말하지만 주부야말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도 여자라면 모두가 알 것이다. 나는 시아버지와 남편 삼시세끼를 해 드려야 되고 강아지 세 마리 밥 주고 용변 치우는 일 등 은근히 할 일이 많다. 그나마 아직 자녀들이 미혼인지라 손자, 손녀 보는 일은 없지만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게 뻔하기에 잘 먹고 잘 웃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고향 친구, 사회 친구, 학교 친구들의 모임은 자주 못 다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작은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과 여유를 느끼고 좋은 공기와 풍경도 함께 한다는게 감사할 뿐이다.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 하자.

내가 사는 법

華燾 정순덕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 했다면 성취감이 크다.

비록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게 어디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최선을 다 하고 만족할 만큼 성과가 있으면 하늘을 나를듯한 기분이 들고 나 자신이 대견 하다. 때론 성과가 미약하기도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희망을 저축한다. 성과가 크면 클수록 마치 내가 왕관이라도 쓴듯 기쁨이 배가 된다.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 내는 것이다.

가끔은 농탕이도 부릴줄 알아야 한다. 인간이기에 힘이 부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쉴 때는 폭~, 아주 폭 쉬어간다. 재충전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멍~때리기가 아주 좋다. 불멍, 물멍. 방법은 많다. 자기에게 맞는 여건이나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는 따뜻한 목욕탕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넓고 푸른바다를 상상하기도 하고,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서 물을 맞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잠시 새가 되어 하늘을 비행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신나게 춤추는 상상을 하는 시간을 보낸다.

실패도 경험이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실패했다고 상심하고 의기 소침해질 필요는 없다. 겁먹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일이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위로한다.

성공의 여부도 자기자신이 인정하느냐, 타인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남이 인정하는 잣대에 따르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루어냈든 이루지 못 했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

등 밀어 드릴게요

華燾 정순덕

우리나라는 1년에 두 번 대대적인 민속의 날이 있다. 설날과 추석이다. 이 날은 가족 친지들이 모이고 전국은 대이동으로 북적 거린다. 대목장은 오랫동안 북적거리고, 대형마트는 발 디딜 틈이 없다.

우리 집도 분주하기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큰 행사 하나가 더 있다. 식구들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것이다. 남탕 여탕으로 갈라서 어머니는 딸들을 아버지는 아들들의 때를 밀어준다. 우리 아버지는 목욕탕에 절대로 안 가시는 분이라 어머니가 남의 눈총을 받아가며 어린 남동생들 까지 데리고 다니셔야 했다. 그 때는 우리집 만 남자아이들이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에 오는 건 아니었다. 종종 있었다. 여럿을 씻기느라 힘에 부친 어머니의 통박을 들어가며 국수처럼 밀리는 때를 밀어야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남동생들은 어머니의 목욕탕 동반에서 벗어났다.

당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는 가끔 용의 검사라는것을 했다. 손을 앞뒤로 내밀어 선생님께 청결정도를 검사 받는 것이다. 손이 텅지는지 손톱에 때가 켜는지. 부지불시 하는 때도 있고 매주 수요일 마다 검사하는 날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었고 예고할 때도 있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야기 하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데워 씻겨 주시기도 하셨다. 집집마다 세수비누는 있다가 없다가 해서 빨래비누로 머리도 감고 몸도 닦았다. 이태리 타올 대신 반들반들한 돌멩이로 피부가 벗겨지도록 때를 닦아 주시느라 어머니는 얼굴, 몸에서 팔죽같은 땀을 흘리셨다. 또 여름 날에는 달밤에 식구대로 앞강으로 나가 들고 간 수박도 먹고 서로 등도 밀어 주고 더위가 식은 한 밤중에 들어오기도 했다. 큰 명절 때가 오면 우리 오남매를 씻기느라 명절음식을 장만하기도 전에 녹초가 되시던 어머니였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부터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몇 명씩 모여 목욕탕에 가기 시작 했다. 우리동네에는 군사지역이라 술집도 많고 다방도 많았다. 마담이라고 불리우던 아줌마 아가씨들이 많았다. 종종 마담들은 세신을 맡기는데, 어휴! 부끄럽지도 않은지? 제 손은 뭐하고 돈들여 때를 미는지. 목욕탕 입장료도 간신히 얻어 쓰는 우리들 처지에 한편 부럽기도 하고, 괜히 무안하고, 괜히 내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녀들은 이태리 타올이다 거품비누다 샴푸를 쓰고 온 몸에 향기나는 로션을 바르고 난리를 쳤다. 우리들은 그저 수건으로 힘껏 때를 미는 척, 힐금거리며 구석자리에 모여 수군거렸다.

때론 어르신들이 빨래거리를 가져와서 빨래를 해줬다. 속옷 양말이 주였지만 운동화도 빠는 아주머니들도 있었다. ‘선진문화인은’으로 시작하는 안내문이 무색 할 만한 일도 많았다.

나이 들어가며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 내가 아들 뿐이라 목욕탕에 데려가 본적이 없다. 아들은 아빠와 늘 목욕탕에 다니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요즘도 딸과 함께 오는 엄마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한참 씩 바라보곤 한다.

세상은 좋아졌고 나는 나이를 먹었다. 얼굴에 철판이 깔렸는지 목욕탕에서의 수줍던 모습, 웬지 모를 부끄러움이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다. 여러가지 목욕 용품들을 다 갖추고, 때론 샤워만 하고 때론 한증한다. 좋다는 제품들을 돌려가며 쓰고 천연 맛사지용품도 만들어 서로 나누어 쓰기도 한다. 냉탕 온탕 한증막을 들락거리면 몸의 찌푸등한 것들이 풀린다.

집에 샤워시설을 다 갖추었지만 집에서 씻는 것이 불편하다. 샤워 후 목욕탕 청소도 귀찮다. 중독된 것처럼 새벽이면 휘적휘적 목욕탕에 간다.

그 옛날엔 목욕탕에 비치 되어있던 비누가 종종 없어졌나 보다. ‘쓰고 제자리에 놓으세요’라고 쓰여있는 걸로 봐서 세숫비누나 수건들이 종종 없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거의 20여년 쯤 눈만 뜨면 곧장 목욕탕에 간다. 제각각 약속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 대에 오는 이들이 있고 서로 채비가 대단한다. 커피를

가져오는 이, 우유를 사는 이, 과일을 가져오는 이, 모여서 도란도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나눈다. 어린시절 궁핍했던 목욕탕이 아니다. 어쩌면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목욕탕 안에서 가볍게 체조를 헛돌헛돌! 운동이랍시고 하고 하루를 연다. 물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별거벗고 새벽 댓바람 부터 인사한다. 좋은 하루되세요. ^^ 몸도 씻고 마음도 씻는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부탁하지 않으셔도 자진해서 등을 밀어 드린다.

어릴 적 나를 예쁘게 봐 주시고 때론 걱정해 주시던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조그만 성의 표시이다. 이따금 혼자 온 여인들의 등을 닦아 주기도 한다. 내성적이거나 자존감이 강해서 옆 사람에게 등 한 번 같이 밀까요? 라는 말을 못 하고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타까운 마음에 등 좀 밀어 드릴게요 한다. 사실 나는 매일 가는 사람이라 등을 밀지 않아도 된다. 혼자서도 잘 씻을 수 있어 내 등은 사양한다.

상쾌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루를 여는 열쇠 처럼 매일 샤워를 한다. 또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를 살아내자. 힘이 생긴다.

주지스님과 종두의 절 이야기 - 최동훈 - 공간 - 종두 못치는 종두이야기

華燾 정순덕

이 책은 철학을 전공한 최동훈 작가가 1년 동안 건봉사에서 지낸 이야기를 재미있게 쓴 책이다. 불교 입문서라고 해도 좋겠다.

출판 기념식에 참석했더니 다들 최박사라고 그를 부른다. 절에서는 철박사라 주지 스님과 절 식구들이 불렀단다. ‘DMZ 평화 책읽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셔서 인연이 되었다. 인제 양구 고성에서 작가들과 일반인들이 서점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중이다. 지역 작가들을 모시니까 분단과 DMZ 이야기, 남북선원 이야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관심이 없었거나 그러려니 했던 남북에 관해 많이 알게 되었다.

건봉사에 방을 들어 생활하면서 쓴 글인데 절 이름은 딱 한번 p93에 살짝 언질을 주었을 뿐 어디에도 건봉사는 없다. 절을 아주 아름답게 그렸고, 간략하게 절의 역사도 소개했다. 가끔 등장 하시는 주지스님의 유머에 빙긋 혼자 웃었다. 군데군데 작가의 시도 소개 되었다.

책 제목 만 보면 직업이 종두인가보다 생각이 들지만 아니다. 절의 사정상 절의 종을 쳐 보긴 했다. 범종소리에 취해서 너무 늦게 치는 바람에 잘렸다. 종두 못 치는 종두인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종두라고 불리고 싶은지도...

이런저런 절의 일상을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소개했는데, 아름답고, 짧고, 알기 쉽게 써서 재미있게 읽었다.

p151 예수스님 편에서는 1980년대 살던 예수스님이 괴각승이라는 별명과 함께 차를 들고 좌탈입망하셨는데 그 행보를 기원전 420년 소크라테스의 행보와 비교해서 설명되어 있다.

p61 생각이 나의 의지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는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 심원의마(心猿義馬): 마음은 원숭이이고 생각은 말이다. - 마음은 원숭이처럼 가만있지를 않고, 생각은 말처럼 날뛰는 말이다.

뇌세포는 춤추고

허순애

죽은 듯 서 있던 나무에서 새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나는 불현 듯 일어나 인제 문화원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문화원은 “청정과 모험의 고장”이란 팻말을 달고 있었다. 도착해 보니 겉모습은 어느 도시에서 본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건물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천천히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방문 기록장에 온도측정, 간단한 거주지와 연락처를 기록장에 적었다. 문화교실의 난타, 다도, 한문, 합창단, 한국무용, 우크렐레, 노래교실, 라인댄스, 한글서예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한참을 들여다 본 후에 ‘합창단’에 체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역 문화와 관련된 책자를 한아름 들고 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나를 각별하게 보살피 주셨다. 《새 벗》이란 책에 동시도 실렸고, 음악시간에 풍금 소리를 듣고 오선지에 그린 청음 실력에 선생님이 나를 번쩍 안아주시던 기억! 그러나 음악은 평생 내 삶의 언저리에서 맴돌기만 하였다.

세계를 돌아보면 그곳의 특색 있는 음식에 언제나 발걸음을 멈추었고, 자연스럽게 CD에 손길이 닿았다. 장르 불문이었다.

“침묵 다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을 최대한 표현해 주는 것은 음악”이라고 말한 사람은 영국작가 올더스 헉슬리이다. 지금도 집안에서는 늘 음악이 흐른다.

* 계간 『에세이문학』 수필가 등단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회원
100인의 테라피스트, 컬러애널리스트강사.
산문집 『무경계의 지점에서』

합창단의 첫 수업시간이다. 앞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내 일생 여자지휘자를 한 공간에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공고롭게도 단장이었다. 나에게 음악책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목차를 들여다보니 익숙한 곡들로 구성 되었다. 오카리나로 음악한 경험에 비추어 다음 페이지의 악보를 짜깁기 해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책은 집에 가져가지 말고, 여기 두고 다녀”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그 순간 어느 화장품 가게의 판촉사원이 떠올랐다. 책을 잇고 오거나 잃어버려 가져오지 못한 경험 등으로 부정의 표출이 강했던 것 같다. 이해를 하겠다며 “오늘만 잠시 가져갔다가 다음번에는 놓고 다니겠다”는 빗겨가는 설득력으로 고비를 넘겼다. 드디어 첫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차렸다. 합창소리와 함께 지휘자의 곡 해석에 따른 손동작에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었다. 스폰치 같이 나의 뇌세포가 몰랑몰랑 해졌다. 설악의 입구에 자리한 이곳의 소리는 골짜기로 메아리쳐 들어갔다. 알프스 산장 초입에 앉아 들던 요들송의 전율 그대로였다.

도라지 꽃
산속에 핀 도~라지꽃,
하늘의 빛으로 물들어있네
옥색치마 여~민자락
기다림에 물들었네
물 들었네

음율과 가사의 의미를 담은 몸짓은, 유경환 작사, 박지훈 작곡자를 능가할 만한 해설이 이어졌고, 나를 한적한 산속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의 타고난 미성과 단원들의 길들여진 목소리는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청중이 된 채, 첫 시간을 보냈다.

합창이란 다성多聲 악곡의 각 성부聲部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르는 가창 형태를 말한다. 그 다성의 하모니 세계로 빠져들고 있을 즈음, 7월 22

일 공연 곡이 선정된 열은 그린 컬러의 책 《제12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 인제군 합창단》이 성큼 내 앞에 주어졌다. 목차에 모두 여덟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난남〉, 〈보리밭〉, 〈오빠생각〉, 〈세월이 가면〉, 〈도라지 꽃〉, 〈영원한 사랑〉, 〈그리운 금강산〉, 〈달빛이 내리는 강가〉, 이미 체화 된 곡들로 선정이 되어있기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업시간을 메꾸어 나아갔다. 나는 알토 파트였다.

며칠 뒤 팜플렛용 사진 촬영하는 날이 되었다. 내 사이즈는 55인데 77사이즈 단복이 배당 되었다. 품은 옷핀으로 뒤에서 줄였지만 길이는 10센티 높이의 구두를 신어야 맞을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히히~호호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빨간색 단복의 강렬함은 열정적인 단장을 무척 닮아있었다.

공연일이 다가오면서 기존의 남성팀 세 명이 뒤늦게 합류했다. 그 중 한 분이 지휘자의 남편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첫 인상은 가을하늘의 해바라기 꽃 이었다.

‘책을 닫고 지휘자만 보라’는 그 소리에도 가사와 음표의 지시에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 분의 당당함. 그런 시간들이 흘러 드디어 리허설 날이 되었다. 초대한 성악가 부부는 지휘자의 딸과 사위였다. 따님은 현재 춘천시립합창 단원이다. 그녀의 독창 곡은 IIBacio /L.Arditi 〈입맞춤〉이다.

sulle sulle labbra sulle labbra

가능하다면 그대 입술에 입맞춤 하리

se po tessi dolce un bacio ti da re I dolce un

사랑의 감미로움을 그대에게 모두 바치리

힘찬 그녀의 미성은 달빛처럼 텅 빈 객석으로 쏟아져 내렸다. 물안개가 걷히면서 한 마리의 백조가 날개짓을 시작하듯, 잔잔했던 물살은 점차 빨라지면서 마음에 강한 파동을 긋고 지나간다. 나의 뇌세포도 춤추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며 앞으로 나아갔다. 주위가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 황홀!

삶의 흔적과 휴머니즘 추구의 미학

김영관

1. 들어가는 말

현대는 존재 망각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만 현혹되어 그것을 전부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망각과 착각의 시대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존재를 잊어버린 시대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존재를 잊어버린 시대에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는 사유와 예술적인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시대가 궁핍과 결핍의 시대라고 진단해 본다. 이는 현재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인간 존재를 위해 사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시대에 대한 질문은 존재 망각과 관련되고, 그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인간의 의미와 삶이 나아갈 방향이 가리키는 대답과 함께 한다. 이 질문은 현대의 모든 인간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 의미와 삶을 생각하는 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시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누구일까? 그는 동심을 지키고 추구하는 동시인일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언어와 더불어 경험한다. 그것은 사물이 사물로 존재하게 되는 경험이다. 언어의 본질은 동사에서 탁월하게 드러나게 된다.

* 문학평론가, 교육평론가, 시인.

2002년 《아동문학평론》 문학평론가 등단, 2004년 《교육평론》 교육평론가 등단,

1999년 《문학공간》 동시, 2006년 《공무원 문학》 신인문학상 시부문 등단.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철학박사. 한국아동문학협회, 강원문인협회, 인제문인협회 회원,

현재 인제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시작(詩作)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은 개념이나 단어로 사물을 지칭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물을 이해하고 드러냄으로써 그 사물을 그것으로 있게 하는 행위다. 이를 철학적으로는 ‘존재 드러남’이라고 한다.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를 지각하는 것들은 먼저 그것이 지각되도록 드러나야 한다.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존재다. 그래서 그는 존재란 ‘감춰진 존재자를 그 감춰진 곳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존재는 매우 다양하게 이해된다. 그것은 존재자를 있게 하는 생성이거나, 존재자를 열어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감춰진 데서 존재자를 드러내는 행위, 즉 그것이 드러내는 행위, 즉 그리스어로 ‘알레테리아’라고 말한다. 이 말은 잊힘이나 감추어짐에서 벗어나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해한다.

2. 삶의 흔적과 휴머니즘 추구

동시는 아침의 문학이요 미지의 문학이다. 동시인은 어린이들에게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예지(豫知) 시켜 줄 의무가 있다. 훌륭한 동시는 주제 파악을 성급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명하고, 쉽고, 예술성이 짙은 언어 속에서 삶에 대한 꿈, 신비, 서정, 환상적인 요소 등이 넘칠 때, 동시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술성이 훌륭한 동시는 가장 고차원적인 감동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작가의 사명은 인간을 탐구하는 일이다. 인간 탐구란 자기를 먼저 아는 일이다, 작가로서 오로지 자신을 작품 속에 녹여 넣는 천직의식과 오늘의 나를 정점으로 하여 역사의 진행을 비판하고, 이해하는 해석력과, 또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진행을 내다 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참여할 성실성을 가진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휴머니즘은 사유 세계의 근원으로,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 행복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말한다. 이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삶의 흔적과 무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개학 날/때를 맞추어/산수유가 피어나고// 담장 따라/개나리도/손잡고 피어났는
데// 왜 여태,/애들이 안보일까?// 어리둥절한/교문.

- 김용희, 「어리둥절」 전문 《아차! 마스크》 2021. 11. 30. 리집 발행)

코로나 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 구석구석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놨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신입생이 들어오고 개학을 해서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개학과 수업도 영상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수업 결손 문제도 생겨나고, 친구들 얼굴을 알지 못해 궁금함이 커지기도 했다. 거기에서 거리두기로 마음마저 멀어져간 시간들이었다.

누구나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내야 했다.

학교는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야 학교다운 맛이 있는데 도통 오지 않으니 늘 학생들을 바라보던 교문이 어리둥절 할만하다. 어리둥절한 교문을 통해 텅 빈 학교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아차, 지갑!”/“아차, 핸드폰!”/아침마다 허둥거리는// 마음 바쁜 아빠를/바꾸어 놓
은/코로나// 낯설은/“아차, 마스크!”/바쁜 걸음 붙잡는다.

- 「아차! 마스크」 전문

지갑과 핸드폰은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이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면 생활자체가 어려울 만큼 불편함이 많다. 코로나로 인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물건이 마스크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는 마스크 챙기기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요즘에는 많이 완화되어 야외에서는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다행인지 오히려 걱정을 더하는 건지, 아직은 어느 쪽이든 장담할 수 없는 숙제로 답답할 뿐이다.

학원 건물 입구에서/체온을 잴 때마다// 엉뚱한 생각에/두근두근/조마조마// 혹시
나/숨겨둔 그 무엇들이/눈금에 찍힐까 봐.

- 「두근두근」 전문

코로나를 겪어내며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 있다. 체온을 재면서 긴장했던 순간들이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열이 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격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매일 하면서 살아왔다. 정상체온이 나오면 ‘아! 아니구나!’ 두근거림 속에 안도의 한숨을 내 쉬기도 했다.

“어느 땐데?/올 것 없다!”// 올곧은/할아버지가// 축하 전화로만/쓸쓸히 맞은/생신
날// 엄마는/아빠 눈치 보며/살얼음판 기분이라.

- 「할아버지 생신날」 전문

“할아버지 산소에도/달은 뜨겠쥬, 어머니!”// 마음으로 뵈겠다며/집을 나서는 삼
촌// -할머니,/이런 거리두기는/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석 성묘」 전문

할아버지 생신이면 자식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이 찾아와 축하도 해드리고 재롱도 피우는 게 보통의 어른 생신날 풍경이다. 그런데 워낙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향이나 친척집을 찾지 않는 게 오히려 효도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움은 뒤로 밀어놓고 전화나 문자로 뵈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야 하는 이상한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뉴스에서 “이번 명절엔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어느 동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추석 성묘도 마찬가지다. 고향 방문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추모공원 등은 방문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왔다. 명절날 성묘도 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들이 새롭다.

생일 축하 파티 대신에/선물 받은 스마트폰// 자랑하고 싶어/안달 또 안달인데// 수
시로/축하 문자 대신에/안전 안내만 뒀다.

- 「대신에」 전문

어린이들이 생일 선물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이다. 기쁨도 잠시
코로나 관련 안전 문자가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오니 정신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긴 것이다. 안전 문자라서 화도 못 내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 현실을 대신 표현해 주고 있다.

입학식 무/졸업식 무/마스크 쓰고/비대면 수업...// 삼촌 군대 얘기처럼/나도 할 말
이 생겼다.// 먼 훗날/“그때 말이야~”하면// 모두 놀라/ 자빠질걸!

- 「먼 훗날」 전문

정말이지 먼 훗날 전설처럼 말할 것 같다. 입학식과 졸업식도 없고 수업
도 비대면으로 하는 광경이 먼 훗날에는 이해 못할 것이다. 흔히 아버지나
삼촌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면 좀 과장된 표현으로 무용담을 쏟아내곤 했
었다. 군대를 가보지 않은 자녀나 어린 조카들은 무용담을 들으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얼른 이 위험한 시기가 끝나고 무용담처럼 옛이야기로 남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려 본다.

오솔길/어린다람쥐/가만, 눈 맞추다가// 저것 봐!/소리에 놀라/숲으로 사라졌어
요.// 내 맘에/꼭 박힌 그 눈빛/온종일 어른댔어요.

- 「다람쥐」 전문

산행을 하다보면 야호! 하고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이야
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랜만에 산과 숲을 찾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숲에 사는 다람쥐나 청설모,
토끼, 산새 등 동물들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가
죽끼리 헤어지는 비극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다람쥐가 놀라 달아난 모습을 떠올리며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을 “어른됐다”는 표현으로 미안함과 아쉬움을 함축하고 있다.

세간이 볼 때마다/함께 늘어난 장독대// 독이며 향아리들/손맛들인 장맛인데// 엄
마는/말짱한 저걸 다 두고/어찌 발길 돌릴까.

- 「이사 가는 날」 전문

우리 민족에 있어 장독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명문 종갓집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넓은 장독대에 향아리들이 줄지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장과 된장 그리고 각종 장아찌가 은은한 향을 내며 익어가는 풍경이다. 큼직한 향아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장독대는 그 집안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 장독대의 크기였다. 따라서 장독대만 보더라도 그 집안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되었다.

대대로 물려오며 지켜왔던 장독대를 새로운 삶의 터전인 도시로 이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독대와 향아리들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 주부들이 이사를 통해 목숨 같은 향아리들과 이별해야 하는 상실의 괴로움과, 가족이란 끈끈한 삶의 현장이 눈물겨울 만큼 아련해 진다.

“생때같은 목숨들을/떼죽음으로 몰다니...”// “세월 타령만 하라고/이름조차 그러한
지...”// 오늘도/옹알이하듯/되뇌시는/울 할머니.

- 「세월 호, 그 이름」 전문

2014년 4월 16일 그로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들쭉였던 세월 호 사건을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다. 생때 같은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선생님들과 승조원들이 함께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유가족들의 비통함과 오열 속에 몸부림치던 모습들이 엇 그제 있었던 것처럼 눈앞에 선하게 다가온다. 지금도 마음에 병을 얻은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도 확실히 모른 채,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아프고 안타깝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귀한 유품인 책들은// 겨울 대숲에서/서걱대는 댓잎 같아요//
매서운 바람에 맞선/빛바랜 누런 얼굴.// 조심조심 손을 대도/부스러질 듯한 책들은//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성품까지 닮았어요// 가만히/귀를 기울이면/카랑한 소리도 들
려와요.

- 「할아버지 옛 책」 전문

한국 아동문학을 위해 한 평생을 받치신 사계 이재철 할아버지는 아동
문학 관련 책들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으고 보관을 해왔습니다. 한평생
을 모아온 책들은 냄새도 나고 색도 누렇게 바래서 세월의 흔적을 갖고 있
는 책들이 많았다. 지금도 경희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할아버지가 기증하
신 책들 속에 할아버지 목소리와 숨결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책 더
미 속에 할아버지가 숨어계실 것 같다.

날마다 이른 아침/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할머니랑 마주앉아/소꿉놀이를 하듯이//
신문을 오리고 붙이며/사이좋게 놀았어요.// “요게 내 취미인가라...../모아놓으면, ‘역
사’여!”// 온갖 세상 이야기를/조각보로 만들었지요// 펼치면/그때 얘기들이/날개 짓
을 하지요.

- 「할아버지 스케치북」 전문

할아버지가 쓴 글씨는/못 읽어도 금방 알아요// 여기저기 벽에 붙은/한자로 쓴 큰
글자는// 능름한 왕바위 모습/그림으로 보이고요// 원고지며 해묵은 달력에/또박또박
적어놓은// 대쪽 같은 글씨들은/바람으로 들리다가// 대번에/환한 대머리의/긴 얼굴
로 살아나요.

- 「할아버지 글씨」 전문

생전에 이재철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머니와 둘이 다정히 앉아 여러 신
문들을 모아 놓고 신문기사와 사진들을 오리고, 스케치북에 붙이고 계시
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언젠가 왜 그렇게 신문을 오리고 붙이시느냐 여
쭈어 보니 “오늘 신문 기사는 별거 아니지만 후세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자료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인가라”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댁 구석
구석에 쌓여 있던 신문스크랩 스케치북은 이제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도

서관에서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할아버지는 달력에다 한자로 특별한 날이나 어떤 계획을 적어놓으 시는데, 혼자만 아시도록 적어 놓는 일이 많았다. 이는 기억력이 예전 같 지 않아 적어놓으신 것이다. 또 버려지는 달력을 재사용하여 절약하는 삶 을 사셨다.

나들이 때 할아버진/모자부터 챙기셨죠// 긴 얼굴 민둥머리에/씩 잘 어울리던 모
자// 어깨는 구부정해도/마도로스 폼 나셨죠.// 먼 나들이 떠나신/할아버지를 기다리
며// 옷걸이에 덩그마니/매달려 있는 모자// 바닷가 거닐고 계실까요?/갈매기 소리
들려요.

- 「할아버지 모자」 전문

할아버지는 늘 외출을 하실 때면, 민머리를 보여주기가 싫으셨던지 철
마다 흰색이나 검정 또는 회색의 마도로스 모자를 즐겨 쓰셨다. 멀리서 봐
도 이재철 할아버지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자였다.

할아버지가 저세상으로 떠나고 나신 뒤 옷걸이 걸린 모자는 지난날 자
기를 아껴주시던 할아버지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을 기
다리는 모자를 보면서 지난날 할아버지와와 추억과 흔적을 더듬어 본다.

위암 수술 받으신 뒤/할아버지의 가방은// 책가방 아님/소풍가방이 됐어요// 할
머니/정성이 풍기는/달큰한 야채즙 향기.// “여기, 이런 것도 한 개/끼여야 구색인기
라!”// 내게 눈을 찡긐./웃음 짓던 할아버지// 슬며시/할머니 몰래 넣던/‘마주앙’이
생각나요.

- 「할아버지 책가방」 전문

할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하셔서 위를 잘라내셨다. 생전에 위암이 걸리
셨을 때 전국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다고 한다. 그
때 심정은 죽음 문턱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암과 투병하면서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건강을 생각해 손수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주곤 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국산 와인을 즐겨하셨다.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못 드시게 하자, 할머니 몰래 마주앙을 가방에 챙기거나 서재에 숨겨 놓고 몰래 드시곤 했다. 저세상에서도 와인을 즐겨 찾고 계시는 건 아닌지 무척 궁금해진다.

할아버지는 서재에다/영동한 걸 감춰어요// 성품과 안 어울리게/가득 찬 어린이 책
을// 턱 높은 그 방 안에서/매일매일 읽으셨죠.// 닳도록 읽은 책도/밑줄 치며 보셨어
요// “어린이는 우리 미래여!”/늘 하시던 말씀처럼// 그리던/그 미래의 나라로/먼저
가셨나 봐요.

- 「할아버지, 미래의 나라로」 전문

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童心은 天心”, “大東民族兒童文學中興”(어린이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우리민족을 아동문학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이라는 글귀와 어린이 책들이 할아버지 서재에서 방문객을 맞아 주었다. 옛 추억이 세삼 떠올라 눈물이 눈가를 축축이 적신다. 그때가 그리워진다.

타이어는/얼마나 피곤하겠어요./등에 짐을 지고 굴러요// 굴러요 굴러/아스팔트 위
에서 굴러요// 밤낮으로 일하는 타이어/쉴 시간이 없어요// 굴러요 굴러/비포장도로
에서도 굴러요// 골목골목 누비는/바쁜 타이어// 바람 구르듯 다니는/택배기사 우리
아빠// 밤이 되면/아빠 타이어 자국 위에/별이 내려앉아요.

- 이해솔, 「타이어」 전문 《민들레 아이》 2022. 2. 25. 아동문예 발행)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자주 매스컴을 통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고된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당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타이어 자국 위에 별이 내려앉을 만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아빠의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한길 옆 도로 가에/혼자 있는/빨간 우체통// 사람들 이야기/가슴에 안고/누군가를 기다리는/빨간 우체통// 카톡, 메일, 메세지 세상에서/따듯한 손길이 그리운/빨간 우체통.

- 「빨간 우체통」 전문

요즘은 손 편지를 보기가 어렵다. 편지가 아니라도 더 빨리 아무대서나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빨간 우체통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우체통 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드문드문 서 있는 우체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훗날 삶의 흔적이 될 사연들을 묵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느리고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흔적인, 정이 담긴 손 편지들이 우체통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학교 끝나고/학원가는 길목// 길옆에 민들레 친구들/옹기종기 모여/나를 보고 웃는다./// 놀다 가라고/같이 놀자고/씨앗, 우주선놀이 하자고// 바라보는 길로/방긋방긋 따라 온다/노랗게 물든 내 마음 잡으며/같이 놀자고// 뒤돌아보며 보며/가다 보니/가다 보니// 어느새/학원 입구다.

- 「민들레 아이」 전문

새봄과 함께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공부보다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억지로 가기 싫은 학원을 간다고 말한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땐 학원이 없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원가기 부담감을 줄여주고 밝고 맑은 웃음을 되찾아 주는 날은 언제일까?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시골 학교 운동장에/놀던 아이들/손 흔들며 반기던/젊은 시절 플라타너스// 비바람 눈보라/햇살 속에서/얼룩덜룩 피부 간직한/할아버지 플라타너스// 재잘 재잘 친구들 생각하며/시골 운동장에 묵묵히/아이들 없는 교실 바라보는/플라타너스 할아버지.

- 「할아버지 플라타너스」 전문

학교의 역사는 교정에 있는 나무의 역사와 함께한다. 지금은 기념식수를 잘 안하지만 예전에 그것도 시골에서는, 꼭 개교기념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역사가 백년이 넘어가면 나무 나이도 같이 백 살이 된다. 그러니 그 학교를 다닌 수많은 개구쟁이들을 나무 할아버지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공기 타고 퍼져서// 학교에선/마스크 착용하고// 아빠는 회사 가시고/엄마는 일하러 가시면// 집에선/온종일 그림자와 놀아요// 기침하지 말고/아프지 말라고/다독다독 다독이며//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그림자 친구.

- 「그림자 친구」 전문

코로나로 인해 온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거기에서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가족들은 일터로 가고 홀로 시간을 보내니 이 고통도 만만치 않다. 친구와 놀아야 하는 건데 혼자 그림자 친구와 노는 현실이 답답하다.

시골 할머니 댁/집 옆 감나무 한 그루// 따끈따끈 햇살에/오순도순 익어가는// 말랑말랑/빨간 감 홍시/한 개 두 개...주렁주렁// 감나무 밑/우리 할아버지/장대 들고 달랑달랑//장대 끝 망 속으로/툭./들어가는 감 홍시.

- 「가을 감나무」 전문

지금은 아이들이 먹을거리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먹을게 많다보니 골라먹어야 하는 어려움이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고민거리다. 요즘 부모 세대들이 살던 시절은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다. 시골에서 홍시 한두 개면 그보다 훌륭한 간식은 없을 만큼 훌륭했다. 감을 따는 한가로움과 가족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잊혀져가는 우리네 정겨운 삶의 현장과 흔적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추억하고 싶다.

낮이면/날아가던 꽃잎/얹아 쉬고/하늘 빛으로 물드는/커다란 상자// 밤이면/달그림자 흔들리고/별빛이 스며드는/포근한 상자// 골목길 따라/내 얼굴 보이면/상자는

평화를 담고/따스한 눈빛으로/나를 기다리는/.정다운 상자// 높이 높이/35층/우람한 상자.

- 「아파트」 전문

도시 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고층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생겨나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공부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서낭 고개를 넘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요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느껴보지 못할 일이다. 그 시절이 그립다. 눈물이 자꾸 난다.

회사에서 일하고/집에서도 일하는/우리 엄마// 햇살아! 햇살아!/엄마 마음에/비추어라.// 빛다발을 안은/프리즘 되어/비추어라.// 엄마 얼굴/꽃다발처럼/더 많이 웃고/더 자주 웃게.

- 「엄마의 웃음」 전문

가정일과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내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건강이 염려가 된다. 이런 엄마를 웃게 해주고, 엄마 마음에 햇빛이 비추게 해달라는 주문은 요즘 주부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자세히 보지만/마음은 몰라요.// 친구의 마음을/현미경으로/보면 볼수록 크게 멀어져요.// 멀어진 것은/망원경으로 보여요.// 마음은 가까워서/망원경으로 안보여요.// 현미경 없어도/망원경이 없어도// 내 마음은/친구의 마음을/그냥, 가만히 느껴요.

- 「현미경과 망원경」 전문

스물네 시간/중심을 세우고/힘을 주어// 돌고 돌고 돌고/돌아가는 하루// 열두 시간/중심을 세우고/힘을 주어// 학교로, 학원으로, 집으로// 돌고 돌고 돌고/돌아가는 오늘.

- 「하루와 오늘」 전문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힘들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빠치고, 운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정해진 대로 학교와 학원으로 정신없이 오가다 보니 친구와 놀면서 친해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없다는데 더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사람에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 살아가는데 더 더욱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돈보기와 망원경으로 멀어진 마음을 알아내는 마법 같은 해안이 누구에게나 생겨서 다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십억 년 전에 생물이 지구로 이사 왔어요.// 공기가 오고/물고기가 오고/풀꽃이 오고/나무가 오고/도마뱀이 오고/풍뎅이가 오고/참새가 오고/사람이 오고//지구에서 못 살아/우주로 새집 분양 받으러 갔어요.// 공룡이 가고/도도새가 가고/파란영양이 가고/바바리사자가 가고/분홍머리오리가 가고/황금두꺼비가 가고// 지금도 짐을 싸는 생물들이 있어요.

- 「멸종동물」 전문

지구 생물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번식과 생존을 해왔다, 또한 진화와 멸종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 흔적을 남겨왔다. 우리 지난날 생존했던 동식물들을 화석이라는 흔적을 통해 오늘도 만나게 된다. 이 흔적이 그들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 많던 생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남긴 흔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짐을 싸는 동식물들은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인간도 흔적을 남겨야 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나오는 말

우리 삶은 일정한 때와 구체적인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다. 삶은 때와 곳, 현재라는 지평에서 형성된다.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즉 ‘현재’라는 해석학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이야기로 재현되는 것이다. 삶의 이야기는 나의 존재이고 역사이며, 나 자신이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와 관계, 나의 기쁨과 희망, 지난날의 고뇌와 미래의 꿈, 나의 잘못과 부끄러움, 실패의 아픔과 극복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 삶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야기 그 자체다. 그것은 역사이자 현재, 어제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내일의 바람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의미를 지향하는 인간의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재를 성찰하는데서 만들어진다. 성찰이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자연과 세계, 타자의 역사 의미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예술 문화는 이러한 인간의 자기 이해가 변화되고 실현되어온 과정이자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이해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 시대의 문화와 동시문학은 결국 인간이 지닌 자기이해에 의해 형성된다.

시대정신은 한편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표상하는 틀을 결정하지만, 또한 시대정신을 통해 드러난 사회와 문화의 체계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이해와 사유의 패러다임이 제시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인간상을 표상하지만, 또한 그 표상은 그 시대의 정신을 재현한다.

존재는 본성적으로 감추어짐과 드러남이란 상관관계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결여의 형태를 띠거나 드러내기 위해 뜯어내는 행동을 포함한다. 존재에서 보면 존재자를 이해함으로써 존재하게 하는 행위는, 존재가 자신을 인간에게 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시간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일컬어 존재를 ‘모아 보냄’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라는 지평에서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간직하는 존재이므로 현존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간은 존재를 없음으로부터 지키는 존재의 목동이다. 그 없음은 사물적으로 있지 않다는 의미다. 존재란 사물처럼 있지 않는 것, 사물에서 보면 없음처럼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사물과 사물적인 것을 없애는 것 사이에 있다.

인간은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지평에서 존재 의미를 드러내며 이러한 행함을 통해 존재 망각의 시대를 극복한다. 이러한 존재 드러남의 행위가 인간에게서는 언어로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인간을 시인에 비유하는 것이다. 존재 드러냄의 가장 탁월한 말은 시이다.

동시인 들이 갖추어야 할 인간 철학은 아름다움의 철학, 있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철학이고, 다가올 사유로서 예술적 철학, 존재 진리와 그 새로움을 드러낼 사유의 철학이다. 이렇게 다가올 새로운 사유는 삶의 흔적을 통한 휴머니즘 추구로 우리의 거울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강원도 인제 및 기린 지역
지명의 유래

김용진

스승따라 별명따라

최광윤

제 4 장

특별기고

강원도 인제 및 기린 지역 지명의 유래 - 어느 기린 토박이 촌로로부터 들은

김용진

저는 1980.03.07.~1983.02.28.까지 3년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공병대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대는 기린면에 위치해 있으면서 현리의 3군단사령부와 사령부 부속 시설(군단 장교 및 하사관 관사 포함)을 직접 지원하는 부대였던 관계로,

저는 당시 공병대대 공사장교, 정보장교 및 건설장비과장 직책은 물론, 3군단사령부 시설대장으로 파견되어 군단사령부 및 군 관사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당시 민간건설업체의 군도급공사 감독업무도 병행 수행하였는데,

이때 감독한 군공사로는

현리버스터미널 앞 “3군단 장병휴게소 신축공사”, 덕다리 방태천변의 “3군단 장병휴양소 신축공사”, 사령부내 “103보안대 신축공사(배관 및 전기등 설비 부분 담당)”, “군단사령부 난방 보일러 및 배관공사”, 사령부내 “기린극장 난방설비공사”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군공사의 공사감독을 위하여 방동 부대내 BOQ 생활이 외에도 현리 덕다리 버스정류장 안집에 하숙을 하거나, 3군단 BOQ와 장

교식당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때로는 현리내 민간 식당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현리 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식사도중 우연히 만난 그 지역 원로 노인분에게서 기린 지역의 지명이 생긴 유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곳 기린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기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셨는데,

이야기해주시는 기린지역 지명의 유래가 너무나도 그럴듯하여 정말 재미있게 경청하였으며, 지금도 그 분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 문득 노인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기린면 지명과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이나 인제군청은 물론 지명유래를 연구한 어느 문헌에서도 그 노인이 들려주신 기린이나 인제라고 지명이 지어졌다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향토사학자들조차 지명유래에 대하여 이런 “설” 저런 “설” 황성수설 장황한 논리만을 전개하였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의 유래 풀이가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더 나이가 들어 기억에서 지워져버리기 전에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유래를 인제분들(군청이나 군민 전체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린지역의 지명 유래에 대하여 저와 같은 이야기나 또 다른 유래

를 들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특히 강원도 인제 출신이나 인제와 인연이 있는 분들)

기린 토박이 노인에게서 들은 기린지역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제군 지도를 보면 점봉산, 방태산 등에서 발원하여 진동계곡과 아침가리 계곡이 합류하여 현리방향으로 흘러온 방태천은

오대산, 계방산 등에서 발원한 내린천과 기린면 소재지인 현리의 덕다리 부근에서 합류하여 계속하여 인제까지 흘러 소양강과 만나며,

현리에서 합강정까지의 내린천의 중간에는 3포사고개에서 발원한 하천이 진다리 부근에서 내린천과 합류하고,

또한, 점봉산에서 발원한 하천이 귀둔을 경유하여 서쪽으로 흘러 내린천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린천과 방태천 및 그 주변의 하천이 이루고 있는 형상을 기린의 형상으로 보고,

기린의 몸통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린”이라 이름을 지었으며,
나머지 기린의 신체 각 부위에 해당하는 곳, 혹은 기린의 꼬 무늬나 자태, 혹은 특정 신체 위치 부근, 혹은 기린을 가두어 키우는 울, 혹은 기린이 밟고 걸어간 곳 등에 빗대어 각각의 지명을 지었다합니다.

즉, 기린의 신체부분 중

1. 머리는 방동약수 일대지역
2. 기다란 목덜미는 방동교에서 현리의 덕다리까지의 방태천

3. 몸통은 현리지역의 내린천
 4. 앞다리는 덕다리에서 하남방향 내린천 상류 지역
 5. 뒷다리는 현리 진다리에서 인제까지의 내린천 하류 지역
 6. 뒷발굽은 인제 지역
- 에 각각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1. 기린의 머리 해당 지명:

아침가리, 명지가리, 연가리, 적가리(대가리나 영화 용가리에서 보듯 가리는 머리 부위 으뜸, 가장 위를 나타내는 말이며, 머리도 각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린다함. 한편, 방동약수샘 솟아나오는 곳이 바로 기린의 정수리 부위라함)

2. 기린의 귀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耳呑(지금의 기린면 진동리 추대 부근의 지명으로 1861년 간행된 대동여지도에 “耳呑里” 표기되어있음)

3. 기린의 귀 뒤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귀둔(우리말로 “귀뒤”인데 “뒤” 음의 한자가 없어 “둔”이라 했다함, 대동여지도에는 귀둔을 耳屯古邑이라 표기하고 있는 바, “귀뒤”를 “耳屯”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음)

4. 기린의 목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아룽가지(기린의 기다란 목의 무늬가 아룽아룽 거리는 것에서 작명, 방동약수 올라가기 전에 있는 지명임)

5. 기린의 몸통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기린(지금의 현리, 기린현이 있었던 곳이라 현리로 불림)

6. 기린의 앞다리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덕다리(기린이 서있는 몸통에서 뻗어나온 두 앞다리가 겹쳐진 형상이라 “겹다리”라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되었다함. 즉, 지금의 “덕다리”에서 두 앞다리중 한쪽 다리는 내린천 상류의 하남방향으로 뻗어있고, 다른 한 다리는 덕다리 건너편 골짜기로 뻗어있는 형국이라함)

7. 서쪽으로 뻗어있는 발 앞에 있다하여 지어진 지명:

서바수(현리에서 하남방향으로 용포교 못미처에 있는 곳의 지명. 원래는 기린의 서쪽편 발에 있는 물이라하여 “서발물”로 작명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발”의 “ㄹ”이 탈락, “물”이 “술”로되고 이 또한 “ㄹ”이 탈락하여 “서바수”로 변형되었다함)

8. 기린의 뒷다리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진다리(현리소재지에서 인제쪽으로 가다보면 원대리와 귀둔 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음. 기린의 뒷다리에 해당하는데 뒷다리가 길어서 “진다리”라 지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진다리”로 변형되었다함)

9. 기린 뒷다리 발굽 부위에 해당하는 지명:

인제(麟蹄: 기린 인, 발굽 제) “인제”는 기린의 뒷발굽에 해당하는 곳이라 인제라 이름지음

10. 기린을 가둬 기르는 울에 해당하는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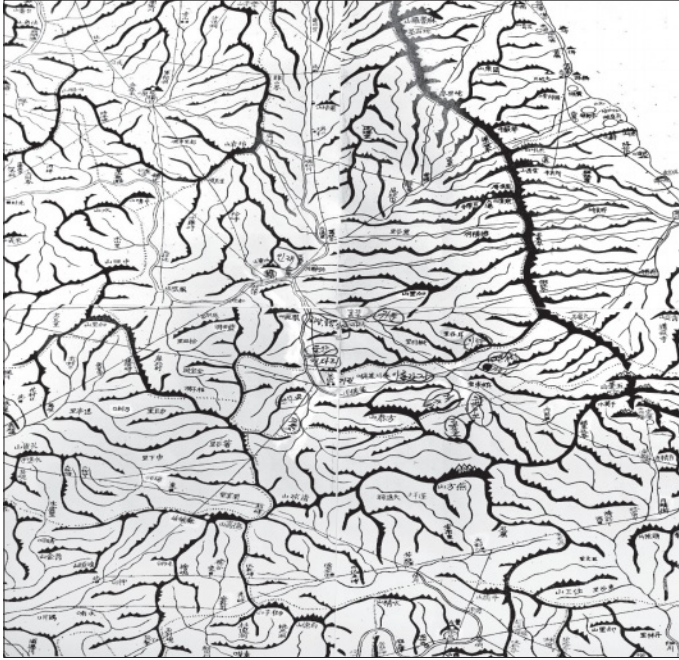
울안(진다리 부근에 기린이 가두어 둔 곳이라는 “울안”이라는 지명이 있음)

11. 기린이 걸어 지나갔다하여 붙여진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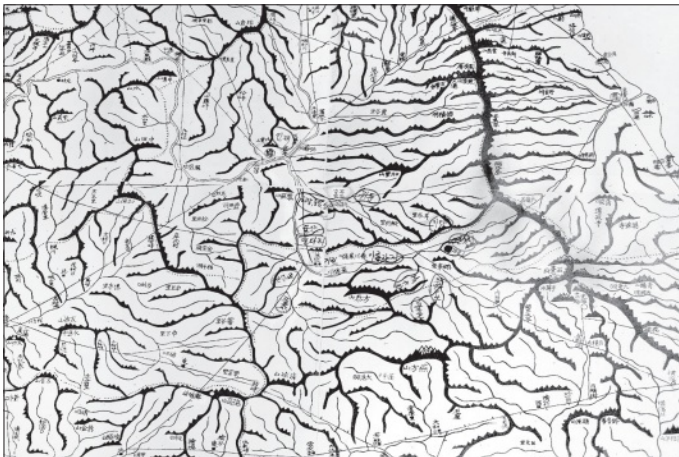
상답, 중답, 하답(上踏, 中踏, 下踏) (귀둔쪽에서 발원하여 내린천으로 합류하는 계곡의 하천을 따라서 귀둔쪽에서부터 내린천 합류지점까지를 기린이 밟고 걸어 갔다하여 “상답, 중답, 하답”이라 지명을 붙였다함)

유래 옮겨 적은 이: 김용진 (010-사육23-21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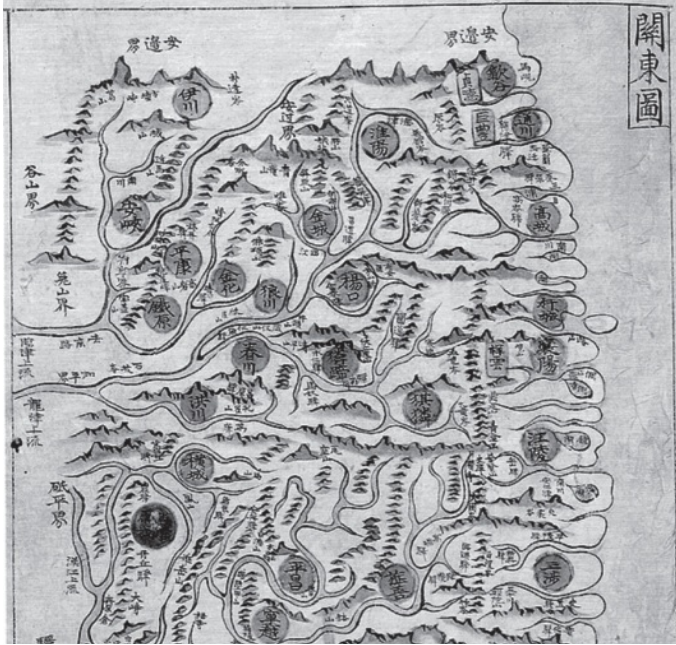
서울 은평구 북한산 향로봉 자락 은평뉴타운폭포동 거주



기린지명표기1(대동여지도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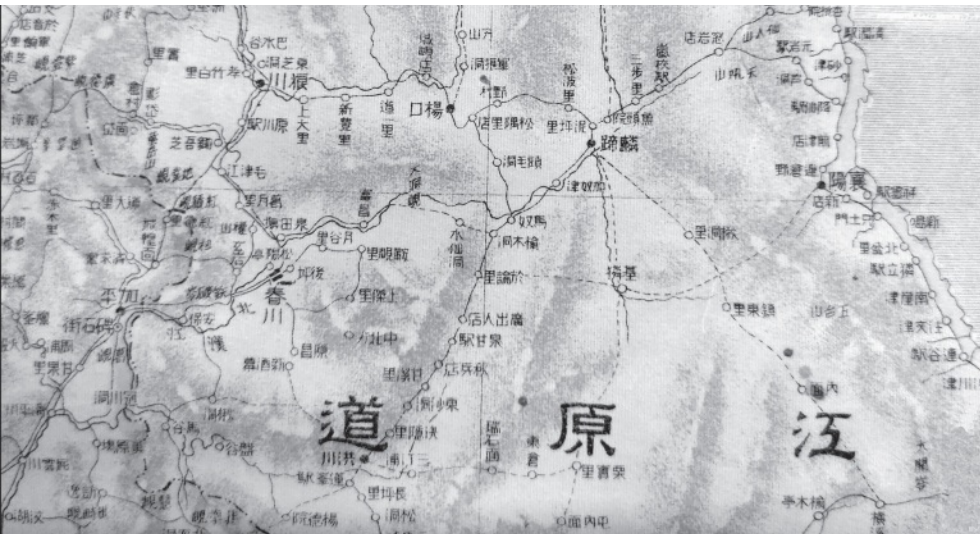
기린지명표기2(대동여지도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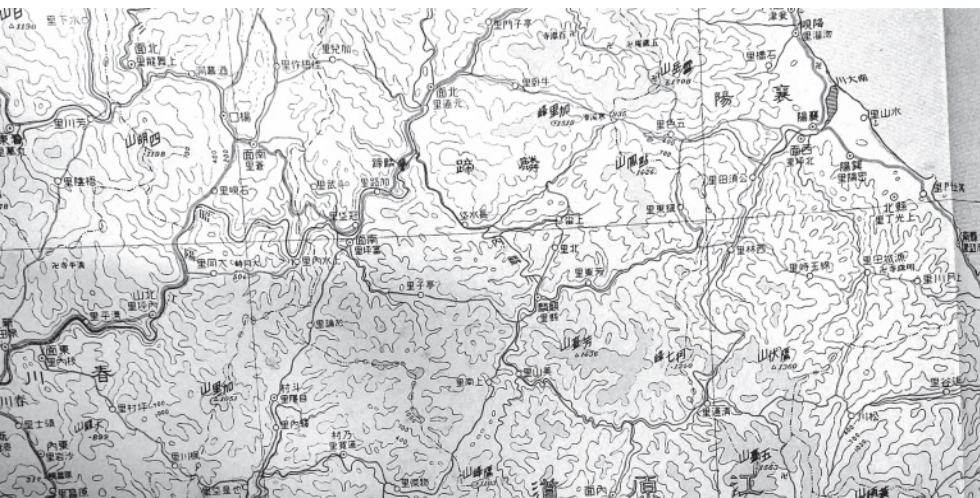
18세기에 제작된 관동도: 기린



1907년 대한신지서록 강원도 지도: 기린천



명치43년(1910년) 한일합방을 기념하여 일본 동경일일신문에서 제작한 조선전도



소하10년(1935년)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여지도

강원도 내륙지역은 일부 산맥의 위치가 부정확하며
지명 또한 정립이 안되어 있는 듯하며
특히, 기린은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한자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기린의 한자지명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지명으로 바뀌어 있고
기린(현리)와 같이 먼 명칭과 소재지 지명을 병기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리, 내린천 등 이전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지명들이 보이며,
측량이 마무리된 듯 산맥들의 위치가 현재의 지도와 일치하며, 지형과 등
고선 및 주요 산들의 높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승따라 별명따라

최광윤(향토소설가)



낱말 ‘별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적혀있다.

필자가 학교에 다니던 50~60년대는 요즘 학생들 쪽에서 바라보면 거짓말 보태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일는지 모른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느 별나라 동화냐고 반문할 것이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학생들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그들은 부모님들이나 이웃 어른들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을 두고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저 대수롭지않은 동반자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버릇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하여튼 우리 세대는 선생님들은 하늘과 같은 분들이었다. 또한, 대단한 인격체였다. 그런 학교문화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별명은 알게 모르게 불리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별명이 혹 애교스럽기도 다정하기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인격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호칭으로 간주 되지 않았을까. 아마 십중팔구 그랬을 거다.

육이오가 막 끝나고 민주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과도기의 특성상,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소 일제의 구시대적 통제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 김유정 추모 문예작품 공모대회 장려상(산문)
 전국 부여 관광 수기 공모 우수상(부여군청)
 수필 문학상 동상 수상 (공무원 연금지)
 소설 등단(한국문인)
 단편 소설집 '갈대 동지위의 사람들' 출간(2008)
 장편소설 '금빛늑새' 출간(2009)
 전자 단편 소설집 '그 아이의 휘파람 노래' 출간(2016)

반면에 학생들은 그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그분들의 별명 속에 담아 놓은 게 아닐는지. 그렇다면 학생들이 은밀히 선생님들의 별명을 여과 없이 불러가며 해방감을 즐긴 건 요즘 말로 스트레스 해소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을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저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이었다. 동요 ‘나비야’를 가르쳐 주시던 2학년 때 여선생님은 청아한 목소리와 나비 같은 춤을 추는 하늘에서 내려온 흡사 요정이셨다. 검은 빨데 안경에 넓은 이마가 특히 인상적인 5학년 때 교장 선생님. 그분은 운동장 조례 때마다 특유의 부드럽고 매끈한 음성으로 정직과 근면을 당부하셨다. 필자도 그분을 닮아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학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시던 6학년 때 담임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만물박사셨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선생님들의 별명을 접하게 되었다. 그 별명들은 선배에서 후배로 상속되기도 했다. 우리 학생들끼리는 선생님들의 본명은 접어두고, 별명 한 마디면 다 알아들었다.

칠판 글씨를 아주 멋있게 쓰시던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그분은 엄하기로 소문난 분이였다. 선배들은 그분의 유별난 콧수염을 보고 구둣솔이라고 불렀다. 또 한 분, 영어 선생님. 그분도 역시 상속받은 별명이 있었다. 개 이빨이. 오죽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닥달했으면 불규칙한 치아에 빗대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 두 분은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이나 한 듯, 학교를 떠나셨다.

2학년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선생님들의 별명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담임하셨던 김일광 선생님.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 쓰는 키가 작고 얼굴이 창백한 국어 선생님이셨다. 유난히 설명을 길게 하여 지루하였는데 이때 여기저기서 아이들은 졸기 십상. 그럴 때마다 몰래 다가가서 알밤(꿀밤)을 안기곤 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웬만한 우리들의 잘못된 눈살 한 번 찌푸리면 그냥 넘어갈 만큼 외양과는 달리 너그러우셨다. 그래서 한창 장난치고 버릇없는 시기의 우리는 선생님께 눈치 없이 까불어댔다. 그러면 돌아온 건 머리통에 알밤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알밤을 주는 선

생님이라는 의미로 선생님의 존함 ‘일자 광자’에서 ‘일’자를 빼고 ‘알’자를 대신 넣어 ‘알광’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내렸다.

2학년 초에 두 분 선생님이 전입을 오셨다. 한 분은 수학을 가르치는 정재호 선생님, 다른 한 분은 과학을 가르치는 최선문 선생님. 그 두 분은 떠도는 애기로는 모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 했다. 그분들은 합강리 어디에서 같이 하숙을 하였는바, 술이라도 한잔하면 심심찮게 다투시기도 했다는 풍문. 정재호 선생님은 구수한 목소리로 말을 적재적소에 잘 구사하셨다. 그분에게서 ‘유도탄’이라는 말을 난생처음 들었다. “저기 저 비봉산(인제의 앞산) 너머 화전 발머리 초가집 부엌 솔뚜껑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있다. 여기서는 그 파리가 보일 리 없지. 그러나 유도탄을 발사하면 그 파리를 명중시킬 수 있다.” 유도탄의 기능처럼 학생들의 마음도 어찌 그리 잘 꿰뚫어 보시던지. 덩달아 그분의 별명도 ‘유도탄’. 말년에 서화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우리 동기생들 몇몇이 조출하나마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다. 최선문 선생님. 판서가 일목요연. 대신 설명은 좀 길게 하시는 편, 그럴 때는 입맛을 다셔가며 멀쩡한 한쪽 다리를 심하게 흔드셨다. 여지없이 ‘흔들이’ 선생님이 되셨다.

전입해 오신 지 얼마 안 된 여자 음악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 성함은 조행자. 수업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어떤 학생이 출입문에 기대있다가 조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얼떨결에 ‘행자 온다’라고 소리쳤다(아마 여선생님이라 좀 어리광을 부린 듯?). 조 선생님이 입실하여 교단에 섰고 그 첫마디 말씀이 ‘그래, 행자 왔다. 왜?’ 그 후로 그분의 별명은 ‘행자씨’

3학년 때 만난 영어 선생님, 작은 키에 얼굴이 희고 둥글며, 배가 볼록하게 나온 분. 선생님 앞에 호출당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양파 벗기듯 착착 따지시면 결국에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가는 피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분께 드린 별명은 ‘다마내기(양파의 방언). 매사에 철두철미하신 선생님을 향한 투정이 아니었는지.

한 학기 동안, 중3 세계사를 교감 선생님이 가르치셨다. 큰 몸집에 배가 나오고, 주름진 넓은 얼굴이 맘씨 좋은 짜장면집 사장님 같은 분이셨다.

존함은 주식훈, 중국 송나라 편, 두 번째 시간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입실 하시자마자, 느닷없이 “그래서, 조광윤이는…” 하고 톤을 올리셨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를 향해 씨 웃으셨다. 그러나 그 웃음 하나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왕서방’이란 별명을 드렸으니, 그 수업의 기발했던 도입과정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작품이건만, 재미있게 가르치시던 교감 선생님이 그립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욱 별명이 난폭해졌다. 1학년 때 체육 선생님. 쏘다리지만 상체가 딱 벌어지고 당당하신 체격. 권투를 하셨단다. 선배들의 소문에 의하면 밤골목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셨다고. 그래서 별명이 ‘깡패’.

3학년 당시 생물 선생님, 멀리 경기도 수원에서 휴양차 우리 학교에 오셨단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도시 사람 같은데는 한 군데도 없고, 말씨조차 그러하여 학생들은 매정하게도 ‘촌놈’이란 별명을 드렸다. 선생님은 당신의 별명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수업 후 퇴실하시는 얼굴엔 늘 그늘이 드리웠다. 또 한 분, 교감 선생님. 공민 과목을 담당하셨다. 상당한 실력과, 능변에다 세심하며 유난히 정신집중을 강조하셨다. 뒷짐을 짊고 교실 한쪽을 응시하며, 강의하실 때면, ‘끼레니’(접속사 ‘그래서’의 강릉 사투리)를 시도 때도 없이 쓴다는 이유로 ‘끼레니’선생님이 되셨다. 이분의 조카도 우리 반이었는데 우린 그 친구의 면전에서선 차마 별명을 부르진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 선생님.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면 ‘K군번(육이오 때 대학 학도병 군번)은 살아있다’ 이야기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1소대장 헨리 C 캠프 소위. 참호 안, KENT 담배를 문 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유령처럼 밀려오는 적을 향해 45구경 권총을 빼들고. 빵~ 빵~사격을 하더군. 권총만으로 적 17명을 사살한 거야. 미국 웨스트 포인트 정규 육사 출신이 다르긴 달라.” 그분은 무슨 탐정 암호 같은 ‘K’란 별명을 지니셔야 했다.

별명이란 참 묘한 매력이 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은 잊히질 않는다. 당시엔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학창의 추억마차에는 한 편의 영화처럼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늘 실려 온다.

새삼스레 이은상 님의 시, ‘스승과 제자’가 떠오른다.

또 한 고개 높은 재 넘어
 낭떠러지 길가에 앉아
 고달픈 다리를 쉬노랄 제
 뒤에서 돌격대처럼 달려와
 ‘선생님’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껴안은 병정 한 사람

반가와라 이게 누군고
 군인이 된 나의 제자
 길목 지키는 파수병으로
 이 깊은 산협에서 만나보다니
 두 손목
 서로 붙들고
 어루만지다 이야기하다

산협길 멀고 험하고
 해조차 뉘엿이 기울건마는
 차마 서로 못 나뉘어
 손목을 놓았다 잡았다
 헤어져
 산모퉁이 돌 때까지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제21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2022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제 5 장

백일장 입상작품

제21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명단

상 급	성 명	제 목	비고
대 상	정진운	산책길의 회상	
장 원	문혜정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김경희	대지의 신 가이아	
차 상	박예진	자연과 우리의 약속	
	이명숙	인제, 그리고 내린천	
	신유환	빛소리	
	임창선	내린천 연가	
차 하	김효숙	내린천 연가	
	유은아	향기로 쓰는 편지	
	박애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명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강미숙	내린천 연가	
	이유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장 려	박혜료	어머니, 솔직해지고 싶어요	
	김정진	빛소리	
	원석화	엄마는	
	최은희	감나무	
	박유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최혜란	엄마와 63년 만의 해후	
	안성숙	방태산 단풍나무 숲길에 깃든 약속	
	노혜숙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덕화	빛소리	
	석은옥	입안의 천국, 내린천	

심사위원

성 명	비고
이광복	심사위원장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이영춘	(사)한국문인협회 고문, 시인
남진원	(사)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장, 아동문학가
심봉순	소설가
이연희	(사)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 사무처장 시인

대상

산책길의 회상

정진윤

머칠 만에 아침 산책을 나갔다. 안갯속에 숨어 있던 풍경들이 내 걸음에 맞춰 다가온다. 입동이 지나고 소설을 바라보는 초겨울인데도 날씨는 봄 날처럼 푸근했다. 공원의 나무들도 단풍을 거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겨울 차림으로 서 있다. 안개가 걷히면서 밤새 공들여 빛은 이슬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곁에서 거미줄을 잡고 회전그네를 타는 잎이 아직 고운 빛이다.

오랜 친구처럼 익숙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빨갛게 익은 열매를 달고 있어야 할 산수유나무에서 희끗희끗한 알갱이 같은 게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연노랑 꽃망울이 트고 벌써 꽃이 피어 하얀 꽃술을 물고 있는 것도 있다. 우스개로 초겨울에 피는 봄꽃을 철부지라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검붉은 잎과 조글조글한 열매에 꽃까지 피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현장을 보면서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몇 해 전에 동창 모임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부친께서 군인이라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친구들과 정이 들만하면 전학을 가야 했고 서운해 하던 얼굴은 잊혀졌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닿는 친구를 통해서 모임 장소로 찾아왔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를 다녔지만 우리 학교를 다닐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고 했다. 힘들 때마다 떠오르고 보고 싶었다고 했다. 비록 짧은 기간 함께 했고 졸업도 못 했지만, 친구들이 허락해 준다면 앞으로 동창회에 나오고 싶다고 했다. 점심시간이면 후다닥 도시락 먹고 놀러 갔던 임금산과 뽕드장이라고 불리던 조종천이 그렇게 그리웠다고 했다.

여름이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뽕드장으로 갔다. 바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했고 온종일 물놀이를 하다 입술이 파래지고 배가 고파지면 집으로 갔다. 조종천은 언제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저녁 무렵이면 물고기들이 뛰어올라 은빛 비늘을 자랑했다. 장마가 지면 보트를 타고 건너다녔기 때문에 뽕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제방 위 나무판에 커다랗게 뽕드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서 있었다.

휴가철이면 친척들이 몰려왔다. 맑은 물에서 놀다 그 물에 쌀 씻어 밥을 했다.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아이들은 달팽이를 잡았다. 과일도 물에 담가 놓고 먹었고 휴가 기간 내내 그 물에서 놀았다. 남친 따라 놀러와서 불을 피우고 구워 먹던 고기 맛에 반했다. 남친의 매일 맛있는 고기 먹게 해준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지금도 가끔 신랑이 좋아 결혼한 게 아니라 맛있는 고기가 좋아서 결혼했다는 놀림을 받기도 한다.

이젠 그것도 다 아득한 옛날이 되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뽕드장에 물이 없다. 개울 바닥에 잡초가 무성하더니 갈대숲이 되고 버들숲이 되면서 섬이 되었다. 물이 없어 바닥을 드러내는 조종천엔 이제 휴가 손님들도 찾지 않게 되었다.

몇 해 전, 만해마을로 해서 백담사로 문학기행을 갔다. 언제나 그렇듯 차가 한 굽이를 돌 때마다 환성을 지른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백담계곡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계곡을 미끄러지는 맑은 못은 그야말로 맑은 물로 이루어진 담(淡)이 백 개나 되어 백담계곡이라 불린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서울에서 집에 올 때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던 은하수처럼 맑게 흐르던 조종천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아는 체를 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옥 같은 물에 손을 적시고 싶은 충동을 안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길을 달려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다. 수심교에 이르러 수많은

은 돌탑에 또 한 번 놀랐다. 그 많은 탑과 그 돌탑마다 깃든 간절한 소원과 고개가 숙여진다. 나도 돌을 하나 올리며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노력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물길 백 리 조종천의 푸른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단순히 비가 적게 와서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생활용수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고도 한다. 상류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이 많아졌으니 그것도 이유가 된다. 거기에 몇 군데나 되는 골프장이며 생수 공장도 큰 몫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남의 탓으로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함에 길들여진 나를 발견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를 기를 때 밖에 나갈 때도 천 기저귀를 가지고 다니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았다. 국을 끓일 때 국 국물도 많이 잡지 않았다. 버려지는 국물을 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강사의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한동안 내 마음을 점거하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고 그걸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 물을 물로 보면서 아끼지 않았다. 양치질을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한다. 종이컵을 쓰고 생수는 미래자원이라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며 생수도 먹지 않고 보리, 옥수수, 결명자, 등글레를 번갈아 끓여 먹던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갈 때 물병도 준비하지 않는다. 어찌다 컵라면을 먹거나 빈펫병도 행구지 않고 버리면서도 무감각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다와 비닐을 먹고 숨지는 바다 생물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은 며칠 가지 않아 증발했다. 무심하게 변한 나를 본다.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오른다. 몇 년 후면 해수면보다 낮아 전 국토가 물에 잠겨 사라지고 말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투발루의 위기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는 날이 올 것

이다. 기꺼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며 더불어 살면
있고 있던 친구가 찾아오듯 윤슬이 반짝이던 조종천의 맑은 물과 반딧불
이도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푸드득, 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어준다. 트랙을 달리
는 젊은이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마음속으로 축복한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대면 봉투에 오물을 담은 연인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 작은 평화
가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장원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문혜정

생각만 해도 가슴 먹먹해지는 이름, 엄마!

명줄 다 채우지 못하시고 스스로 길을 뜨셔야했던 어머니. 3월 이른 추위에 밖에서 보내셨던 몇 시간 속에서 손과 발이 얼어서 피부가 자주색으로 변했다. 그 무거웠던 짐을 지고 버티시며 묵묵히 가신 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내 발길 닿는 곳 마다 이정표가 되어 주시고 가르침으로 키워 주셨다.

생활 능력 없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밤낮으로 일귀서 일으키신 삶으로 오남매는 부족함 없이 살아 갈 수 있었다. 자식이 원하면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주실 만큼 자식들이 엄마의 생애 전부였는데 자식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도망을 가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에 잠 못 든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잘 키우시고 지켜 내셨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 어머니께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 못난 자식은 시 공부하러 간다며 그 병원 옆을 지나 다녔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흰 천에 덮여 계셨다. 그렇게 이승의 꽃두럭 사이를 건너, 건너가신 시간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하늘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까마득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고통의 시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동안 못해 드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 앞에서 용서 빌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어머니 믿고 가실 저승 뚝단배는 그리운 이름 부르며 아득히 멀어져 갔다.

베옷 한 벌 걸치시고 휘이 휘이 가신 그 길에는 얼음같은 구름 한 조각 흘러갔다.

따뜻한 봄 햇살이 꽃자리 내어준 어느 날, 4월의 강물은 어머니 싁고 멀리 멀리 떠나갔다.

어머니 가신 그 하늘 강가에는 오늘도 노을이 상형문자로 걸려 흔들렸다. 그 하늘에 길이 있다면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지요.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 그때 다시 만나요.

장원

대지의 신 가이아 -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경희

어머니
오늘도 예전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세월과
어머니의 빛과 노동의 눈물이
가을로 들어선 나의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의 뜰에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낳아놓은 문명과
자본의 손자들 덕에 피로가 쌓인 지금
당신의 가슴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을까요

쏟아져 내리는 포탄의 폭력 앞에서
거대한 코카콜라 공장 사이에서
수만 년 세월이 잘려 나간 열대우림에서
아직도 버티어 내고 계신 어머니

곧 다가올 겨울
더해 가는 상처의 통증 위로
함박눈이라도 내려 덮이면
위로가 될까요

차상

자연과 우리의 약속

박예진

“더 이상 물은 공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박○○님 가정의 물소비량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꿈에서 물 대란이 일어났다. 아직 미혼인 내가 미래의 어느 날,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처치 곤란한 각종 환경쓰레기들로 인해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고,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염을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세제를 비롯한 음료수와 식재료는 담을 수 있는 용기(容器)가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에 미터기를 달아 제한을 두었으며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물은 공급되지 않았다.

‘편리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들의 대부분이 제한되었고, 우리는 자연을 아프게 한 죄로 다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담아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던 비닐봉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비닐봉지 사용은 법적으로 금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필수품처럼 가져갔고,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구매할 때도 빈 용기에 쓸 만큼 구매하여 담아왔다. 빈손으로 마트에 가도 새 제품을 담거나 비닐봉지에 담아오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 돼지고기나 생선을 사더라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거나, 샴푸와 린스조차도 공병을 가져가 ml로 담은 만큼 결제를 하게 되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제한된 물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엔 각 가정에서 쓴 만큼 수도요금 고지서가 청구되었지만, 이제는 정화된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 정해진 공급량을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했다.

지혜롭게 절약하여 사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는 양이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가령,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변기에 버려뒀다가 대소

변을 볼 때 사용하면 괜찮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세수를 한 물도 바로 버리기 일쑤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물 내리기에만 바빴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는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밀가루를 써서 행구는 물을 아꼈고, 쌀을 씻은 물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빨래를 행구고 남은 맑은 물로 다시 걸레를 빨고 변기에 사용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매달 1일 새로 미터기에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비상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남편의 출근길에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야 하는데, 수도꼭지의 미터기가 이미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 봐도 물은 나올 기미가 안보였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그간 비상금처럼 모아뒀던 쌀뜨물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뒤 출근을 하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 흙먼지에 범벅이 된 아이들을 씻길 물이 없었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쌀 씻을 물과 식재료를 씻을 물이 없었다. 아이들은 멀뚱하게 엄마인 나만 바라보다가 보채기 시작했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며 우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이건 안돼. 이렇게 살 순 없어!! 제발 물 좀 평평 쓰게 해주세요! 그동안 자연에 대한 고마움 없이 지낸 거, 정말 반성하고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할게요! 자연을 지키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약속 한다구!!”

“예진아. 어서 일어나. 뭘 약속한다는 거야?”

엄마는 분주하게 청소를 하시며 나를 깨우셨다.

“엄마, 우리 집 수도에 미터기 얼마나 남았어?”

“수도꼭지에 누가 미터기를 달아? 자다 일어나서 무슨 황당한 소리를”

비록 꿈속에서의 일이었지만, 나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잠에서 깬 뒤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굴을 꼬집어보니 다행히 꿈이었다. 나는 얼른 욕실로 달려가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틀어보았다. 꿈속의 상황과는 달리 냉·온수가 평평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물이 잘

나온다는 사실과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사용하다가도 꿈에서의 상황처럼 ‘수도꼭지를 틀었으나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상황은 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반문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공기가 없다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을 사용하다가도 정작 물 부족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많은 불편함을 겪으며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꿈속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체험한 뒤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이다.

손쉽게 쓸 수 있다는 1회용품과, 편리함의 이름으로 다가온 물티슈를 비롯한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사용을 멀리하고, 매번 귀찮다고 여겨졌던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욱 앞장서게 되었다. 간혹 생수나 음료의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버려둔 재활용품을 볼 때마다 직접 라벨을 제거하기도 하고, 엄마의 심부름으로 돼지고기를 사러가거나 생선을 사러갈 때도 담을 수 있는 용기(容器)를 들고 간다. 할아버지의 생신에 드릴 케이크를 사러갈 때도 넉넉한 포장용기를 들고가서 받아왔더니, 주인아저씨께서 ‘환경을 사랑하는 젊은이’라며 빵을 덩으로 주셨다.

자유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통해 아파 할 자연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리라.

더 이상 자연이 인간을 품어주지 못할 날이 곧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꿈속에서의 절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나 또한 자연과 약속을 지키고 싶다.

‘더 이상 자연이 아파하지 않도록, 오염속에 신음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줄게...’ 라고 말이다.

차상

인제, 그리고 내린천

이명숙

다람쥐다! 다람쥐! 다람쥐가 저렇게 크다구? 아니! 멧돼지야~~ 내린천 계곡을 달리던 봉고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한다. 멈춰선 차량 앞을 지나 도로 옆 우람한 바위에 올라서는 멧돼지!

150근은 족히 나갈 것 같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 서성이는 멧돼지 새끼들. 어미 멧돼지의 위협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린 듯 도사리고 있다. 우리 일행의 차량과 어미 멧돼지와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안심하고 길을 건너 산비탈 길을 오른다. 하나, 둘, 셋..., 여덟! 대가족이다.

온 가족이 모였음을 확인한 어미 멧돼지. 그 뒤를 새끼들이 올망졸망 줄지어 멧돼지 가족이 행진을 했다. 내린천 계곡을 찾아가던 우리 일행은 도심에선 마주할 수 없는 진풍경을 마주했다. 그 모습에 우리 일행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지만 감탄의 마음은 잠시였다. 산 속 어디든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널려 있는 도로를 가로 질러야 하는 멧돼지들이 걱정 되었다. 멧돼지 가족에겐 생사가 달려 있는 기로의 장면을 신기해서 하나 둘... 여덟. 멧돼지 새끼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던 내린천 계곡 현장. 말 못하는 동물가족에게 이 내 미안한 마음이다.

하늘 맞닿은 산봉우리에 흘러내리는 구름과 설악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 머무는 내린천, 나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 나뭇잎이 물에 녹아 청록색, 자연의 모습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린천 계곡. 시시각각 물줄기마다 물감을 뿌린 듯 그림을 그리는 계곡은 그야말로 온갖 자연을 머금은 충천연 예술이다.

굽이굽이 소리치며 빠른 물줄기를 따라 일렁이는 돌과 바위를 피해 급물살로 흘러내려오다 커다란 바위에 쏙살같이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며 일으키는 물보라가 장관이다. 얼음 부서지듯 부서진 물보라 속 오색 무지개가 내린천 물속으로 신비롭게 빠져든다. 신비의 내린천을 흐르게 하기 까지 저 높고 험한 산세 속에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애환의 사연들이 있었을까?

산악지대의 기암 괴석과 내린천을 향한 크고 작은 계곡과 시냇물 속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풍광들. 전쟁과 해방,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봄에는 진달래를 피웠고 여름에는 삶에 지친 마음을 계곡에 풀어놓고 가을에는 파스텔을 수놓았고 겨울에는 자작나무를 그리며 노래하는 인제 그리고 내린천.

가난했던 시절 별목용으로 심었다던 자작나무 숲. 이제는 인제의 자랑이 되어 관광객을 맞이한다. 사시사철 겨울 눈 만큼이나 하얀 자작나무는 계절 따라 옷을 입고 찾는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밝고 숭고하리만치 깨끗한 자작나무. 곧은 원줄기 하얀 껍질과 가지, 잎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에 찾는 이들이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처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땅 인제, 내린천의 생명들이 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것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인제, 그리고 내린천을 아프게한다. 그 푸르던 숲은 태양광 사업으로 양지 바른 산 중턱이 누더기처럼 깎여 나갔다. 계속되는 개발로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과 살 곳을 잃어 간다.

우리가 마주했던 멧돼지 가족들. 이들도 안심하고 길을 건너 건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겁에 질린 채 철책선 너머에 오도카니서 있을 고라니. 가끔은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눈망울은 불안하다. 개발로 파헤쳐진 산등성이 진초록 나뭇잎이 생기를 잃어 간다.

그렇지만 인제, 그리고 내린천은 천혜의 모습을 간직하며 생명이 숨 쉬고 있다. 계곡마다 흐르는 물줄기의 향연과 멧돼지 가족들이 앞산과 뒷산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곳.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 더 이상 산이 파헤쳐 지고 내린천 도로를 횡단하던 멧돼지들에게 아픔이 없어야 한다.

면적의 9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하늘이 내려준 고장’ 천혜의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인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오색찬란한 자연의 숲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동물이 뛰어놀고 식물이 자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며 인제를 보존해야 한다. 인제 그리고 내린천을 사랑하고 간직하리라.

차상

빗소리

신유환

너를 깨운 건 빗줄기였을까
바람이었나
한 겹 감아 올라 미끄러지고
다시 자맥질하여 솟구치며
너의 하늘에 또 다른 광기를 들어 올려
한 겹 두 겹
산맥을 이룬다.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섬과 섬 사이의 밀도 높은 비애
통곡하며
통곡하며
투명한 미늘로 내려와 하나가 된다.

빗소리 그치고 바람도 숨죽이면
너와 나의 엉킨 눈빛
묵언으로 입맞춤하듯 장마는 끝나가고 있었다.

오랜 슬픔이 그친 자리에 비로소 하얀 별들이 내린다.

차상

내린천 연가

임창선

세상이라는 바람을 만나 정신 못 차리고
그 속에서 한동안 휘몰아치다가
문득 떠나고 싶을 때 너의 품에 안긴다

흐르는 너의 품에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스치는 풍경이 울먹이는 마음에 와 닿아
천천히 쓰다듬으며 서서히 물든다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못한 울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동안
몸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운다
-왜, 말을 못했을까?
자책하는 목소리가 물결 따라 요동친다

-당신 때문이야
목구멍에서 맴돌다 메아리로 숨어 버릴 때
너무 아프구나, 주먹 쥐고 심장을 친다
돌멩이에 부딪혀 아픈 울림으로 나는
비로소 정신 차려 갈 곳을 정한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아
오직 흐를 수밖에 없다 해도
너를 만난 인연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내린천 물 위에 수놓는다.

차상

내린천 연가

김효숙

아싸! 10,000원 벌었다!

13살의 어린 소녀에게 10,000원은 무척 큰돈이었다.

얼마를 줄 건지,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흥정하는 방법 따위를 어린 소녀는 몰랐다. 그냥 얼마냐고 묻는 피서객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온 대답이 10,000원 이었다.

동네 동생으로부터 하교 후에 놀이 삼아 잡은 다슬기를 지켜보던 피서객에게 팔아서 용돈을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여름이었고 동네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내린천 냇가에서 수영을 한창 즐길 때였다.

어! 나도 다슬기 잘 잡고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잘 하면 나도 다슬기를 팔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교 후에 그 동생과 함께 강으로 향했다.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었다,

30여 년 전 내가 어렸을 때 시골은 요즘처럼 제 눈에 맞는 형형색색의 물안경이 있을리 만무했고 다락에서 굴러다니던, 누가 썼던 것인지도 모르는, 줄이 없거나 잘 맞지도 않는 물안경과 30cm 정도 크기의 양파망을 가지고 강에 가면 준비 끝이다,

구불구불 논두렁을 지나고 드디어 강에 도착하면 이름 모를 풀떼기를 마치 봉숭아 물들일 때처럼 돌 위에서 짓이긴다. 그런 후 초록빛 물은 버리고 물 빠진 풀을 물안경 안쪽에 골고루 묻힌 후 물에 씻어내면 신기하게도 물안경 안쪽에 서리가 끼지 않았다,

준비가 끝난 나는 비장하게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가슴 정도의 깊이까지 물이 찼다면 이제 진짜 수영을 할 차례이다.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나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강의 건너편으로, 바위가 많은 쪽으로 건너가서 드디어 진정한 다슬기

잡기가 시작된다. 하류에서 시작된 다슬기 잡기는 내린천 상류로 올라가 강가에 있는 바위를 하나 둘 거쳐가며 끝이 난다,

다슬기는 낮에는 돌 밑에 뽕뽕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스멀스멀 돌 위나 돌 옆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다슬기를 잡으러 강으로 향하는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라 보통 해가 지고 있는 낮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잠수를 해서 다슬기를 잡는 것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기가 엄마 뱃속 양수에서 자유로이 놀듯이 나는 부드럽게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름 모를 풀로 잘 덮여진 물안경으로 보는 물속은 그야말로 다슬기 천국이었다, 물속 바위에 새카맣게 붙어 있는 다슬기를 볼 때는 너무 신나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정도였다.

나름 양심은 있었는지 작은 다슬기는 잡지 않고 큰 다슬기만 잡았다, 그렇게 두어 시간 정도 어둑해 질 때까지 물속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 거리고 나서야 양과망이 어느정도 채워졌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양과망을 귀한 보물 다루듯 잡고 가는 나를 피서객 아저씨가 잡아 세운 것이다.

“이거 네가 잡은 거니?”

“네”

“와~대단하다! 이거 아저씨한테 팔래?”

“.....”

“얼마주면 팔수 있어?”

“10,000원어요!”

녹음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듯 대답이 잘도 나왔다. 그러자 아저씨가 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10,000원을 넘죽 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이 너무 많다며 반만 가져가시겠다는 거다!

와!!!!!!

다슬기 잡이 1년 만에 그런 횡재는 처음이었다. 부랴부랴 아저씨한테 잡은 다슬기의 반을 드리고 혹시라도 양이 적은 것 같으니 더 달라고 다시 잡아 세울까봐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도착해서부터는 이제 엄마 차례였다. 내가 잡아 온 다슬기를 여러 번 빨래를 행구듯 물에 행군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다슬기를 넣은 다음 감칠맛이 우러나오도록 푹 끓

인다. 그렇게 한참을 끓인 후 마늘과 부추를 넣어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내심 뿌듯하던지!

그리고 내 노력으로 용돈을 벌었던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잊혀지지 않는 어린시절 기억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나에게 용돈벌이의 귀한 첫 경험을 하게 해준 것이 바로 내린천에서 다슬기를 잡은 것이다.

나의 고향은 강원도 인제이다. 여름이면 조용하던 시골은 내린천으로 휴가를 오는 피서객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다. 동네 사람들만 간간히 오가던 (지금으로 치자면 편의점 같은)오만 잡다한 것을 파는 만물가게는 여름 특수를 맞아 물건들을 이것저것 채우기 바빴다. 친인척들이 여름에 우리 집에 놀러라도 오면 내린천 흐르는 강가에 천막을 치고 하루나 이틀 천업을 했다. 커다란 솔에 닭을 삶고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일쫓은 여름이면 내린천에서 늘 있었던 일이었다.

어디 그뿐이던가! 초등학교 시절 여름에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너무 덥다 싶으면 놀기 적당한 수십의 내린천에 몸을 담그고 헤엄을 치며 놀던 일은 세월이 꽤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선하다.

한 때는 그런 내린천에 댐이 생긴다고 했었다. 댐이 건설 되면 우리 동네는 물에 잠기고 결국 실향민이 될 것이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어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반대 시위를 했고, 결국 댐 건설은 무효화 됐다. 댐 건설의 무효화가 확정 되던 그 날 동네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빠, 엄마,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 자신들의 힘으로 고향을 지켜 냈노라고 기뻐하시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나는 이제 결혼을 했고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40대 아줌마가 되었다. 결혼 전 지금의 남편과 함께 어릴 적 내가 놀던 내린천 강가를 데리고 간 적이 있다, 아직 내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고 호기롭게 양파망과 물안경을 준비해서 다슬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랜만에 해보는 터라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소녀로 돌아가 다슬기를 잡기 시작했고 작은 양파망의 3분의 1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

고 여전히 거기에 조용히 내린천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한다. 이제는 내린천에 가면 예전처럼 크고 투박한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캠핑용 텐트를 치고 검고 큰 술 대신 최신식의 캠핑 장비를 갖추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내린천 강물의 양도 많이 줄어서 잠수를 해서 다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나 종아리까지 오는 물에 허리를 숙이고 돌을 들쳐 내며 다슬기를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린천을 찾는 건 그곳을 반추하고 꺼내 볼 수 있는 추억들이 있어서 이며 이런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내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이다.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내린천이 있는 한 나의 추억은 계속 될 것이다.

아! 생각난 김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내린천으로 놀러 가자고 이야기나 해봐야겠다.

차하

향기로 쓰는 편지

유은아

기억은 늘 부고도 없이 떠납니다
손에 남았던 비누 향기가
완전히 증발하는 미지의 순간처럼
경계를 알 수 없는 것들의 무게에
어제가 떠밀려 멀어집니다
기원을 잊은 사소한 흉터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유기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바람을 타고 퍼지는 금목서의 향기가
어머니 숨결처럼 다가와 알려 줍니다
눈물의 속성을 느리게 익히다 보면
여명에 희석되는 가로등 불빛처럼
통증도 서서히 의미를 잃어갑니다
고향에 홀로 남았던 어머니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금목서 향기는
어떤 경계에서 사라지곤 했을까요

버려진다는 것은 때론 불순물 같아서
떠난 기억은 어디에도 섞이지 못합니다
아득한 소실점이 된 어머니 목소리가
상큼한 과일의 단내를 닮고
세탁을 막 끝낸 옷가지의 향기 같은
금목서로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는 동안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눈물이 흐릅니다
어릴 적 자주 녹여 먹던 사탕처럼
입 안 가득 맴도는 달콤한 그리움,
바람에 떠밀려 온 이야기가 잊히기 전에
답장은 어떤 향기로 해야 할까요

차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박애자

연둣빛으로 피어나던 날
황금열매를 만들자고
두 손 꼬옥 잡고 맹세했지요

그해 여름
잔인한 태풍이
허리를 꺾을 때 까지
악착같이 광합성을 견뎌냈지요

반신불수로 살아온 날들,
결실을 거두려면 아직 인데
낙엽 되어 바스락거리고
앙상한 줄기는 부서지고 있군요

억지로 주사기를 꽂아
수액을 밀어 넣어 보지만
바늘이 자꾸만 밀려 나오네요

가녀린 숨을
바람에 의지한 채
하얀 눈을 기다려 봅니다.

차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명래

당신은 그를 만나
내 생애의 그늘 깊은 내력이 되었다

내가 슬퍼지면
당신은 흘러내리는 물살에 순간을 비비며
겨울바람처럼 숨을 쉬고

내가 출렁거리면
우화 같은 당신이 곱씹어 간 시간들
깊은 밤에 날리는 눈발처럼 출렁거렸다

눈발 출렁거리는 밤
당신의 거친 숨소리
타들어 가는 듯 피어나고

불어오는 강바람에
가난한 씨앗들은
텅 빈 당신의 갈비뼈에
문신 같은 발자국을 새겼다

알전구에 쨍여가는 달빛은
각진 천장에 우두커니 물구나로 서 있고

꽃비 같은 당신의 내력 별빛이 되어
우수수 쏟아져 내린다

물기 젖은 바람 소리 줄린 눈 부비며
먼동은 터 오고
안개 같은 허공의 떨림 심장 박동으로 훑날리는데

눈 속에 깎아지른 당신의 사막같은 육신
저 혼자 뜨겁다

웅진 어깨 위에 가득 실린 밥알들이
튼 살 속으로 숨어들고
바람의 정령 같은 질문들은 화석처럼 뜨겁다

다시 시작되는 하루를 허락한 당신
뜨거운 당신의 발뒤꿈치가 하루를 연다.

차하

내린천 연가

강미숙

1.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게 어디 있나
섞여서 내리다 보면 부딪쳐 찢겨져도
끝내는 어머니처럼 받아주는 품이다

세월은 바빠 흘러 상처가 없으랴만
슬프거나 기쁘거나 굶이치는 흰 길이라
오늘이 마지막인양 힘껏 가꿔 가는 것

2.

길 가다 길을 잃고 흘러온 길 찾는다
세상의 모든 길은 만만한 틈도 없어
여울목 하늘 내린천에서 등짐 지고 선 오늘

유유히 흘러가도 생의 끈 물고 있다
굽이굽이 들과 고을 갈증을 풀어주고
온전히 허물을 행귀 천록청산 떠받든다

차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이유정

엄마는 나의 집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뱃속에 집을 짓고 나를 품어주셨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는 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지어 주시곤 엄마는 엄마가 받은 그 귀한 이름을 뒤로한 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되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는 자신의 품속의 집에서 엄마가 살던 집을 나에게 내어주었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엄마의 것을 나에게 내어주었고, 나는 엄마의 집에서 당연하다는 듯 엄마의 것을 누리며 살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끼고 포기하며 그렇게 엄마가 되어갔지만 엄마는 한 번도 내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도 아까워하지도 않았다.

내가 자라면서 어느덧 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참 이기적이었다. 엄마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도 나는 참 몰랐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참으로도 몰랐었다. 엄마의 세상을 뒤로한 채 나는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스스로가 알아서 컸다는 자만심으로 가득해 엄마를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세상이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성인이 되었다. 처음으로 주어진 나의 세상에 온갖 자유가 주어졌지만 책임감이 뒤따랐다. 그 책임의

무게감이 자유를 누릴수록 무거워질 즈음에 엄마의 세상이 다시금 떠올랐다. 다시 돌아간 엄마의 세상은 예전 그대로였다. 엄마는 언제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남긴 세상의 모습이 여전하게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딱 하나, 엄마의 모습 빼고는.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을까.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게 시간의 흔적을 타고 박혔을까. 나의 기억엔 여전히 까만 머리에 뒤통지 싹싹하게 해내던 엄마였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내색을 비추시고 아파하시느라 문득 낮설고 크게 다가왔다. 엄마가 나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동안 엄마의 세상은 조금씩 세월에 빛바래져 가는구나. 엄마가 문득 차를 타고 가며 하던 말이 떠오른다. 겉만 이렇지 마음 속 영혼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라던. 그때부터였을까. 엄마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한 순간, 엄마의 세상이 벌써부터 그리워진다.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보고싶다. 엄마가 없는 집은 과연 집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엄마가 없는 그 집이 내게 고향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엄마, 자녀 이름 뒤에 붙여, 아이가 딸린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엄마가 내게 이름을 붙여주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은 잊혀져 갔던 그 시간을, 엄마의 집을, 나는 내가 또 다른 엄마가 되어도 기억할 것이다. 엄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장려

어머니, 솔직해지고 싶어요

박혜료

내 감정의 찌꺼기가 한 번 휘저은 오수(汚水)처럼 올라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시간. 외면했던 감정,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른다. 이 감정들은 어릴 때 샘 곁에 젖혀두었던 구정물과도 같다. 겉으로 보기에 는 맑았다. 하지만 막대기를 들어 한 번 휘저으면 그 속에 있던 찌꺼기가 다 올라왔다. 나의 감정은 고인물이 되고 있었다.

형제들 앞에 늘 못난이처럼 겉으로 떠돌았다. 함께 어울리지 못해 곁에 사시는 고모님을 더 따랐다. 그럴 때마다 고모는 외로운 나를 달래 주셨다. 나와는 다르게 언니는 엄마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늘 칭찬을 물어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 그에 비해 난 고집불통으로 통했다. 내가 부모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집을 피우는 일이었다. 그것을 부모님은 알 리가 없었다. 내가 말해 주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언니는 당당하다. 형부와 사별하고도 자신의 삶을 더욱 알차게 꾸려나가는 언니. 시니어 여행 자격증을 걸머쥐고 더욱 당당해진 언니 앞에 난 더 주눅이 들었다. 그리고 보험회사 이사로 복직한 동생. 함께 그 복직을 기뻐하면서도 한 킁으로 씩씩한 이 감정은 무얼까? 동생은 막내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일 이등을 놓치지 않는 동생 또한 늘 칭찬을 물어왔다. 그 칭찬이 난 몫시 부러웠다.

이러한 내게 한 번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네 동생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나로서 그의 거름이 돼 줘라”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왜 내가 거름이 되어야 해. 어머니는 늘 동생만 감싸주고 내 생각은 한

번도 안하잖아. 나보다 잘난 동생인데 내가 왜 그의 거름이 되어야 해...
나도 꿈이 있다구, 내 꿈 알기나 해..."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것일까? 오늘 밤도 나는 그 말이 아파 잠을 못 이룬다. 아니 거름이 되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생의 도움을 받는 내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꼬장꼬장했던 어머니의 허리가 호미자루처럼 휘어졌다. 막내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농사를 지어서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의 궁여지책이었다. 그때부터 식당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매일 고기를 썰고 설거지를 하면서 허리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허리가 뒤틀리면서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집념이었다.

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소원이었다. 양반집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으로 시집온 것이 한이 되셨다. 그래서 막내아들을 통해서라도 옛 가문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10년이었다. 10년이 지난 다음 남겨진 흔적은 어머니의 뒤틀린 허리다. 나는 굽어진 허리를 볼 때마다 동생이 미웠다.

그렇게 키웠던 동생이 실직하고 떠돌 때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미어졌을까?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다. 늘 가슴에 불씨를 안고 사셨다. 그 충격으로 말까지 잃었다. 마치 실어증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랬던 어머니가 동생의 복직 소식을 듣고 박꽃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그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 곁에서 왜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걸까? 이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은 이기심인가?

“어머니, 저도 겨울 별 같은 감정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여행도 시켜드리는 당당한 딸이 되고 싶어요. 아무리 휘저어도 더 이상 찌꺼기가 올라오지 않는 맑은 연못 하나, 가슴에 출렁이며 살고 싶어요, 어머니”

장려

빗소리

김정진

누군가 나를 깨운다
똑똑 투두둑
알람이 되어 준 너의 외침에
고맙다는 인사는 뒤로 하고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해본다

남편이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이다
휴게소에서 단잠 자는 당신을 깨울까봐
애꿎은 통화 버튼만 바라본다

날 깨워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 신랑은 깨우지 말아다오

하늘에 내 기도가 닿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린다.

장려

엄마는

원석화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우리 딸, 하고
당신이 정답게 물을 때
나는 미처 묻지 못하여
오래 묻고 살았던 말입니다

당신이 나고 자란
가난한 대골 어귀에서
상냥히 무릎을 굽히고
가느다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우리 딸, 하고
머리 쓸어준 이가 있었나요

가엾은 동생들 아래 있어
여식이란 굴레 안에 있어
모름지기 떨쳤나요
애써 두고 돌아섰나요

나이가 쉬이 차고
세월은 갈가리 흩어짐에
당신과 가까워지고
어느덧 바빠 멀어짐에

당신이 묻힌 비탈밭에서
새끼 참새 하얗게 날아올라
쫄쫄히 묻는 것인데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장려

감나무

최은희

잎 떨어진 가지의 선이 곱다
붉은 눈물이 그렇그렁, 그렇
매달려 있다

가을이면
노모의 손이 바쁘다 바빠,
껍질 벗겨 쫄득함을 매달고
항아리에 침 담구어
뽕은 맛이 달콤하다

높은 가지 끝의 그리움 몇 덩이는
날짐승에 먹여
타향으로 소식 전해다오

찬바람 시린이로
달달함을 한 입에 베어물으니
그리움도 꿀꺽 넘어간다.

장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엄마처럼 살게요」

박유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엄마 셋째 딸의 43번째 생일입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유난을 떨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엄마의 딸은 아기처럼 생일 케익에 초를 부치고 생일파티를 했지요.

저를 똑 닮은 제 딸이 호들갑 떨며, 할머니에게 서프라이즈라며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내 생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선물을 주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 낳아주셨으니까 아빠가 준비한거예요. 얼른 열어보세요.”

선물 포장을 뜯는 엄마 옆에서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놓칠세라 핸드폰 카메라를 고정한 채, 그 모습을 담습니다.

“이게 다 뭐야. 고서방”

“엄마, 이거 금팔찌야. 고서방이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한거야.”

“금값도 비싼데, 이런 걸 왜 나한테 사줘. 악세사리도 잘 안하고 다니는 구만...”

엄마는 선물 받은 금팔찌를 팔에 차보면서 엄마한테 쓸데없는 돈을 썼다며 나무라셨지요. 철딱서니 없는 셋째 딸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 잘 보관하고 있어. 엄마 죽으면 내가 가져갈꺼니까...”

말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그래그래” 했지요.

엄마, 미안해요.

그 팔찌가 지금 제 팔에서 반짝 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44번째 생

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팔찌 갖췄다는 얘기 안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도 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한 번 썬은 쪽 보내고 싶었던 편지를 이를 악물고 용기 내어 써 보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엄마한테 했던 안부 인사, 그리고 삶의 투정들...

이제는 그것을 받아 줄 사람이 없어, 말도 꺼내지 못해 제 마음에 켜켜이 쌓여 가슴 한 칸이 저러울 지경입니다.

‘엄마...’ 오늘따라 인제의 가을 하늘이 청명하네요. 한동안은 엄마 생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 일부러 하늘을 외면하기도 했어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오늘은 용기 내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구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자기들의 모습을 뽐내나 봐요. 내 눈에는 저쪽에 길고 아름답게 뻗은 천사 날개 모양의 구름에 자꾸 눈이 갑니다. 엄마 날개 같아요.

하늘에서 행복한 미소 머금고 있을 온화한 얼굴의 엄마를 상상하면서, 또다시 마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정...’ 언제나 따뜻하고 평안했던 곳. 축복과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 공간은 이제 늙은 아비 혼자 남겨있는 공간이 되어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숨긴 채 아비는 딸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엄마의 그림자가 되어주시고, 딸은 아내 없는 아비의 외로움을 알기에 그 허전함이 걱정되어 처한 각자의 형편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남자 혼자 살아서 냄새 난다’. ‘더럽다’ 는 말 듣지 않으려고 당신의 남편 재을씨는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빠는 오늘도 아침 일찍 마루공원에 출근도장을 찍습니다. 지난번 내

생일에 엄마한테 선물한 꽃바구니가 다른 사람의 꽃바구니에 가려지는 건 아닌가? 매일 그곳에서 엄마의 공간을 정리하고, 그 곳 앞마당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텀블러에 한가득 담아온 블랙커피를 마시며, ‘그렵다’ 말 대신 쓰디쓴 커피 한 모금으로 대신합니다. 아빠는 가끔 엄마를 꿈속에서라도 좀 만나고 싶다며 투정하세요. 엄마의 잔소리마저 그렵다며...

아침저녁으로 동네 산책길을 걸으며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을 곱씹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아빠의 한숨 속에 묻어납니다. 그 그리움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까요? 엄마와의 이별이 아픈 모든 이들... 그 아픔 스스로 견뎌야 할 몫이기에 그 아픔을 대신 해 줄 수 없음이 때로는 더 가슴이 아프고 먹먹 하네요. 나 혼자만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면 제가 다 감당하고 싶을 만큼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의 아들 딸들, 10명의 손주들까지... 각자가 엄마를 그리워 하며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니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엄마,

엄마의 온기를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꿈속에서나마 엄마를 볼 수 있음이 감사해요. 어느 날은 꿈속에서 만난 엄마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금새 안개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은 꿈 속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쥐어짜듯 생각해내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여러번...

그렇게라도 엄마를 느끼며 그 날 하루는 그 따뜻함 속에 살아가죠.

어느 날은 꿈을 꾸다가 평평 울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평생을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말했다가 언니들하고 다툼이 생겨 쓴소리를 들었네요. 엄마의 셋째 딸로, 막내 딸로 그냥 허용되었던 어리광 그리고 내 철없는 행동과 말투... 그렇지만 이제는 그 어리광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꿈속에서 호되게 당했지 뭐예요. 슬펐어요. 그리고 속상해서 평평 울었어요. 내 어리광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울었어요.

이제 엄마가 내 곁에 없어서 저는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하나 봐요. 엄마

앞에서는 마냥 아이였는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 저는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하나봐요.

“하나님은 좋겠다! 우리엄마 데려가서...”

차디찬 공기가 가득한 작은 병실에서 엄마의 퉁퉁 부은 얼굴과 이미 차가워진 손을 꼭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청얼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 좋으시겠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엄마. 엄마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우리 엄마...당신처럼요. 떠나도 기억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고싶다, 그립다, 하는 사람...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람, 바로 엄마예요.

많은 사람들과 엄마를 추억했어요. 엄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훌륭한 삶을 사셨더군요. 엄마가 내 엄마인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마냥 철없이 어리광을 피우던 막내딸이 이제야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왜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내 가슴까지 아립니다.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알려준 그 마음...

그들이 먼저 겪었고, 또 내가 겪은 이별의 슬픔과 고통, 그 슬픔에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게요. 긴 시간 동안 아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엄마가 내 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엄마에게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격리 기간 동안 크게 어려움 없이 쫓쫓이 잘 이겨내 주셔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이렇게 엄마의 삶을 아니,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의 죽음과 바꾼 내 삶의 가치관!

이렇게 큰 수업료를 내면서까지 저를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도 철없는 각쟁이 아줌마로 44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한심스러우셨나요? 그토록 소중했던 내 엄마와의 이별을 경험해야 비로소 깨닫는 삶의 배움들...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엄마, 나 엄마처럼 살게. 엄마, 고마워, 고 서방과 아이들이랑 엄마가 물려준 신앙 지키면서 잘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축복해요.”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합니다.

엄마를 보내고, 엄마를 추억하며 엄마의 삶을 되돌아보니, 엄마처럼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감히 엄마처럼 살겠노라 다짐해버렸네요.

엄마,

엄마가 삶 속에서 보여주신 이웃사랑과 섬김의 마음들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실천들... 엄마처럼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마음으로, 작은 행동으로 엄마처럼 사는 연습을 해봅니다.

먼 훗 날, 엄마를 만난 그때는 철없는 마흔네 살 셋째 딸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의 성품을 똑 닮아, 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성숙한 엄마 딸이 되어 만나고 싶어요. 엄마와의 이별이 여전히 슬프지만 황망한 이별, 헛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모습을 통해 깨달아갑니다.

엄마,

너무나 부르고 싶었던 내 엄마. 엄마를 떠나보내고 내 모든 일상 모든 시간을 나누고 싶어 연필을 끄적이길 여러 번... 때로는 슬픔에 잠기는게 싫어서 일부러 외면했던 여러 날... 오늘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꼭 참고 용기 내어 적어 내려갑니다.

엄마,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참 감사하고, 엄마가 내 엄마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엄마와 헤어진지 169일째
가슴깊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막내딸이 보냅니다.

장려

엄마와 63년 만의 해후

최혜란

친정 오라버니의 전화를 받았다. 의견을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일일이 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신다. 부모님들의 묘를 파묘하려고 하는데, 나의 생각을 물어보신다. 연세 드시고 조카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 결단을 내리신 듯...

그 날부터 나의 마음은 울컥! 울컥! 주체 할 수 없는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린다. 내 어머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드디어 파묘 하는 날, 한 분 뿐인 고모, 언니와 함께 산소에 도착하니 벌써 조부모님과 아버지는 파묘된 상태이고 나를 낳아놓고 그날로 소천하신 내 어머니, 내 엄마의 묘를 파묘하고 있었다. 나는 서슴없이 파헤쳐진 무덤으로 들어섰다. 뼈가 시리게 그리워하던 엄마! 63세 된 딸은 머리에 잔 서리, 무서리 내려앉은 초로의 모습으로 60년도 더 된 유골은 유골이랄 것도 없이 삭고 삭은 두개골과 어느 육신의 뼈 조각인지도 모르는 몇 개의 뼈 조각과 마주했다. 그리고는 엄마의 어느 육신의 뼈인지도 모르는 뼈 한 조각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담으며 “나도 엄마 만져봤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서둘러 묘에서 올라왔다. 평생 가슴속에 얹혀 있던 바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다.

엄마!

엄마는 나를 낳아 놓고 무엇이 바쁘셔서 젖 한 모금, 눈 맞춤 한 번 없이 정월의 찬바람 맞으며 핏덩이 육 남매를 남겨 놓고 그리도 멀고 먼 길을 가셨는지요. 그렇게 가시는 길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의 힘든 발

걸음만큼 남겨진 나의 인생길도 힘들었습니다.

나를 키워준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도 참 버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히 흘러 모두 한 세월 잘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셨을 두 오빠와 또 남겨진 형제 자매들 엄마 만나러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자녀로 잘 살겠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큼 낳아주셔서 감사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려

방태산 단풍나무 숲길에 깃든 약속

안성숙

마무리는 그리움으로 물든다.

한여름 햇빛과 마주했던 나뭇잎들이 자기의 색을 찾아 물들고 있다. 나무들 모두가 푸름 속에 자신을 묻은 채 여름을 보냈다. 지금 최선을 다한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색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 왔는지도 모른다. 노랑으로 분홍으로 갈색으로 따듯하게 물든 가을산은 그리움을 듬뿍 담은 자신의 색으로 반짝이고 있다.

10월 5일. 올해도 어김없이 방태산 휴양림을 찾았다. 그리움이 가득 담긴 단풍잎이 되어 나는 숲길에 섰다. 30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함께 했던 당신. 오늘은 당신이 없어서 더 붉은빛으로 켜는지도 모른다. 30년 지기 친구가 된 단풍나무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다. 등을 기대고 설만큼 넉넉한 품을 하고 있다. 당신과 함께 찍은 뒷모습의 사진에선 늘 당신 등이 나보다 작아 보였다. 나를 덩치 큰 여자로 만든다고 투정을 부렸던 기억을 떠올린다. 단풍나무에 등을 기대며 당신에게 기대었던 포근함을 느낀다. 늘 몸보다 마음이 컸던 당신이었다.

30년 전 오늘 나는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방태산을 찾았다. 마음을 막 열어가던 시기였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했다. 사랑해도 좋을 사람이라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방태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눈을 감고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었다. 열어 둔 차창으로 스며드는 숲 내음에 심호흡을 하였다. 아주 천천히 흔들림 없이 운전하는 당신의 배려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당신이 안내한 이단폭포는 우렁찼다. 비 온 뒤의 폭포라 더욱 힘이 넘치고 있었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당신은 어김없이 위치를 정해주며 사진을 찍었다. 당신이 찍은 사진에선 늘 내가 돋보였다. 강한 폭포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멀찌감치 서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느낌의 사진이었

다. 당신은 폭포의 동영상을 찍으며 춤지 않느냐고 했다. 대답 대신 나는 당신 손을 내 옷 속으로 넣어주었다. 내가 직접 폭포와 마주한 건 이단 폭포가 처음이었다. 이단폭포는 가슴을 시원하게 울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였다.

폭포를 돌아 위쪽으로 올라가자 숲길이 나타났다. 30년 전의 단풍나무는 숲 터널을 만들고 있었지만 여리고 가늘었다. 그 길을 손잡고 걸었다. 숲길 중간에 만난 개울가에서 맑고 깨끗한 물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어디로 그리 바빠 가시느냐고 묻는 당신의 모습에서 소년이 보였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흐름을 만든다면 맑고 곱게 흐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풍나무 숲길을 돌아 내려오는 길에 숲 터널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다. 주로 나를 찍어주었기 때문에 함께 찍은 사진이 별로 없었다. 당신은 삼각대를 세웠다. 추웠던지 휴지로 콧물을 닦은 당신은 배낭에서 봉지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내 앞으로 온 당신에게 셀프타이머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철없이 핀잔을 주고 있었다. 그때 당신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깜짝 놀란 내게 주머니의 봉지 속에서 꺼낸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였다. 거기에는 내가 준 반지와 당신이 준비한 반지가 다정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엉겁결에 내가 주었던 반지를 당신에게 끼워주었다.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다.

“이 플래티늄 반지처럼 변함없이,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함으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숲이 보내는 축복의 박수 속에서 반지 낀 손을 잡고 입맞춤하였다. 우리는 그날 방태산과도 약속을 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 장소는 기억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준 방태산 단풍나무 숲길도 사랑으로 지켜가자고 했다. 단풍나무 숲길을 향해 당신은 기도하듯 말했다.

“오늘 증인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 매년 10월 5일을 기념하여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훼손된 일은 없는지 매년 확인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사랑의 증인으로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랑도 곱게 가꾸어가겠습니다. 단풍나무 숲길 당신을 위한 사랑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당신은 내게도 다짐하듯 물었다.

“당신도 매년 함께 할 거지!”

나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은 그렇게 맺은 약속을 꾸준히 지켰다. 매년 이단폭포의 우렁찬 소리는 변함없는지, 단풍나무 숲길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우리의 안부도 전했다. 이단폭포도 단풍나무 숲길도 건재함으로 반겨주었다.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다.

당신 없이 찾아온 오늘, 이단폭포도 단풍나무 숲길도 왜 혼자냐고 묻지 않는다. 이단폭포는 우렁우렁 깊은 울음을 참고, 단풍나무 숲길은 흐느끼듯 가지를 부비고 있다. 모두 나를 위로하고 있다. 30년을 함께 한 방태산 이단폭포와 단풍나무 숲길과의 약속이 당신과 나와 숲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움으로 물든 이 가을, 이단폭포와 단풍나무 숲길과 인사를 나눈다. 고맙다! 고맙다!

장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노혜숙

봄이면 앵두와 돌나물, 여름이면 고추와 가지, 가을이면 맛있는 과일, 김치와 동치미. 사계절 내내 색동이었던 우리 집 밥상은 책상도 되고, 그림 공부도 되는 책방 겸 그림 방이었지. 산과 밭뿐이었던 강원도 어린 시절은 밭에서 농사지은 싱싱한 채소뿐이었고, 1970년대 시절 먹거리는 빈곤한 밥상이었지만 푸성귀 뿐인 반찬이라도 누구 하나 예쁜 밥상 앞에 투정한 번 부린 적 없었고 아기자기한 색깔들은 눈으로 보기도 전 순식간에 없어졌지. 반찬 하나라도 예쁘게 구색 맞춰 접시에 담는 엄마의 밥상은 멋진 수채화였고, 정물화였지.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은 나는 엄마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지. 엄마는 나를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고, 공부는 못했지만 맹모삼천지교는 각별했었지. 아픈 딸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간과할 수 없었고, 교육에 있어서 환경을 중요시했지.

엄마는 학창시절 내내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도시락을 갖다 주었어. 감자밥에 감자 수제비, 감자조림, 학창시절 나의 별명은 감자였지.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난 매일 감자 반찬만 해주는 엄마가 안 왔으면 했어. 다시는 안 보고 싶고 지긋지긋했던 감자였지.

어느 날 매표소에서 감자떡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 그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감자떡과 옥수수를 팔아 손주들 학비를 대었어. 그때 엄마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아픈 딸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인 엄마를 창피하다고 제발 학교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고 미워했는지, 지금도 미안할 때가 있어. 교실 창밖으로 내가 밥 먹는 걸 보고 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엄마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철이 든 다음에야 알게 됐지.

꿀도 보기 싫고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것이라고 했던 그 흔했던 감자가 지

금은 식이섬유와 고혈압에 좋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을 엄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학교 올 때마다 예쁜 치마에 머리에는 알록달록한 무늬의 두건도 하고 왔어. 아픈 딸이 기죽을까 봐 그런 거야. 빨간색을 좋아하는 엄마는 나만 몰래 시장에 데리고 가 빨간 바지와 크레파스를 사줬지. 언니와 동생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는 아프면 안 되니까 공부하지 말고 심심하면 색칠 놀이나 해 그랬지. 엄마는 나를 제일 안 쓰러워했지.

그 시절은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던 때였지. 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시책사업으로 밀가루와 보리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시작됐지.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엄마는 우리를 위해 새마을 농촌지도소를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을 해주었지. 밥에 찌서 먹을 줄밖에 몰랐던 그 당시 엄마는 밀가루로 도너츠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 주었지. 처음으로 우리 짜장면이라는 걸 먹게 됐고, 입 주변에 묻은 짜장을 닦지도 않고 동네를 돌아다녔지. 그때는 짜장면이 최고급 음식인 줄 알았었거든.

“엄마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 엄마의 따뜻한 밥 덕분에 난 아직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참, 내가 엄마를 닮았는지 요리하는 걸 좋아해. 엄마가 아프면 난 조퇴를 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를 많이 도와서 그런가 봐. 그래서 엄마는 나를 더 예뻐했는지도 몰라.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반찬에도 색을 맞추고 있는 나를 보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사준 빨간 바지가 내게 감성으로 들어왔는지 색 맞추기도 잘하고 지금은 돌에, 기와에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엄마가 키가 작은 건 아마도 빨래를 매일 머리에 이고 다녀서 그럴 거야. 딸 넷에 아들 둘의 빨래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추운 겨울날,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뽕뽕 얼어붙은 빨래를 머리에 이고 들어오는 엄마의 무거운 어깨와 신발 끄는 소리는 아직도 눈물이 나. 그때 우리는 왜 엄마를 도와줄 생각을 못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혹사했는지 우리는 모두 천당은 못 갈 것 같아. 어떤 시인의 시처럼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지.

아직도 골목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면 엄마 생각이 나.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집에서 멀지 않는 곳, 근처 옥수수밭에서 옥수숫대 부러지는 소리가 나. 등허리가 굽었던 엄마. 옥수숫대 단물 빨아먹던 우린 골목 끝에서 빨래를 이고 오는 엄마의 등 줄기를 뺏속까지 빨아먹은 것이 아닌지 엄마 제사 때면 속이 상해 울기도 하지.

엄마는 우리에게 매일 얘기했지. 옥수수 알 같이 알 차거라. 감자 꽃처럼 순해라. 감자처럼 토실토실 살찌라.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살아라. 하늘만 보지 말고 땅속의 뿌리처럼 단단해라. 옥수수알 속에, 감자알 속에 박혀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은 얼마나 새기고 살고 있을까.

헌신적인 엄마의 사랑과 믿음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 밥은 둥그런 세상이었어. 우리 여섯 남매를 키우는 우리 집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겠지. 일상에서 보이는 엄마의 모든 행동이 인성으로 묻어났지. 엄마의 삶 자체로도 우리는 저절로 배운 것이 아닌가 싶어. 우리가 내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 준 교육에 비하면 비교가 될까.

꼬깃꼬깃 금이 간 가족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엄마. 봉숭아 꽃잎 따서 빨간 손톱 물들여주던 그때의 기억들이 옷핀으로 집어 놓은 명찰처럼, 가슴 한복판에 달려져 있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고 있으니 옆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아 손을 내밀어 감처럼 말랑말랑하고 빨간 예쁜 볼을 가지고 있던 엄마를 만져보네.

사랑해 엄마.

2022. 11. 8 둘째 혜숙 올림

장려

빗소리

김덕화

예전에 빗소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은 감미로운 소리 같았다. 온난화로 가끔 지구촌에 뜻밖의 폭우가 쏟아 질 때도 난 무덤덤 무관심 했고 영혼 없는 안타까움이 다였다. 도시에 살던 나는 어릴 적 가뭄과 장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거의 없었다. 그저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인공처럼 빗물 고인 거리에서 “singin in the rain”을 흥얼거리며 탭댄스를 멋지게 추고 싶은 생각을 한 것도 나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낭만적인 것에 가까웠다. 점점 지구의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 대홍수가 발생 할 것이라는 예측과 국지성폭우에 대한 염려는 매일 아침 교통방송을 듣는 것만큼 일상적인 반복에 불과한 것이었다. 2006년 인제에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끔찍한 그날은 토요일!

오전에 잠시 불일 보러 나간 인제읍에서 발이 묶여 집에도 못 오고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 지었던 기억이 난다. 전화도 불통이었으며 산사태로 길도 성한 곳이 없었고 우리 밭도, 이웃들 밭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전국의 적십자와 봉사단체들이 앞 다투어 인제로 몰려와 컷고 기업과 개개인의 성금도 이어졌다. 그래서 인제군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차이는 있지만 잘 잊어버린다. 또한 천재지변이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들도 있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이 시대에도 말이다.

한창 친환경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1회용 컵을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개인 텀블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과하고 넘쳐 본래의 취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일본보다 한참이나 뒤진 재활용 분류시스템은 이제라도 비닐 포장 없는 생수가 나왔으며, 병에 비닐 제거

도 수월해졌다. 도시보다 인식의 변화 속도가 늦은 농촌은 역시나 어르신들의 변화가 쉽지 않다. 맘 카페를 통해 비닐 재활용 분류 등 홍보를 해봤던 적이 있는 나는 열심히 분류를 했음에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치워지고 있는 비닐쓰레기에 대해 군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한 적이 있다. 답변은 비닐처리업체에서 양이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오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난감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원래처럼 분류 안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지역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분명 교육은 사람을 변화 시킨다. 앞으로 우리는 숨 쉬듯 환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끔찍한 수해 피해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무섭고 두려운 빗소리가 아니라 그 옛날 느꼈던 낭만적인 빗소리로 다시 들리게 되지 않을까!

장려

입안의 천국 내린천

석은옥

내린천의 민물고기
내입안은 천국이네
육각형의 수정광택
은백색의 날씬몸매
피라미가 노닐구나

물기탁탁 피라미를
팬에휘휘 돌려내고
기름바싹 구워내어
고춧가루 솔솔뿌려
진간장과 매실청에
물엿한술 마늘후추
청양고추 올려내니
도리뱅뱅 완성이다

생긴것이 험상궂나
내장빼내 씻어내고
칼집넣어 굵은소금
팍팍뿌려 한상구운
꺼지구이 일품이네
내입안에 꽃이피네

머리크고 눈이큰놈
갈겨니를 보자꾸나
피라미와 비슷한놈
갈겨니론 뭘먹을까
후추소금 밀간하고
밀가루로 조물조물
식용유를 넉넉하게
바삭하게 구워본다
이소리는 빗소리가
튀겨지는 갈겨닌가

빠각빠각 빠가사리
동자개는 어떠한가
입가에는 4개수염
머리보면 고양이네
무를끓게 깍둑썰어
웬김치를 깔아주고
고춧가루 솔솔뿌려
동자개 김치점에
밥두공기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어진다

내린천을 훑다보니
피라미, 꺾지,
갈겨니, 동자개가
입안에서 펄떡펄떡
누치, 통가리, 메기야
너희들도 만나보자
내린천은 천국이네
내입안의 천국이네
입안에서 꽃이피네
입안에서 춤을추네

2022 청소년평화생명백일장

입상자명단

상급	성명	소속학교	비고
대상	조현서	인제초등학교 6학년	
장원	박민경	원통중학교 3학년	
	이루리	기린초등학교 3학년	
차상	이다엘	원통중학교 3학년	
	심 현	인제초등학교 5학년	
	김가빈	부평초등학교 4학년	
	김재민	기린초등학교 4학년	
차하	조은서	인제초등학교 6학년	
	한유빈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이강찬	인제초등학교 6학년	
	이한중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김도담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김다솜	원통중학교 3학년	
	전지연	기린중학교 3학년	
	장지원	기린초등학교 4학년	
장려	김병연	속초 청대초등학교 6학년	
	장동환	기린중학교 3학년	
	김준섭	홍천중학교 3학년	
	박지애	어론초등학교 5학년	
	박가애	어론초등학교 3학년	
	이가희	부평초등학교 4학년	
	김윤건	인제초등학교 5학년	
	한아영	인제초등학교 6학년	
	김찬근	원통중학교 3학년	
	정연지	기린중학교 3학년	

대상

전 세계를 당당하게 호령하는 호랑이

인제초등학교 6학년 조현서

우리 한반도는 뗏에 걸려있다.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이 어떤 동물과 닮았냐고 물어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이 호랑이는 허리를 조르는 올무에 걸려 앞발과 뒷발이 따로 놓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복 후 주변 강대국들 때문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한반도 호랑이는 힘이 없었다.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고, 광복 후 몸통이 반으로 나뉘어져 한국과 북한은 앞발과 뒷발로 서로를 할퀴며 생채기를 내고 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 모두 잠자리에 들시간이지만, 어젯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조별리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보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5천백만의 응원이 카타르에 다달았을까? 우리는 포르투갈을 2:1로 이기고 당당히 전세계 16위 안에 들어갔다. TV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선수들과 응원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다. 나는 축구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와 당당히 승부를 겨뤘 16강에 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문득 5천백만의 힘이 이정도인데, 남북이 하나로 뭉쳐진 7천7백만의 힘은 얼마나 대단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단의 올무에서 풀려나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뛰어오를 한반도 호랑이의 힘 말이다.

우리나라는 축구 실력만큼 전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도체, 가전제품 같은 초일류 상품들, BTS, 한국 드라마, 스포츠, 한식 등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대국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 둘씩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강대국들과의 힘겨루기,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발전이 더뎠다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

장 똑똑하고 성실하며,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7천7백만이 된다는 것은 내수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고, 노동력도 증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국토도 넓어진다. 넓어진 국토의 대략 80%에는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각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 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 확산으로 생긴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문화 발전을 이루며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시던 문화대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뒤편에 걸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 강대국들에 의해 울무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숨통을 조여오는 울무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한다.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닌 7천 7백만 겨레 스스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분단의 울무를 벗어버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장원

꿈에 한반도

원통중학교 3학년 박민경

누군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돈’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 질문을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입을 여셨다.

“오색가지의 단풍이 물든 가을에 할아버지랑 둘이 금강산에 단풍 구경 가는 게 평생 소원이다”

북한에 있는 그 금강산? 열여섯인 나에게 북한이란 상상속의 동물인 용과 비슷한 존재다. 하지만 용은 말 그대로 상상 속의 동물이고 북한은 우리나라 옆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현재 21세기인 지금 책이나 만화에서는 볼 수 있고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용’처럼 교과서나 TV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지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나는 북한과 남한을 보면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떠오른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다. 남한과 북한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대감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은가. 그 아름다운 사랑은 메마른 땅이었던 한반도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고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다른 나라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어져 한반도를 지켜나갔다는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결국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견우와 직녀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까마귀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북한과 남한 또한 오랜 분단으로 인해 깊어진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한반도도 풀아질 때로 풀아진 오해를 풀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한반도의 눈부신 미래와 꿈을 상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어줄 까마귀가 되어 줄 것이다.

통일이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통일이 곧 먼 미래가 아닌 얼마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분단으로 인해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한 집에 살며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게 당연해지고, 38선은 지워지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목숨을 바쳐 바다를 수영해 탈북하고, 어린아이가 탄광에서 노동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지는 그 날을 기다린다.

장원

나의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소원

기린초등학교 3학년 이루리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만약 이루어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들이다. 유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신나는 나의 소원, 지금 말해보고 싶다.

첫 번째 나의 소원은 ‘순간이동 능력’을 갖는 것이다. 수많은 초능력 중에서 나는 이 능력을 가장 갖고 싶었다. 왜 항상 순간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째, 숨바꼭질을 할 때 요긴할 것 같다. 만약 순간이동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된다면, 숨바꼭질을 하는 친구들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친구들이 나를 찾으려 할 때, 집에서 천천히 나와서 마치 숨어 있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이다.

둘째, 순간이동 능력은 추운 겨울에 집으로 걸어갈 때 무척 좋을 것 같다. “집으로 가라, 얍!”하는 신호와 함께 집으로 “뿡!” 가게 된다면, 그것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갔었는데 한 번은 온몸이 얼어버릴 것처럼 너무 추웠던 적이 있었다. 그때 정말 절실하게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셋째, 나는 순간이동 능력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따끈한 우동을 먹으러 일본에 잠깐 다녀오고, 미국 디즈니랜드에도 순식간에 이동해서 하루 종일 놀다 오고 싶다.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두 번째 나의 소원은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버스를 타는 것보다 빨리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 버스보다 빨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다. 만약 매우 빠르게 하늘을 날게 된다면 정말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인지 나는 하늘을 나는 꿈도 많이 꾸었다.

마지막 나의 소원은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시간을 돌리는 마법! 이것을 바라던 이유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또는 누군가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이 능력은 좋을 것 같다.

둘째,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계속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탔던 놀이기구를 시간을 반복해서 계속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꿈속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껏 상상하고 꿈꿔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용기 내어 말해보고 싶다.

나의 특별한 소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한 소원!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나의 상상 속에서는 자주 이루어졌으니, 보기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기도 하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지금도 벌써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많이 행복하다.

차상

행복한 배달

원통중학교 3학년 이다엘

어른들의
넘쳐나는 눈물 한 병과
잊혀가는 기억들
빼곡이 담아놓은
편지 한 보따리
등에 었습니다

가는 길에
네것 내것
작은 민들레
양손 한 송이씩
꼭 쥐어 쥐고

이걸 받아 주는
북의 동무의 미소
어떤 빛깔일까
콧노래 흥얼거리며
머릿속에 예쁜 그림
그려봅니다.

차상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인제초등학교 5학년 심 현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6.25전쟁으로 70년 이상 분단되어있던 우리나라가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이상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전쟁도, 이산가족도 더는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본래 한민족이었던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지만, 나의 소원인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 등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노력하며 통일을 위해 드는 비용들을 서로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통일안보 의식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일도 분단국가 였지만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 동독과 서독을 드나들 수 있었으며 동독과 서독의 뉴스도 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지금은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다시 실시하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 할 것이고 나의 소원인 이산가족 상봉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차상

내 소원은 통일

부평초등학교 4학년 김가빈

도덕 시간에 통일과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배웠다.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금강산도 갈 수 있었고, 개성공단에서 물건도 만들었다고 한다. 남과 북이 함께 만화영화도 만들고, 국어학자들이 협력해 우리 말을 담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 만나왔다고도 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 떼를 싣고 가는 영상은 무척 감동스러웠다. ‘코리아’라는 영화에서 남과 북이 한 팀으로 탁구대회에 나가 중국을 꺾고 우승을 하는 장면에서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박수를 쳤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개회식과 폐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여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남과 북이 사이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쏘고 있어서 무섭고 두렵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인 상태라고 한다.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도 구경할 수 있고, 북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통일이 되지 않았다.

나는 통일 말고 다른 소원이 없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차상

나의 소원

기린초등학교 4학년 김재민

오늘도 우리 반은 체육 수업을 한 시간 밖에 하지 않았다. 아니, 오늘은 오히려 좋은 날이다. 체육 수업은 보통 일주일에 세 번 밖에 하지 않는다. 불행한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두 번만 체육 수업이 있었다. 선생님이 체육 수업이 싫은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는 체육 수업이 싫은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체육 수업은 늘 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역시, 열심히 뛰어놀던 유치원 때가 좋았다.

나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별거 없다.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소원이다.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루어줄 수 있는 나의 소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소원은 선생님이 하루에 두 번씩 체육 수업을 하는 것이다. 수학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다. 국어는 그나마 읽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재미있다. 영어는 게임을 해서 재미있고, 사회는 나름대로 흥미진진해서 시간이 빨리 가서 좋다. 미술은 그림을 그려서 좋고, 도덕은 우리가 왜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잘 알려주어서 재미있다. 음악 시간? 노래를 듣고, 악기도 다룬다. 당연히 재미있다. 점심시간에는 밥도 먹지, 쉬는 시간도 엄청 많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체육 수업은 어떠한가?

... 아주 좋다.

체육 시간에는 머리도 많이 안 쓰니까 좋다. 몸을 쓰는 활동을 하니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달리기를 해도, 피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뽀름을 넘어도 그 나름의 재미가 쏠쏠해서 좋다. 이렇게 좋은데, 이걸 하루에 두 번씩 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도 안 간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일주일에 두 번만 체육 수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수학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이다. 이번 주에는 네 번이다. 수학은 머리 쓰고, 몸은 쓰지도 않는다.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삼각형도 배우고, 사각형도 배우는데 다 재미가 너무 없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또 남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수학 시간은 정말 많다. 이번 주도 네 시간 초과이다.

나의 소원, 체육 수업을 많이 하고 싶다. 머리 좀 그만 쓰고 싶다.

차하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통일 한국

인제초등학교 6학년 조은서

안녕하세요, 북한에 사는 언니, 오빠들. 저는 남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조은서 라고 합니다. 북한의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저는 북한에 관심이 많고 사회에, 지구촌에 관심이 많기에 북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북한에 계신 언니, 오빠들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아마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통제와 억압이 좀 지나치기 때문이지요. 저는 누군가의 통제와 억압을 받으면서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탈북하려면 950만원이 필요하단데,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야하고, 우리나라로 와야 하니까요. 저는 북한에서는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현재까지 북한에서 생활 중인 언니, 오빠들이 정말 대단 한 것 같아요.

또한 북한 언니, 오빠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을 거예요. 유치원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 이런 것을 배우니 어른이 되어서는 김정은이라도 보면 감격의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겠죠. 전 처음에는 그 광경을 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언니, 오빠들도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군을 괴뢰군과 같이 배워서, 현재 나라 수가 203개인데 북한이 조사한 대한민국 남한의 행복 지수는 153위로 결과를 내놓았어요.

지금은 정말 북한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과 통일 한국이 되어 같이 북한 친구와 공부하고, 평양에 있는 평양냉면도 먹어보고, 백두산도 함께 가보는 게 소원이예요.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제가 제일 바라는 소원 중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철광석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값싸고 질 좋은 철광물질을 만들 수 있고, 영토가 넓어지며 이웃나라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어요. 얼른 통일 한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차하

2분의 1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한유빈

우리나라는 2분의 1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습니다.
 본래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오순도순 살았던 우리가
 2분의 1이 되었고
 사이좋았던 형제도
 2분의 1로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휴전선이 마음의 벽이 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2분의 1과 2분의 1이 다시 만나
 텅빈 가슴이
 하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차하

통일이 왜 필요할까?

인제초등학교 6학년 이강찬

“나의 소원은 통일이요.” 그러자 A가 말했습니다. “통일 굳이 해야 됴?” B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민족이잖아.” 이렇듯 통일에 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역사적으로도 필수불가결적이니까요. 소련과 미국이 4년씩 통치한 뒤, 반드시 통일이 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하면 국방의 의무를 없애고, 국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국방비를 줄이면 그 예산을 여러 곳에 투자해 국민 복지를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해 전력난, 발전소 가동, 철강제품 수출 등 여러 일을 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활용해 취업, 관광사업 등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산가족 분들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하

바다 한 가운데의 쓰레기 섬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이한중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는 편한 친구
일회용품

우리에게는 편한 친구지만
이 편한 일회용품이
재앙이 되기도 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섬.
그 섬은
일회용품으로 만들어졌고
바다의 7%에서 25%로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쓰레기 섬은
바다생물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바다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과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지구를 위해서.

차하

자연에게 주는 우리의 편지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김도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게
‘아픔’이라는 부메랑을 날려
자연은 더 아파할거야.
자연이 아프면
지진과 홍수로 우리에게 아프다고 말해.
그 부메랑은 우리한테로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 이제는
자연에게 ‘선물’이라는 부메랑을 날려보는게 어떨까?
이 부메랑을 만드는 것은 간단해
분리수거를 잘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거야.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
자연은 기뻐할거야.
그리고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 알지?

차하

잃어버린 퍼즐조각

원통중학교 3학년 김다솜

한 퍼즐 두 조각
잃어버린 한 조각

한 조각 찾지 못해
맞추지 못한다

한 조각만 맞추면
하나의 나라가 완성된다

잃어버린 하나의 퍼즐조각
완성되기만 기다린다.

차하

북한 친구들에게

기린중학교 3학년 전지연

인터넷에서 북한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
북한은 정말 자유가 없구나 싶었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어찌된게 아이가 더 어른스러웠다.
글씨가 네모난 원고지 칸에
반듯하게 간혀있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 아이들의 모습 같았다.

차하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나의 바람

기린초등학교 4학년 장지원

안녕하세요. 날씨가 맑고 시원한 11월 입니다. 북쪽의 11월은 여기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지요? 약간의 걱정과 안부를 물으며 편지를 써요. 이 편지는 열한 살 아이가 북쪽에 있는 십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곧 올해가 지나가면 저는 열두 살, 5학년이 되네요. 2023년을 생각하니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들과 바람이 떠올랐어요. 그 중 하나, 가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반도 통일이었어요.

물론, 통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달라질 모습들 때문에 통일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좋은 점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인 통일의 장점을 말하고 싶어요.

첫째, 통일이 되면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더 좋게 성장할 것 같아요. 북쪽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쌀농사 짓기에 좋지 않지만, 남쪽에서 농사지은 식량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갈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우리의 스포츠 능력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남쪽의 에이스와 북쪽의 에이스가 한 팀이 되어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영화 ‘코리아’에서 나온 것처럼 깊은 감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함께 경기를 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도 있겠지요.

셋째, 우리처럼 많은 어린 사람들이 더욱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가 합쳐지고 다양해지면 그 문화를 경험하는 젊은 우리들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친구들과 체진역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북한의 문화를 배웠는데 매우 흥미진진했어요. 통일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 멋진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더욱 멋진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넷째,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해 질 거예요. 지금은 휴전 중이라서 군사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 진다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군대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이러한 나의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의 이 바람은 지금 나의 생각처럼 북쪽에 있는 십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생각이겠지요? 같은 생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다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바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더욱 날씨가 쌀쌀해지고, 눈이 찾아오겠지요. 다가오는 겨울도 춥겠지만, 우리 모두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월동 준비를 해서 ‘슬기로운 겨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나의 바람도 봄바람을 타고 창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려

우리의 약속

속초 청대초등학교 6학년 김병연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바다에게 푸른빛을 지키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숲에게 싱그러운 나무를 지켜주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게 시원한 바람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깼어요

바다는 이수라장이 돼버렸고
숲은 황폐해 졌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어요

끝내
우리의 자연은 사라질지 몰라요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더 이상은 안돼요
이제는 안돼요

장려

옆집 이웃

기린중학교 3학년 장동환

나는 너의 옆집 이웃.
가깝지만 너무나도 먼
옆집 이웃.

만날 수 있을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긴
옆집 이웃.

장려

들어봐, 세상의 소리를

홍천중학교 3학년 김준섭

친구여, 북한의 소리가 들리는가?
미사일을 쏘는 공포의 소리를
굶주림, 노동 착취로 메마른 통곡 소리를

친구여,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만들어 보세
평화와 사랑으로 희망을 여는 소리로
기쁨과 환호가 있는 축제의 노랫소리로

장려

북한에 살고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어론초등학교 5학년 박지애

안녕! 나는 남한에 살고 있는 박지애라고 해. 나는 지금 5학년이야. 내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우연히 나눠준 안내장으로 인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사실 나는 북한에 사는 친구들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야. 이번에 너희가 사는 북한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게 되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의 생활 모습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였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온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에 운동장에 모여 사상충화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 학생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가면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을 비난하는 것이던데 난 정말 너무 놀랐어. 만일 나였더라면 나는 버티지 못하고 울어버렸을 거야. 얼마 전 뉴스에서는 남한 영화를 보았다고 청소년을 죽였다는 기사가 나왔어. 정말 너무 놀랐어. 너희가 북한에서 살고 싶어서 북한에 살고 있고 내가 남한에서 살고 싶어서 남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고 생각해!!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서 통일이 쉽게 이루어 질 순 없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통일이 되면 서로의 문화와 자원이 섞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이 될 것 같아. 정말 꿈만 같아.

사실 오늘 새벽 남한은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했어.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4대1로 졌어. 4년 후에 월드컵이 또 열린대. 그때는 남한과 북한이 다른 팀이 아닌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때는 우리 함께 만나서 응원하자. 난 우리가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어른들에게 전해져 마음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꼭 만날 수 있길 소망하며 이 편지를 보낼게. 안녕 나의 북한친구들~♥

2022년 12월
남한의 친구 지애 씀

장려

언니가 되고 싶어

어론초등학교 3학년 박가애

학교 다녀와서 자랑하며
책가방에서 꺼낸 100점짜리 시험지
부러워 죽겠네

나도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싸움도 잘하는 우리 언니
알미워 죽겠네

흥얼흥얼 노래도 잘 부르는 우리 언니
나도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보드도 스케이트도
왜 맨날 나보다 잘 타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나도 언니 같은 언니가 되고 싶다
뭐부터 해야 하지?
공부? 운동? 아 아니다

동생부터 낳아 달라고 해야지~

장려

북한 청소년에게

부평초등학교 4학년 이가희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사는 11살 이가희라고 해요.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북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덕 시간에 북한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북한 사람들도 저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탈북 청소년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았는데, 남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소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오해한 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남한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 때 평양냉면도 함께 등재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어요. 얼마나 뿌리 깊은 음식인지 알 수 있었지요. 저도 꼭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도덕 시간에 북한 말 맞히기 활동을 했는데, 같은 한글을 쓰는데도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언어도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북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통일을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해 볼게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려

나의 소원

인제초등학교 5학년 김윤건

저의 소원은 북한과 통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통일하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지면 더욱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산가족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경쟁적인 도움도 됩니다. 북한과 통일하면 돈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증가해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하면 북한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땅이 더 넓어지며 게다가 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생각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죽는 사람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의견이 합쳐져 더욱 더 좋은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유산 등 유물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빨리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해 통일을 하면 인구가 더 많아져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져 좋아집니다. 그리고 통일하게 된다면 유럽쪽과 무역하기 편합니다. 북한은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우리의 기술력을 합하면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니 통일해야 합니다. 한민족끼리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하지 않게 되면 육지는 북한으로 인해 대륙으로 가지 못해 비행기 아니면 배로 가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면 얼마나 많이 좋을지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통일하게 해주세요.

장려

북한 청소년들에게

인제초등학교 6학년 한아영

안녕! 나는 한국 어딘가에 사는 한아영이라고 해. 반가워! 나는 나중에는 한 번 백두산의 멋진 풍경을 구경하고 싶어. 난 통일에 관심이 많아. 얼른 통일이 되어 북한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 올림픽에서 한국과 북한이 아닌 한나라로 불리는 모습도 보고 싶어. 통일이 되려면 서로 힘들겠지만, 성과를 보면 지난 고난들이 다 잊혀질 거야. 너희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난 너무 기뻐.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도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해보자.

내가 신기한 사실을 알려줄게!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에 가면 망원경으로 북한산이 보여.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보니 북한산이더라고. 기분이 좀 신기했어. 감탄사도 나왔는데, 기분이 우울하기도 했어. 통일하면 이런 기분일까? 기쁘데, 슬픈 느낌... 말로 설명하기엔 아직 어려운 것 같아. 북한 어린이들이 합창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잘하더라! 직관으로도 보고 싶어! 나중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서울에 가 봐! 롯데월드를 추천할게. 롯데월드는 놀이공원인데 정말 환상적이야. 특히 퍼레이드가 진짜 멋있어!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에도 롯데월드가 있어. 거기는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정말 멋있는 것들이 많아! 북한은 어때? 북한도 멋진 것들이 많겠지? 사실 우리집은 증조할아버지 친척분들이 북한분들이시거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랑 같은 나이인 친구들 졸업 축하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행운을 주고 싶었거든.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직접 만나서 전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 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편지를 통해 통일의 거리를 좁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내 편지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런 편지들이 수 천 편이 모이면 그때 통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 시선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믿어.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전에 한국과 북한이 한 팀이 되어 탁구 경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금메달을 땀다고 하더라고. 응원가로 아리랑이 나왔대.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 하나의 팀이 되어 경기를 했다는 것도 믿기질 않는데, 우승을 했다니 기적같은 일인 것 같아. 선수분들도 너무 뜻 깊은 경기일 것 같아.

사실 나는 좀 편견이 있었어. 난 너희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지금보면 반성해야 할 편견이라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는 전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북한과 남한 밖에 없대. 난 이 사실을 알고 좀 놀랐어. 분단국가가 많을 줄 알았거든. 어른들은 북한의 안 좋은 점만 보고 통일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도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런 이상한 편견을 가지게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물론 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 통일이 된다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지금까지 지루한 내 긴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 편지 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나중에 꼭 만나길 바라. 안녕!

장려

우리는

원통중학교 3학년 김찬근

우리는 원한다
함께 있는 우리를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

어느 날부터
남이 되어버린 우리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게
익숙해진 우리

이젠 휴전선을 넘어
함께 있는 우리를

같은 땅에 살며
행복해하는 우리를

어느 날부터 다시
한민족이 되어버린 우리를

서로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진 우리를

나는 원한다
우리는 원한다
함께 있는 우리를

장려

통일

기린중학교 3학년 정연지

그 선을 넘어서
그대를 만나러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한참을 기다려
그대를 만나러 갈테니
부디 기다려주시오.

언젠간 을 넘어
그대를 마주 할 테니
꼭 기다려주시오.



제26회 인제서회임서전

2022년 5월 27일(금)~ 29일(일)

인제문화원 전시관

출품자 명단

권옥자	김 향	김옥남	김옥화	김인중	김희수
민시홍	박정옥	사하정	서경숙	서성호	서자영
심종기	우성옥	원연화	유영희	유지영	이나경
이명재	이상오	임규현	전영옥	정숙자	조덕증
조현태	최옥매	최은희	한길용	한순자	한주림
홍연숙	황청호				

(이상 32명)

제 6 장

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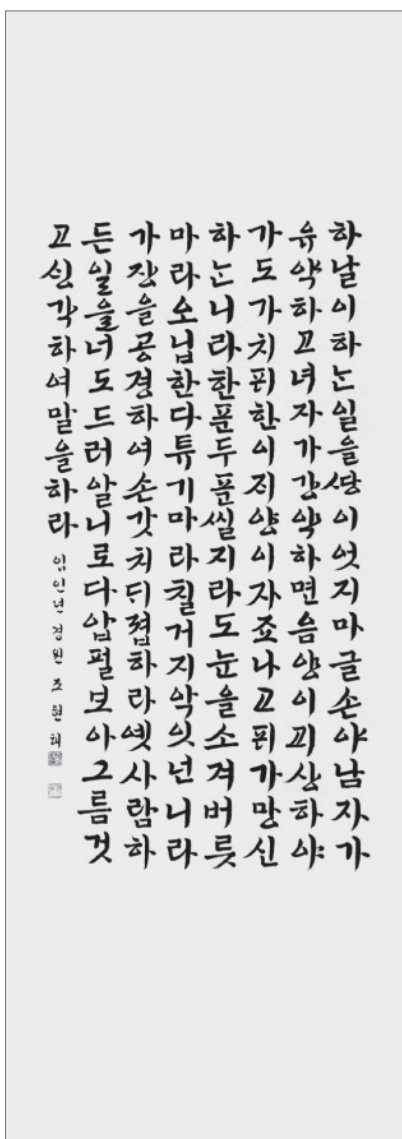
청학 뒤사련되는
 가첩동중향성은
 비로봉을돌봄이
 님외금강주산이좌
 이런귀경못한사람
 사사목을나갈제
 곧이날여가서
 반쪽등을돌너잇고
 마하연이슈팅이화
 중향성을돌너신나
 구를박게노사잇고
 석양이잠시로다
 외사설후여잠고
 금강산가중에서쓰다

서현

청학은산비치명미향야천간을나사신인이스매를잇그향은산의오두막만해
 정리향야보물을위향은양취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이며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지어화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적이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의니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독사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비스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서현이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야의향은향

서현 이상오



경원 조현태

네 애일 꼭 두련스니 양도를 다스려 뉘런하의
밧겼다스 림을듯고 후년음단을 다스려 뉘런하
의안다스 림을듯한다 하느니라 의위를정하여 포
교 회일과 풍속이 아람답스니 그 리기로는 허섭
에 느리디아너도 현해다다스리느니라 담이 통
미로 뉘큰선업을통양양약우러 리성모이 순수
히나 만천이되 위시물나어 조 단단함(하)유(하)유

줄거두어가음매기버라치예된근근기나버려드려한각기성호의버려호호기거
 림물만히되어있어지어노화근근취논의세보기와오로브회정.의아비바
 가의기글로다근복세로취올나근살지근연호호바거림호근익게가리치기장호호
 나근비취나근복세어노코가시호호진작막아치시호호미업게호호근노로호호
 이근치안나호호성각호호비호호이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불나취다근근장호호마호호전거근근지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로취호호명호호지호호되어치호호취호호나근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시호호호호호호가호호의복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임인년부인차가사에처사다수련최옥매

수련 최옥매

덕광 황청호

뒤혜는만민을주요로하고민에게에
업단번게를하늘히뜻기시니뒤혜는
모든중신을피우고곧모새일을어
를하늘히뜻기시니천마리현머들
다들三十年天子어시니

유지영

佳寧 유지영

가히바과들니니못하를지니라동년니은자과섯년집의네수르두로온
전히하야왕과하매음죽여무르며관공히주선하야홍차와하물노
웃고말습하미하연혼야맛당의말하염죽하거든말하고맛당이형
하염죽하거든형하야며브절립수을타하음과브절립수그르다하은내
무에들게말을지니라어린계집이근부노못다아니하고몸슬말과
더러은말노남고어지이만민을피우고다말을지니바드러너스
드림권아노니하말혜아리만아세만식이가행지어다

수미현

서경숙

守美軒 서경숙

이것은 많은 단을 뒀나니 그 화후라 뵈되 나라의 사모가 빛을 보면
 더욱더 현난하여 귀에 의하여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고 이의가 의하여
 상을 내면 만안하야 이치 상을 나이나 몸의 해를 미라 만안하야 이치
 때만 중시정이를 화후에 이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의상을 화후에 이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시되 다아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이것이 이시년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만안하야 이치 상을 보리라

시우

구남성음은 사갈고한단시니 선하나비로하
 히리시니 선하호조물모리사보리리니리시
 선하미로하호조물모리사보리리니리시
 매보고로호조물모리사보리리니리시
 여보고로호조물모리사보리리니리시

임서전 보나
 시우 원연화

시우 원연화

리호부귀의게는프가화처의거능데를성괴의처한성능다독덕으로왕능으로공으로성능을
 고진하의도음호고빅성능고거자고신안능법능가르치고독축능치과고나더고거의사한
 들이어이이신정능은알되아비인정능을아지못고며극속와다름이어고주성의괴로고거고거
 을드더덕고거죽을입더니복희가흔인능데와천년복안능법능을이시다팔패를거어
 점쳐죽성사패를거어쳐런디신능을동능시나츠시의하속의처를마가하도물지고속통의
 처나오니팔패를거어시고통능을벼스일능을호고쳐제를지여저로능능청스를되신능과
 히는갑인의시작능다가최능능법능을지으니주성의가죽으로비를능나상인의능조빅으로
 아니능고극속피로능나후제남페가며거법능나다비로초안괴를지여거능고와를을된드나

이것이십이년백꽃이남바람의노꽃이되어능을거년능명사의함에서가터쓰아능연김옥화

■

나무라미타불극낙제기로남무라미타불천지나빛난휴의소람화상이러나쳐만물이삼게스나사람의쳐호잇는
 가여보시오시큐님너너말삼드러보오니제상의나는사람취득으로나려신가제불모살님의은덕으로이제상
 나와심나제불모살은은덕으로아번날괴세를타고어만님제살을비러초선님과영을타고제님외부를비려져가
 여뒤제도하야인심능신한심하너한우살의철을불나부모은공가를소아나삼신의당하여의옥당의고심사리부
 모은공가물소아정능과고의달을사부모은공리못가르무형세원아유파라원유박발드나나니간칠신고되히
 라음더말영정능노난다이팔청춘소선드라능근이웃자마라카먹고능어두니말영정함을보고구쳐니웃는상은
 정통하고이달을사할능업다후안박발능고지면못적두니엇지안니정통하리이간략제다사라도장든날병은날
 과극정근심한날다바리면단사심을다못사니어제날은정든몸이오날제역탄산갓던병이든니부르난너어면이요
 착난니능거로다인산능물막을쓰니약두나니불소아권복드러독검하를경능나나니불손아무쳐드려구설하를
 곳덕나나이불손근박이쳐되신코설이어말산되쳐가쳐죄탈복욕하고화탕의손발씨고상탕의마지하고홍불
 을도고케고랑노랑함갓호능고소지삼잔을닌후의비난이다나하날님셔비난나다칠성님제발원하고부쳐님
 서품한들어더쳐보아감동할고쳐년지광등외제니에호광되왕제삼음제되왕제사의오관되왕

임서전

송연 김옥화

일흠이표른스.과예표흥.야전흥.야이제그디니를식후싱.이맛당이
 벉홀지니또흥.히어려온거시아니니라.대일은절을직희기온들
 재는무르고곳은미니또일이이셔집에이시매.귀문의나디말며.손이이셔
 문에잇거든.성음을드려나디말을지니스스.말을나르디말며.음난
 흥노리를드디말고.희흥.년에와.니흥.를제.축.빌을.자.념.며.드.빌을.만.스.흥.지
 니.어.두.온.가.온.대.출.일.반.흥.문.계.집.의.덕.덕.호.미.아.니.라.흥.히.싱.일이.일.흥.
 이.이.시.면.반.희.싱.일이.일.우.미.업.스.리.라. 이.천.이.십.이.년.송.헌.정.숙.자. 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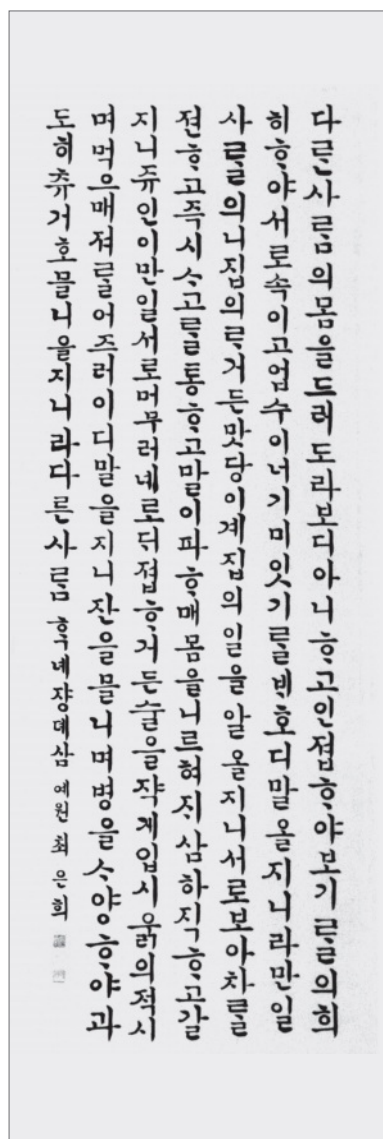
송헌 정숙자

큰화리.常例이니.샤.일.조.방.기.조.△.방.
 濟世才를.後人이.보.△.부.니.큰.샤.리.常.
 例아.니.샤.보.시.고.더.디.시.나.命世才를.
 即日에.기.그.시.니.貪.의.지.브.가.샤.避.仇.
 흥.소.니.마.리.兩.漢.故.事.애. 〇
 임.신.년.보.우.날.
 윤.슬. 〇

윤슬 서자영



淮堂 심종기



昭月 최은희

嶠柏箇紙辱景幽緇
 貳規畫荆于甲辰成于
 柴刃箇會麥木趾置點
 縱咸揚其宜于是卽君
 輔止王君 壬寅清明德光

덕광 황청호

佳也子之君如彼而幸其清古也若此
 句其及在宜後宜地而小然以一聯句
 系其七之義之而物之本必宜者也而何
 美不且及天地間物之宜之方此其所以
 狂電宜取曜以得高步能因也之而
 來之取之其葉用之謂是也物也其也
 舊字工子之六世公古

賢齋 전영옥

征逋新田為潤租未除農末的
兵強執多稅錢鑄國量蒼生何國
有園嘆此抽民米商人胡瘠笑人
犯差土牧亦嘆只氣政難布吏民
嘆差吏官代江南水謠一上天皇毫毛不
事地后虐不仁於迷下河水淋漓九
州人九州人食肉

壬寅年春平林韓順子

平林 한순자

俯笑八分包括篇章涵泳飛白若
豪魏不察男却越殊風色焉主如
鍾鼎聲奇張芝草聖決乃為精一
體以致絕佳伯英不食而點力暇難
元常不草史跡任橫白首已降不新
魚善者焉以不速此為精也陰美
韓學字工用多文壬寅仲春松苑

松苑

松苑 권옥자

素飯雙其飭流八基遷陰令吏民頡隨送
如雲周公怨思奚斯讚魯孝父頌殿前喆
遺芳有功不書後無述焉於是刊石豎表
銘勒萬載三代以來

壬寅年春 青淵

畫

青淵 사하정

白鳥扁曰予師余得平硯而水亦修而亦
子出并起俠父少不立是初沙洋表者
昔系良了權矢何系星控陸破左州友提
向友仲多接飛祥仙多持子洋孫偏多持子
洋孫捷通候孫羅懷永品騎坐城勿擊更
初寧如雲揚初振泥以策度言豈可從長
臨句奴主殿陵館年紫子洋河洋性

壬寅年春 青淵

畫

青谷 한주림

諱猛龍字神回南陽白水人也
其氏揆分興源流所出故已備
詳世錄不復具載盛鬱於帝皇
之始德星曜像於朱

壬寅春德香

德

德香 홍연숙

在志乙乙明波江漢時乃年武
旌旌色眼中綠女樣流雲輕句
石餘鯨甲身秋風波流落米
沉雲黑霞次蓬方墜粉紅矣
室撫一已惟与道江湖內地一
思得吾書有日遠近舒其峰陰
入後波移移系稻啄新鴨一眠

一眠 한길용

明文命綴紀撰書脩定禮義臣以為
 素王稽古德亞皇代雖有褒成世享
 之封四時來祭畢即歸國臣伏見臨
 辟廂曰祠孔子以大

壬寅晚春守美軒



臣盡才思惟庶政執稱
 為效增輒上臣晨誠惶
 誠頓首頓首死罪死上
 尚書時副言

壬寅晚春守美軒



守美軒 서경숙

夫天之道也東仁而首西義成故清
泰所居於指事者已地德也川浮動
岳鎮安故耆閣所臨取定者茲寺大
枉廡自玄同是以迴向右仰心淨域
列乎巖巔寶堂業太虛

壬寅李基 翠園

翠園 이나경

學耆至令司泠元盛同
了結社於上戸彰純巾
悲金譜先生像象景仰
觀摩止所名曰司泠氏
社地與果壬寅春奕沼

奕沼

奕沼 민시홍

空慧雙銓 寂用同轡
慈目相視 淨心相續
綜覈萬法 安住一歸
注大道經 究上乘理
永託茲嶺 克終厥生

壬寅年書 三朋

三朋 김인중

何如者乎 昔云前當休矣 云物以類聚 亦云又若
時人如得此而陰德以成 亦折矣 仁望目務 殊父心二
過乎 且之才 楊名乎 資焉 惡德母之 聖賢余心以子
之 豪猶紹古軍之 策札 隨以粗傳 枋易 官之 未克
望 裴乃 既信 神仙 飛崇 家兼以 行學 孰無 而情
後 事之 法考 以行 跋歷 亦亦 卷載 係之 耶 壬寅 德溪

德溪 이명재

寺大極殿自玄同是以迴
向度門廻于郭右仰心淨
域列乎巖巔寶堂岌業於
太虛道樹森梢於曾渚無
風而林壑肅穆不月

昭月

昭月 최은희

妙擬神仙形拖壇之內府上三體而
三運好矣為奇之士脫體勢之為
方亦淅河妙之士得捨物之興僕
義迷去依之松柏深於意者於其
善之如固茂現之云為凡矣達之
道者古是云至寅穀雨古軒

古軒

古軒 임규현

高五
百故
宛州
從事
任城
呂育
季華
三千
故下
祁令
東平
陸王
襲文
博千

壬寅晚春淮東



歷黃笑同研以必刻
鵠國就必燕然得
魚救應從成望
神少安有
我之客乃
可位於清
塲多就泉之
相於後儀
於則新信
近至分
書果樞樞
樞多堂
堂思代
出得為
少至時
柳波步
招以引
亦至中
吳者及
觀步
聽聲
就安
家亦
上之
予後
學神
之生
於魚
候
之
嫁
諸
似
葉
公
之
性
與
是
壬寅晚春淮東

淮堂 심종기

不書後無迷焉於是
刊石豎表銘勒萬載
三代以來雖遠猶近
詩云舊國

壬寅秋春松岩

松岩 김희수

康恩受任符守得在闡弘
德政煥堂變夙息屏營臣
晨頓首官行秋饗飲酒畔
建寧元丰到

壬寅春佳寧柳至映

佳寧 유지영

太寧中臨羗都尉平西將軍西
 海晉昌金城武郡太守遂家武
 威高涼州威武宣王沮渠時達
 威將軍武威太守曾祖璋偽涼
 舉秀才本州治中西

古潭禹聖王

고담 우성옥

지도강사

故志聖張
 是年十月晦步雪登舟于江東家從弟之黃泥板窗夜
 降未幾而曉人初起如御別館而不知其所以也
 酒後憶年芳日風清如洗良辰好景日與君共

此乃松江之體而酒乎同而係此如曰我斗酒題
 吾亦是搖酒之風也此乃松江之體而酒乎同而係此如曰我斗酒題
 不坐日月之歲月而江山之風清如洗良辰好景日與君共
 家弟之黃泥板窗夜降未幾而曉人初起如御別館而不知其所以也

此乃松江之體而酒乎同而係此如曰我斗酒題
 吾亦是搖酒之風也此乃松江之體而酒乎同而係此如曰我斗酒題
 不坐日月之歲月而江山之風清如洗良辰好景日與君共
 家弟之黃泥板窗夜降未幾而曉人初起如御別館而不知其所以也

六折利也之曰志聖張
 晴窗之有月也之曰志聖張
 狗食始知來事明
 張家子黃泥板窗夜降未幾而曉人初起如御別館而不知其所以也

석당 서성호

■ 임원현황

직명	성명	연락처	직명	성명	연락처
원 장	이만철	010-2850-7005	이사	염종규	010-9109-1136
부원장	김남구	010-7173-1624	이사	원종문	010-9647-7768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이사	김영란	010-8919-6452	이사	이강희	010-6376-2879
이사	고재욱	010-5364-7660	이사	이마숙	010-3115-4645
이사	김연화	010-9028-2747	이사	이영자	010-5370-5560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이사	김종길	010-6373-6243	이사	이은수	010-9572-0006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이사	정옥수	010-4255-3959
이사	박수홍	010-3474-5156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이사	방선수	010-3679-0879	이사	최영식	010-4841-5355
이사	손홍기	010-5364-8118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감사	이춘식	010-3702-6024
이사	심종기	010-3044-3088	감사	정희은	010-5374-3032

■ 직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박홍근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김진혜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8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가. 발굴수기: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 나. 시론 및 논단: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 다. 고향의 정취: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 라. 경로효친수기: 효행수기, 사례담
- 마. 테마, 기타: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8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인제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E-mail: injec6678@kccf.or.kr

인제문화

제37집

인쇄 2022년 12월

발행 2022년 12월

발행인 이만철

편집인 백창현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산책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